

# 제310회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임시회)

##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2년8월27일(월)

장 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201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4. 201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 심사된 안건

- |                                   |   |
|-----------------------------------|---|
| 3. 201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   | 1 |
| 4. 201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 | 1 |

(10시13분 개의)

○위원장 **한선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은 간사 간 협의가 되는 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3. 201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 4. 201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위원장 **한선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규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입니까, 한국방송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공식 이름은 한국방송공사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러면 김인규 한국방송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안녕하십니까? KBS

사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한선교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께 KBS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BS는 올해 경영 목표를 ‘글로벌 미디어 중심, 스마트 KBS’로 정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디지털 전환을 마무리 짓고 한국을 넘어 세계 속의 글로벌 공영방송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BS는 올해 열린 서울핵안보정상회의와 여수 EXPO의 주관 방송사로서 국제신호를 제작해서 전 세계에 성공적으로 송출했습니다.

그리고 원정 올림픽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둔 런던올림픽 방송에서는 방송 3사의 순차중계를 원만히 성사시켜 시청자들의 채널선택권을 보장했습니다. 특히 비인기 종목 등의 차별화된 편성과 알찬 내용의 중계로 올림픽 중계 시청률 상위 10개를 모두 차지하는 등 국가기간방송의 위상과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런던올림픽은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의 지원과 협력 아래 북한 주민들도 많은 경기를 시청할 수 있었고, 사상 처음으로 북한 취재방송단이 런던 현지 취재활동을 벌였습니다. KBS 사장이 ABU회장 자격으로 지난 7월 24일부터 사흘 동안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조선방송위원회와

올림픽 중계를 비롯한 방송협력에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10월에는 아태지역 52개국 방송사들이 참가하는 ABU총회가 서울에서 열려서 KBS가 한국 최초의 ABU 의장사로서 회의를 주재합니다.

방송 분야에서는 ‘드림하이’와 ‘다르마’를 비롯한 다수의 KBS 프로그램들이 각종 국제상을 수상했습니다. 한류의 열풍이 KBS의 대표 한류 프로그램인 뮤직뱅크 해외공연 등을 통해서 이어지면서 K-pop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전역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KBS는 또 국가기간방송으로서 19대 총선 방송을 차질 없이 수행한 데 이어서 연말 대통령선거방송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의혹이나 쟁점 사항들의 진상을 규명해서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독립적인 성격의 진실검증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의 결과로 지난달 주간지 시사저널이 발표한 언론매체의 신뢰도와 영향력 조사에서 KBS는 방송·신문·인터넷을 통틀어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KBS가 공정하면서도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한류 콘텐츠의 생산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수신료 수입이 한계점에 이르렀고 디지털 전환 등으로 부족해진 재원을 매워 주던 광고시장 또한 종편채널 등장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가 영국 BBC나 일본 NHK 등 선진국 방송처럼 고품격 방송을 제공하는 진정한 글로벌 공영방송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신료가 주 재원이 되어야 합니다. KBS가 공영방송다운 재원 구조를 갖추어 급속한 상업화의 물결에서도 방송의 청정지대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수신료가 현실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KBS 임직원들도 수신료 이상의 가치를 시청자들에게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매우 강력한 태풍 ‘볼라벤’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KBS는 지역국 네트워크와 재해재난방송 인프라의 전면 가동 준비를 마치고 태풍의 진로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기간방송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지적과 충고 그리고 지도의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KBS의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준삼 정책기획본부장이, 결산에 대한 내용은 박갑진 시청자본부장이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KBS의 집행기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영 감사입니다.

길환영 부사장입니다.

박갑진 시청자본부장입니다.

이화섭 보도본부장입니다.

전용길 콘텐츠본부장입니다.

김선권 뉴미디어·테크놀로지본부장입니다.

이준삼 정책기획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결산 보고 누가 하신다고 그랬지요?

요약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방송공사정책기획본부장 이준삼** 안녕하십니까? KBS정책기획본부장 이준삼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결산 관련해서 KBS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 일반현황과 12년 경영목표 그리고 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KBS의 설립 목적은 방송법 43조에 의거해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KBS는 방송법 44조에 의거해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 그리고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기술 개발은 물론 민족문화 창달과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방송할 공적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KBS의 기구입니다.

먼저 본사는 5본부, 5센터, 42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저, 잠깐만요!

오늘 결산 보고 날인데 주요업무보고를 그렇게 길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좀 더 요약 을 해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정책기획본부장 이준삼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국은 9개 총국, 9개 지역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인원은 현재 사장 1명, 감사 1명, 부사장 1명, 본부장 5명 등 8명입니다. 그리고 일반직 인원을 포함해서 현원이 4903명으로 정원 대비 657명이 적은 상태입니다.

다음, 예산 및 최근 5년간 수지 상황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수신료 5872억, 광고 6242억 등 1조 5872억 원입니다. 비용은 여기에 비해서 방송제작비가 1조 원, 시설운영비 2600억 원 등 6억 원이 적은 흑자 균형 편성입니다.

다음은 운영 매체 현황입니다.

TV는 1·2TV 2개, 라디오는 7개, 그리고 DMB 4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기본 방송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V는 1TV는 19시간 43분, 그리고 라디오는 제1라디오·1FM·2FM은 24시간 그리고 나머지는 20시간 안팎으로 방송하고 습니다.

다음, 기본 편성 비율은 1TV는 보도와 교양 중심, 2TV는 교양과 오락 중심으로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한 편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TV 외주 편성 비율은 1TV 24.8%, 2TV 43.1%로 이 역시 방송고시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설입니다.

본사 1개와 18개 지역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TV는 스튜디오와 구조정실 등 71개의 시설을 갖고 있고, 라디오는 46개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송신소와 중계소 간이시설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출자회사는 자본금을 직접 출자한 계열사가 비즈니스, 미디어 등 6개가 있고, 또 계열사에서 출자한 회사는 KBSN, 미디어텍 등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지분으로 참여하는 회사는 KT 스카이라이프와 연합뉴스 등 4개, 그리고 재단법인은 2개를 갖고 있습니다.

2012년 경영 목표는 '글로벌 미디어 중심, 스마트 KBS'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한 핵심 과제로 글로벌 미디어

역할 확대, 디지털 환경 변화 선도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영 목표는 '5000만의 디지털 세상 KBS가 열겠습니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미래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작과 송출시설디지털을 본사는 96%까지 그리고 지역국은 6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전략 부분에서는 '통합 플레이어 K'를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는 등 시청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방통융합형 콘텐츠 부분에서는 인터넷 기반 24시간 뉴스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래방송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Korea View 시스템'을 개발해서 실험 방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격·공영적 프로그램 제작 부분입니다.

'생명 대담사 아무르'와 '글로벌 대기획 김정일', '대한민국을 움직인 사람들' 그리고 '콩고열대림' '팔만대장경 천년 특별기획 다르마' 등 대형 고품질 고품격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 공영성 강화 부분에서는 공영성 평가지표를 연구 개발하고 있고, 'KBS 뉴스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보면 언론진흥재단과 방통위, 한국광고주협회, 시사저널 등에서 매체 영향력 또는 영향력과 신뢰도 1위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HD 편성비율도 1TV 92.3%, 2TV 88.7%로 확대했습니다.

다음,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1박2일' 이랄지 '고향을 응원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고 또 다문화가정 대축제 같은 것을 통해서 어린이, 청소년,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나눔 문화 캠페인과 봉사활동 등으로 사회공헌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간 공영방송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의성 있는 특집과 연속기획 등으로 국가적·사회적 의제를 설정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노

력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난·재해 방송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통합재난방송센터를 작년 6월에 개소해서 가동하는 등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 디지털시청 100% 재단을 설립해서 난시청 해소와 수신환경 개선사업도 활발하게 펴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방송 활성화 부분에서는 지역국의 제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로컬 편성을 확대하고 신입사원의 지역국 배치 그리고 순환 배치 등을 통해서 인력을 보강하고 중계차와 카메라 등 디지털장비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정기반 안정화와 경영효율화 부분입니다.

콘텐츠 판매 수입을 증대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예산 배분과 집행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 위주의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 예산의 흐름을 월별로 면밀히 체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직과 인력의 효율화 그리고 계열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박갑진 시청자본부장 보고해 주시지요.

○한국방송공사시청자본부장 **박갑진** KBS 시청자본부장 박갑진입니다.

배포해 드린 2011회계연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부문별 실적, 이익잉여금 처분, 재무현황,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결산개요 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KBS 예산은 수입 1조 5405억 원, 비용 1조 5401억 원, 당기순이익 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결산 결과 수입은 예산 대비 153억이 미달된 1조 5252억 원을 달성하였으나 전년도 실적보다는 7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사의 주요 수입 내용은 수신료 수입이 5779억 원, 방송광고 수입 5987억 원, 기타 수입 348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예산 대비 197억 원이 절감된 1조 5204

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실적보다는 11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사가 집행한 주요 비용 내용은 방송제작비 9811억, 시설운영비 2424억 원, 시청자사업비 317억, 판매관리비 2536억, 사업외비용 116억 등입니다.

당기순이익은 48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대비 44억 원이 초과하였습니다. 전년도 당기순이익 434억보다는 38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쪽 총괄표입니다.

총괄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11년도 수입이 1조 5252억 원, 비용 1조 5204억 원, 당기순이익 4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수입 1조 5252억 원에 대한 주요 부문별 실적은 수신료 수입이 5779억 원으로 예산 대비 5억 원이 미달하였으나, 전년도 실적보다는 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방송광고 수입은 5987억 원으로 예산 대비 7억 원을 초과하였고, 전년도 실적보다는 1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과료 수입은 보궐선거방송 관련 수입으로 3억 원이 발생하였고, 국고 수입은 국책방송 송출 및 제작 관련 수입으로 10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방송 수입은 2281억 원으로 예산 대비 49억 원을 초과하였고, 전년도 실적보다는 37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청자사업 수입은 280억 원으로 예산 대비 37억 원이 미달하였으나, 전년도 실적보다는 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은 815억 원으로 예산 대비 129억 원이 미달하였으나, 전년도 실적보다는 1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부문별 실적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11년도 총수입은 1조 5252억 원입니다.

방송사업 수입이 1조 4157억 원, 시청자사업 수입이 280억 원, 사업외수입이 81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부문별 비용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2011년도 총비용 1조 5204억 원에 대한 주요 부문별 집행실적은 방송제작비 9811억 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171억 원 절감하였고, 전년도 실적보다는 1044억 원을 증가하여 발생을 시켰습니다.

시설운영비는 2424억 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10억 원을 초과하였고, 전년도 실적보다는 24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시청자사업비는 317억 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45억 원을 절감하였고, 전년도 실적보다는 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판매관리비는 2536억 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19억 원을 절감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외 비용은 112억 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24억 원을 초과하였고, 전년도 실적보다는 28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법인세 비용은 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의 부문별 비용 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비용 1조 5204억 중에서 방송사업비가 1조 2235억 원, 시청자사업비 317억 원, 판매관리비 2536억 원, 사업 외 비용 112억 원, 법인세 비용 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기순이익 48억 원에 대해서는 공사정관 제39조제1항에 의거 처리하되 사업확장금으로 우선 적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KBS 재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KBS 자산은 1조 3361억 원으로 전년도 1조 1370억 원보다 19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유동자산이 350억 원 증가하였고, 비유동자산은 16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부채입니다.

부채는 6395억 원으로 전년도 4426억 원보다 19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유동부채는 1716억 원이 증가하였고, 비유동부채는 2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입니다.

KBS 자본은 6966억 원으로 전년도 6944억 원보다 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이 증가한 내용은 당기순이익이 48억 발생

하였고,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쪽 재무현황입니다.

재무현황 역시 앞서 설명드린 대로 KBS 자산합계는 1조 3361억 원입니다.

부채 합계 역시 6395억 원이며, 자본 합계는 6966억 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의 합계는 1조 3361억 원으로 자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10쪽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것 다 하셔야 돼요, 손익계산서 이런 것도?

○한국방송공사시청자본부장 **박갑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10쪽에 있는 손익계산서하고 11, 12쪽의 재무상태표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시청자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곽덕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곽덕훈** 안녕하십니까?

EBS 사장 곽덕훈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한선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1회계연도 EBS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EBS 결산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입은 2574억 원으로 예산 대비 99%를 달성하였으며, 비용으로 253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로써 2011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39억 원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EBS는 지난해부터 ‘콘텐츠 EBS, 스마트 EBS, 글로벌 EBS’를 핵심가치로 선정하고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 왔습니다.

EBS는 2011년 방송협회 방송대상을 수상한 ‘교육대기획-학교란 무엇인가’에 이어 올해는 ‘문명과 수학’ 시리즈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을 수상하고 ‘피오르와 리아스’가 블라디보스토크 다큐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다큐멘터리 EBS’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1년 EBS의 국내 외 수상실적은 56건에 달합니다.

EBS는 미국 공영방송인 PBS의 웹사이트에 콘텐츠 탑재를 추진하고 구글, 유튜브와 콘텐츠 제공 협약을 맺는 등 우수 콘텐츠의 해외 유통 창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RTR 국영방송과 벨라루스 국영 TV 등 다양한 국가와 콘텐츠 제휴 협약을 맺으며 세계 교육방송을 선도하는 '글로벌 EBS'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공영방송이라는 위상과 달리 EBS의 총예산 중 공적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8.6%에 불과합니다. 월 수신료 2500원의 3%에도 못 미치는 70원이 EBS에 배정되고 있으며, 수신료 수입은 EBS 총예산의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열악하고 비정상적인 재원구조는 EBS에 부여된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많은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EBS가 학교교육 보완과 국민의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발전이라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성실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현실화와 합리적 배분을 통해 EBS 재원구조가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많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BS는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위해 EBS가 해야 할 역할을 가슴 속에 항상 간직하고 학교폭력 예방 프로젝트, 학교와 가족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공교육 보완 및 창의·인성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그동안 심혈을 기울인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심의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EBS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구 부사장입니다.

김명세 평생교육본부장입니다.

김봉렬 학교교육본부장입니다.

김석태 융합미디어본부장입니다.

박치형 정책기획센터장입니다.

최혜경 콘텐츠기획센터장입니다.

박성환 스마트서비스센터장입니다.

류현위 콘텐츠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EBS에 대한 이해를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EBS 주요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고, 2011회계연도 EBS 결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성환 스마트서비스센터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드린 2012년 EBS 주요 업무현황이라는 PPT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크게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 및 2012년 경영방침이 되겠습니다.

EBS는 2012년 핵심가치로서 '콘텐츠 EBS, 스마트 EBS, 글로벌 EBS'를 정하고 창의교육·미래방송 EBS를 경영지표로 설정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교육미디어 그룹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EBS는 방송채널에 보시다시피 여러 개의 지상파나 위성·케이블 TV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 약 10개의 인터넷사이트와 지금 현재 EBS의 모든 콘텐츠는 모바일 환경에서 볼 수 있게끔 처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EBS의 인력 및 예산현황으로서 정원 611명에 현원 59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보시다시피 총예산 2012년도 기준 2789억 원 중 공적재원이 26.7%에 해당하는 745억 원이고 나머지 73.3%는 자체수입으로 조달해야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적재원 중에서 수신료는 165억 원으로 5.9%에 이르고 있습니다. EBS 운영에 대부분의 예산을 출판에서 충당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편성방침으로 EBS는 창의교육·미래방송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 정체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마트를 지향하며 콘텐츠 역량을 무엇보다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공영방송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 전인적 교육 의제 설정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 변화를 근본적으로 분석해서 '학교의 재탄생'이라든가 '학교란 무엇인가'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EBS는 학생들이 많은 시청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N-스크린 기반의 창의·인성 교육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창

의·인성 교육콘텐츠로 소통과 공감, 감수성을 계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명과 수학’이라든가 ‘생명-40억 년의 비밀’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근절 및 자살 예방 프로젝트’로서 10부작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저희 EBS는 느끼고 EBS FM 방송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11시간 책 읽어주는 라디오로서 지금 전 국민의 감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EBS는 4대 목표 12개 실천과제를 설정해서 금년도에 약 9790억 원 정도의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EBS의 설립목적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것을 가장 역점에 두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비디오클립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15일 현재 약 5만여 개가 만들어졌고 금년 말까지 7만 개 정도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3분에서 5분 정도의 클립을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필요할 때마다 바로 연결해서 갖다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조금 목소리를 낮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공교육 보완으로서 창의·인성 콘텐츠 강화가 되겠습니다.

공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수학 개념을 만든 ‘수학의 원리’는 현재 조만간에 미국의 PBS에 탑재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드는 콘텐츠가 세계적인 PBS에 탑재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고품격 디지털교과서 서비스를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팀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현안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디지털통합사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 일산으로 이사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원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와 협력을 취하면서 최대한도로 재원을 확보해서 통합사옥을 건축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영 혁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도 혁신을 근본적으로 일으켜서 EBS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EBS가 되면서 세계 교육을 선도하는 EBS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EBS는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콘텐츠를 만들기보다는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EBS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012년 6월 1일자로 EBS 미디어라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세계적인 콘텐츠 판매에 돌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BS의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과 해외 기관들과 MOU를 통해서 앞으로 EBS 콘텐츠를 세계에 선보이고 또 EBS 재원을 세계를 통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 및 콘텐츠 교류를 더욱더 확대해서 EBS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세계 교육을 선도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구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정말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EBS 총예산의 5.9%만이 수신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TV 수신료가 반드시 인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인상을 통해서 방송콘텐츠의 질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논하지 않으면서는 교육방송 역시도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저희가 주장한 대로 한 3500원으로 인상된다면 EBS한테는 한 500원 정도가 올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8페이지는 저희 EBS가 자랑 삼아 그동안에 수상한 실적을 표시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결산보고는 박성환 스마트서비스센터장으로 하여금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스마트서비스센터장 박성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서비스센터장 박성환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2011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 앞에 준비된 결산개요, 흰색 소책자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중 3페이지 결산 총괄표입니다.

2011년도 수입예산은 25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결산 결과 편성예산 대비 25억 원 미달된 257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비용은 편성예산 2632억 원 대비 97억 원 절감한 253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수입과 비용의 집행 결산결과 당기순이익은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비용 1억 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39억 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39억 원 발생한 것은 부대사업이 성장세를 이어간 수익적인 측면과 더불어 비용절감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문별 수입실적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수입 2574억 원에 대한 주요 부문별 실적입니다.

방송사업수입은 1163억 원으로 예산목표 1182억 원 대비 19억 원이 미달되었습니다. 부대사업 수입은 1369억 원으로 예산목표 1374억 원 대비 5억 원 미달되었습니다. 사업외수입은 42억 원으로 예산 43억 원 대비 1억 원 미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7페이지 부문별 비용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비용 2535억 원에 대한 주요 부문별 집행액입니다.

매출원가는 2223억 원 집행하여 예산 2331억 원 대비 108억 원 절감하였습니다. 판매일반관리비는 303억 원 집행하여 예산 298억 원 대비 5억 원 초과하였습니다. 사업외비용은 8억 원 집행하여 예산 3억 원 대비 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통합사옥 건축을 위한 토지구입대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3억 4000만 원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당기순이익 39억 원은 공사 정관 제38조1항에 의거하여 이익금의 20%인 7억 8000만 원을 이익준비금으로, 나머지 31억 2000만 원을 임의적립금으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은 1690억 원으로 전년도 1659억 원보다 3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유동자산은 31억 원 증가했으며 비유동자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채는 599억 원으로 전년도 607억 원보다 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은 1091억 원으로 전년도 1052억 원보다 39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당기순이익 39억 원 발생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 장 10페이지의 손익계산서와 11페이지의 재무상태표는 앞에서 보고드린 손익상황과 재무상태를 재무제표 형식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부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부년** 201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에 대해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위직급인 2직급 인력의 비중이 49.1%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평균 인건비성 경비가 연간 9300만 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위직급 인력 비중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KBS에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물론 효율적 인력 운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직급 간 적정한 인력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KBS 인건비성 경비가 전년 대비 7.4%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KBS는 인건비 증가의 역제를 위하여 2010년 기본급 인상분을 2011년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2010년 인상분 3.5%와 2011년 인상분 4.5%가 동시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만 2011



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건비성 경비가 전년 대비 7.4% 증가한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방송개발·연구사업에서 당초 6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률이 87.4%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방송개발·연구사업의 집행률은 모두 90% 미만에 머무르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3D콘텐츠제작사업에서 45%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법에서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 방송서비스 및 기술을 개발·연구하도록 KBS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방송환경에서 개발·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KBS는 방송개발·연구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고 특히 3D콘텐츠제작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디지털시청100%재단의 2011년 난시청 해소목표가 전체 난시청 가구의 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KBS는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인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2010년 12월 디지털시청100%재단을 설립하고 320억 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100%재단은 전체 사업대상인 난시청 가구를 16만 7000세대로 추정하고 2011년에는 이 중 12%인 약 2만 세대의 난시청 가구의 난시청 해소를 목표로 하여 총 2만 415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는 현재 운영재산이 262억 8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만큼 난시청 해소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조기에 난시청 세대에 대한 지원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7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제한 당기순이익이 우면산 사태로 EBS제작센터 재건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32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캐릭터사업 수입 증가로 영상사업 수입이 증가하고 인쇄비용의 절감 등으로 출판사업비가 일부 감소함에 따라 39억 600만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원격교육연수원사업에서 당초 7억 원을 편성했으나

수입 실적이 2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교육연수원사업은 34%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변호사연수원사업은 7%의 실적을 거두는데 그쳤습니다. 2009년과 2010년도에도 원격연수사업에서 각각 0.4%, 35%의 부진한 실적을 보였는데 2011년도에 신규로 온라인변호사연수원사업을 수행한 것은 다소 무리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EBSi 사이트를 통한 대학배너광고수입도 7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수입 실적이 6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EBS의 인건비성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6.7%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긴축기조로 볼 때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인력이 2009년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BS는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10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 19명이었던 비정규직이 11년도에는 46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EBS는 현재의 이와 같은 단기적인 인력 운용 행태를 지양하고 보다 장기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하실 순서인데 최재천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두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리더십으로 저희들이 지금 여러 어려움을 딛고 우리 문방위가 잘 순항하고 있음을 간사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7월 개원국회 관련해서 원내대표 합의 사항인 문방위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를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 그 합의사항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논의 구조 마련을 우리 위원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KBS 등을 비롯한 수많은 방송과 언론사에서 해직기자들, PD들, 작가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 국회가 단지 당파적인 이유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초적인 논의의 틀조차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이 또한 정치의 비극이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7월 개원 합의사항의 본래적 정신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펼쳐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야기는 저희들이 지금 오늘 회의가 끝나면 KBS, EBS의 이런 결산 심사는 물론 문화부나 방통위에 대한 결산을 예산결산심사소위로 넘겨서 거기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으로 보낼 만한 객체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 민주당의 잘못도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야 간 협상일수록 사실 다수당인, 5대 5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양보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법안심사소위원장 문제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원장과 나머지 위원장 간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에 대한 인원 구성 문제를 놓고 여러 논의가 계속 중입니다마는 현재 담보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른 상임위를 예로 드는 것이 조금 걸맞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다른 상임위들은 법안심사소위를 민주당에게 배정한 사례도 둘이나 있고 그다음에 5대 5로 여야 동수로 배정한 사례도 사실 여럿 있습니다. 그런 선례를 굳이 참고할 필요조차 없이 앞으로 2년간 저희 문방위가 좀 더 적극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과 우리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개인적인 자료제출 문제입니다.

제가 방통위 결산심사 때 이길영 감사의 최종학력에 대한 논의 문제를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고 끝장내기 위해서 이사 선정 과정 때 최종적으로 제출된 최종학력에 대한 증명, 그리고 이길영 감사를 누가 추천했는지 추천서류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말씀드렸고 위원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홍성규 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이길영 감사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이런 자료들이 일체 제출되지 않고 있

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유승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위원장 한선교 예,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드릴게요.

지금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감사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소위 구성에 관해서는 우리 조해진 간사께 그간에 두 간사님의 논의 진행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마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오늘아침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아마 그것은 될 것 같고, 청문회 개최는 이것은 물론 합의 사항에 ‘노력한다’ 이런 문구도 있고 하지만 한번 더 진지한 양당 간의 논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인규 사장님, 이길영 감사님의 최종학력이라든지 추천서류 이것은 공개하지 못할 사안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것은 KBS 사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그것은 저희 방통위 소관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런데 그것을 공개할 수 없는, 원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법적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그런 것에 따라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본인인 이길영 감사가 자천타천을 제외한 다른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가능하다고 본인이 동의를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자천타천 문제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즉시 지금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하여튼 빨리 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바로 하겠습니다.

유 위원님 먼저……

○유승희 위원 김인규 사장께 자료요청을 좀 하는데요, 8월 24일 새 노조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가 있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유승희 위원 김현석 위원장 해임조치 사유가

뭐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인사위원회는 사장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유승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해임조치 및 집행부 18명에 대한 중징계가 있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11년, 2012년 이사회 회의록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송달이 너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11년 1월부터 2012년 8월 현재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그리고 2011년 1월부터 2012년 8월 현재까지 법인카드 집행현황, 그리고 공정성평가위원회의 조직인원 현황에서 2010년도 9월 16일부터 2012년 8월 회의록 사본, 그리고 2010년 9월 16일에서 2012년 8월 활동내역, 성과, 예산 사용 내역, 결과보고서, 그리고 12년 사업계획서, 공적책무 확대 방안을 포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1년부터 2012년 8월까지 KBS 단기차입금 세부 사용 내역을 요청을 계속해서 했는데 이것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TV비평 시청자데스크'의 2011년부터 2010년 8월 프로그램 내 지적사항 개선 반영 운영 상세 내용 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송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또 추후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다 적으셨어요?

꼭 좀 오전 내로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신경민 위원님!

○**신경민 위원** 신경민입니다.

자료요청을 다섯 번이나 했는데 회피를 하거나 영똥한 자료를 내거나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 관계자, 사무국장이나 KBS 대외협력실장 지금 나와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이사회사무국장 김덕기** 예, 나와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누구십니까?

○**한국방송공사이사회사무국장 김덕기** 이사회

사무국장입니다.

○**신경민 위원** 사무국장도 아마 본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요청, 자료요구에 대해서 서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난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장난치지 마시고 자료를 즉각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KBS 이사회 의장이 나오시든지 몇 가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KBS 사장이 대외협력실장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대외협력실장이나 사장이 답변을 하든지 납득할 만한 자료나 설명을 요청합니다.

첫째, 2009년 12월 11일 633차 이길영 감사 선출 관련 이사회 속기록 제출하십시오.

면접 당시 녹음과 녹취 기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면접 이후 이사회 논의 때 녹음 녹취 속기록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속기록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법적 책임져야 되고 담당 책임자와 지휘관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또 2009년, 이보다 한 달 앞선 거지요, 2009년 11월 9일 김인규 사장 선출 관련 이사회 속기록 제출하십시오.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기 KBS 이사 중 KBS 출신 이사 5명, 누구인지는 다 아실 것이고요, 인사기록카드와 자격철 사본 제출하기 바랍니다. 요약본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하나, 2009년에서 2010년 KBS 안전관리팀 특별감사 1, 2차 감사보고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예 답이 없습니다. 유구무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는지 이유도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KBS 연구용역 중에 두 가지 요청한 것 있습니다. 요약본 냈습니다. 왜 요약본 냈습니까? 2010년 한국언론학회 연구용역하고요, 2011년 KBS 뉴스·시사프로그램 공정성 연구용역 두 가지 왜 요약본을 냈습니까? 이것이 비밀입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문방위원회 놓고 장난합니까, 거짓말하는 것을 할만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우롱하고 무시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사회 사무국장이나 KBS 대외협력실장 차원이 아니고 이사회 의장과 KBS 사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자료를 내지 않거나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면 책임을 추궁하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수고했습니다.

○강동원 위원 자료요청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먼저 하십시오, 강동원 위원.

○강동원 위원 강동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했더니 KBS에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한 것이 있어요. “회의록에는 공영 방송 KBS의 경영·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회의록의 공개는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방송법에 보장된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심대히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널리 해량 바랍니다.” 이랬어요.

자료 요구합니다.

2008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이사회 회의록 전부 사본으로 복사하되 요약하지 마시고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 국회에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그동안에 독립성 침해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 문방위에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해서 공공성 침해한 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를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인규 사장께서 금방 인사말씀을 할 때 수신료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수신료와 관련된 자료 요구합니다. 지금 한전과 통합징수하고 있는데 한전과 통합징수할 당시의 계약서 사본, 그리고 통합징수를 했는데 부당징수 민원 접수가 있습니다. 부당징수 접수 현황 최근 5년치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통합징수대상자, 즉 수용가지요. TV 수상기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TV 수상기가 없는데 그동안에 부당하게 징수한 사례,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은 1개월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조해진 간사!

○조해진 위원 최재천 간사님께서…… 오늘 시점까지 우리 문방위 법안소위·예산소위·청원소위, 원래대로 하면 오늘 의사일정에도 올라 있으니까 오늘 의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걸 위해서 여야의 간사들끼리 많이 협의를 하고 또 당내의 의견도 조율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오늘 의결

여부가 좀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간사로서 저도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재천 간사님 말씀처럼 오늘 결산심의가 원만하게 끝나면 내일부터 소위에 넘겨져서 심의하고 다시 전체회의로 넘어와서 의결하고 또 예결위·분회의를 통해서 최종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하루도 거의 여유가 없어서,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차례 서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지금 법안소위 위원장 건이 걸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뿐만이 아니고 또 청원소위, 다른 소위까지도 같이 일괄해서 타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되지 못해서 결산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여야의 주장과 의견이 지금 조금 차이가 있는 만큼 이 차이를 줄여서 최대한 합의에 이르러서 오늘 의결하고 내일 예결소위에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두 분 간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질의를 시작할 텐데 김인규 사장께 제가 한 가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위원장 한선교 TV로 뭘니까, 태풍 뭐 여러 가지 이런 방송 등은 굉장한 위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천재의 어떤 양을 줄이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24시간 방송되겠지요, 그 태풍의 크기에 따라서?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위원장 한선교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위원장 한선교 라디오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뭐 오늘 아침에도 아침 회의 때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라디오도…… 태풍 불라벤이 지금 제주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기 때문에 라디오에는 수시로 특보 방송이 나갑니다, 태풍 관련.

○위원장 한선교 물론 수시로…… 뭐 수시가 계속 연속방송도 될 수 있겠지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런데 일단 제주도가 태풍권에 들어오면 아마 특보방송이 계속 라

디오 같은 경우는……

○**위원장 한선교** 그래서 요즈음은 라디오 듣는, 자동차 같은 테라든지 아니면 나이드신 분들은 그냥 라디오 켜 놓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위원장 한선교** 그래서 거기도 TV 못지않은……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물론입니다. 그래서 1라디오는 특히 거의 불라벤이 제주도에서 상륙하는 오늘 오후부터는 방송이 특보방송으로 체제가 바뀔 겁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기로 하고요.

먼저 최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 최우식 씨 관련 1차 감사보고서 그리고 최우식 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결정이 나게 된 2차 감사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철왕’ 편성 기획안 전문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KBS 새 노조 관련, 새 노조 구성원에 대한 인사조치 그리고 그 인사조치의 이유 그리고 그 절차, 제가 오후에 이거 질문할 거니까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최민희 위원** 김인규 사장님, KBS 사랑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KBS……

○**최민희 위원** 사랑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그렇지요.

○**최민희 위원** 그 점에 있어서 사장 자격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방송 장악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서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KBS의 공공성,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논의 시작할 건데 협조하실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KBS의……

○**최민희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지배구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 측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협조하실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최민희 위원** 화면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는, 앞에……

앞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박태준 전 회장 사진이구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사장님은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 사진이구요. 그 밑에가 이번에 문제가 된 장준하 선생님 유골입니다. 지금 저는 이 두 파가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 역사의 한 갈래라고 봅니다.

그런데 KBS가 최근에, 지난해부터 ‘강철왕’이라는 드라마 기획하고 그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 관련 프로그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김대중 대통령이나 장준하 선생에 관한 프로그램 기획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아……

○**최민희 위원** 그냥 있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그렇게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민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을 한 적이 있으시냐고요, 드라마로.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드라마 기획은 사장이 모르지요. 우리 드라마제작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민희 위원** 모르시니까, 저는 뭐 사장님이 알 거 같은데 모르시니까 드라마 기획은 안 한 것 같은데 좀 이따 여쭙 볼게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최민희 위원** 김인규 사장님 땡전 뉴스 시절에 뭐 이런저런 보도하셨다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군부 시절에 엄혹한 상황에서 많은 언론인들이 이런 보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자의로 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글썄, 어떤 뉴스를 놓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최민희 위원** 뭐 예를 들면 87년 6월 10일 김인규 전 사장님의 리포트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약속이 확인되는 정치적 절차로서의 민정당 대회, 전두환 대통령이 민주정치 발전의 결정적 전기를 마련하고 그의 정치철학이 현실화됐다는 내용, 뭐 민정당 전당대회가 단순한 정당행사가 아니라 우리 헌정사에 길이 남을 거다…… 이거 뭐 대중의 시각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자의였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 당시에는 민정당 출입기자로 뭐 저도 야당에도 출입하고 여당에도 출입을 했습니다마는 그 출입을 했을 때 그 출입기자로서의 시각으로 리포트를 했겠지요.

○**최민희 위원** 아, 그런데 자의로 하셨어요, 어쩔 수 없으셨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리포트라는 게 기자가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거지요.

○**최민희 위원** ‘강철왕’ 기획하셨지요? KBS……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뒤를 돌아보며) 글썄, 우리 드라마국장……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예.

○**최민희 위원** 강철왕 기획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기획 안 했습니다. 외주제작사에서……

○**위원장 한선교**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최민희 위원** 아, 기획 안 했어요? 이 시간 빼주세요. 나와 보시지요, 마이크 앞으로.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확실하게 아는 거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드라마국에서만 아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KBS 드라마국장입니다.

○**최민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봐 주세요.

그러면 이런 거는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박승호 포항시장 블로그, ‘KBS 드라마 강철왕 제작 업무협약을 KBS와 독립제작사가 체결했다’…… 이거 다 잘못 올리신 건가요? 포항시 홈페이지, ‘강철왕은 강호프로덕션에서 제작하여 KBS 2TV에서 24부작으로 방영될 거다’……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강철왕은 외주 제작 프로젝트고요. 외주제작인 경우 KBS가 기획하는 게 아닙니다. 외주제작사에서 기획을 해서……

○**최민희 위원** 그런데 누구신가요, 성함?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드라마국장입니다.

○**최민희 위원** 이름이 뭔가요?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고영탁입니다.

○**최민희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 볼게요. 잘 나오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KBS에 자료요청을 계속해서 이 자료 받았습시다. 이게 KBS 한국방송과 강호프로덕션

간에 편성 의향 뭐 통보하고 통보받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국방송공사 사장 직인은 찍혀 있는데 뭐 책임 EP도, 국장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고영탁 국장님이 책임자고 박기현 EP, 뭐 이재영 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구멍 뻥뻥 뚫어서 저희 의원실에 자료 보내 주셨습니까? 왜 이러셨어요?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저희가 보낸 것은 아니고요.

○**최민희 위원** 아니, 이거 저희가 보낸 게 아니라고요?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대외……

○**최민희 위원** 아니, 여기에 한국방송공사 사장 직인이 찍혔는데……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문서가 대외시행 시 외부로 나갈 때에는 기안자하고 최종 결재자만 찍히고 중간 과정은 빠지는 것으로……

○**최민희 위원** 여기에 기안자가 어디 있습니까? 기안자도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자료 보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하실 거예요? 계속 진행하실……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KBS가 기획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외주제작 시스템에 따라서 외주제작사가 기획을 하면, 가지고 오면 저희는 검토를 하는 겁니다.

○**최민희 위원** 아니, 검토해서 하기로 하셨어요, 아니면 이거 말도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처음에 한 번 검토를 했고요. 소재는 좋으나 내용이 부실하니까 수정·보완해서 다시 상정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민희 위원** 고영탁 국장님은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고 관련 회의에서 얘기를 하셨던데 이거 뭐니까? 저희가 확보한 자료, 이거 뭐 다 거짓말입니까? 저희가 그 기획안 어떻게 보게 됐습니다. 거짓말하시는 겁니다, 지금. 계속하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그 자료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여기에 기안자도 없고 아무도 없

습니다. 여기에 구멍 뽕뽕 나 있습니다. 이런 자료 국회에 보내도 되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 자료를 좀 보시지요. 무슨 자료인지……

○**최민희 위원** 그거 갖다 드리세요, 이 자료.

KBS가, 공영방송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EBS 사장님!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최민희 위원** EBS가 수신료 지원액이 너무 적고, 그거 본 위원 동의합니다. 앞으로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EBS가 구석구석 일을 잘해야 될 거 같습니다.

EBS가 아동 대상 성교육 및……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만드신 적 있으시지요? 이게 언제 있으셨는지 아십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최민희 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그동안에 2000년도 초부터 꾸준히 조금씩 해 왔는데요.

○**최민희 위원**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 2005년에 ‘아이들이 사는 성’, 하나 성교육 프로그램 방영하고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사안이고요, 저희가 보도자료 돌렸으니까 확인해 봐 주십시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최민희 위원** 그다음에 EBS가 어린이 관련 애니메이션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캐릭터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캐릭터 저작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여러 가지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안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EBS 예산안이나 결산안 다 보았는데 EBS 캐릭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예산이 제로입니다. 이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예산편성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알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을 출신 이재영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프리 선언에 대해서 두고만 볼 건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름을 좀 불러 보겠습니다. 이수경·이금희·정은하·손범규·최은경·김현욱, 공통된 이름이지요? 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이재영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프리랜서로 전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우리 아나운서 중에서 프리랜서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우리 김현욱 아나운서가 나갔고……

그런데 전체적인 트렌드가 과거에는 아나운서를 했다가 프리랜서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데 요새는 조금 개성이 강해서 아마 본인들이 원하면 회사에서 그걸 더 이상 그렇게 막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재영 위원** 전현무 아나운서도 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보고 받았습시다.

○**이재영 위원** 사표, 사직서 제출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잠깐 기다려 보세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수리는 안 된 상태입니다.

○**이재영 위원** 인기가 있고 KBS 아나운서로서 국민에게 흥미와 또 국민의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아나운서들이 프리랜서로 행하는 거에 대해서 사장님은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물론 사장이 직접 나서기 전에 담당 PD나 CP나 EP나 국장이나 본부장들이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장도 나서서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다 거치는 거지 그런 게 없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영 위원** 금전적인 문제도 따르겠지요.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물론입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아나운서로서는 회사직으로 해 가지고 수당이 뭐 1~2만 원 정도 되지만 또 그쪽으로 가 가지고는 CF라든가 뭐 해 가지고

몇천만 원씩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차이점은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입사해 가지고 아나운서로서 KBS를 위해서 공영방송을 위해서, 사장님의 리더십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지금 아나운서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있는 임기 중에, 3년째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프리랜서로 나간 사람이 불과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본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나름대로의 자기의 꿈도 있고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회사의 어떤 방침에 불만을 품고 나가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프리랜서로 전환해 가지고 퇴직하면 KBS의 프로그램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게 일부, 사규에는 없는 거고요. 아마 아나운서협회에서 나름대로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사규에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세한 관계는 우리 관계자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3년 동안 금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도 KBS에서 많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 영상물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독도 영상물 보급을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지금 위성으로 되는 게 30여 개가 있고 인터넷까지 해서 지금 한 60개 정도……

**○이재영 위원** 54개 독도 영상물을 보급하고 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이재영 위원** 그런데 보급하는데, 우리 국민 전체가 알 수 있게끔 초중고 학교나 기관에 다 공급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또한 외환은행하고는 양해각서를 써 가지고 외환은행 영업점에는 다 상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독도를 이 시간 현재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향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출발은, KBS가 재난·재해 방송을 위해서 2005년에 했습니다마는, 2010년부터 그것을 일반 시청자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HD 화면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영상이 있는데, 아시겠습니까마는 이게 지금 국회 로턴더 홀에도 있고, 위성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는데 이것은 위성 셋톱박스하고 수신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요새 뉴미디어의 발전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갔을 경우에는 가격이 한 50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지금 외환은행 같은 데서는 외환은행 전 지점에 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재영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국과 일본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언론자료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초등학교 교사 70%가 독도영유권에 대해서 배경을 모른다’고 나왔어요, 교사가. 그런데 그게 자료에 보면 경기지역의 17개 초등학교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71%에 달하는 교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다’ 하는 이런 내용을 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영상물을 지금 7년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실질적으로 한 것은 3년차인데요.

**○이재영 위원** 3년차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KBS가 5800여 개에 달하는 초등학교 또 3100여 개에 달하는 중학교, 2300여 개에 달하는 고등학교 또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합쳐 가지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교과부·관계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 좀 협의해 가지고 ‘독도는 진짜 우리 땅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고, 우리 본래의 땅이지 무슨 조약 그런 데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이재영 위원** 초중고부터 그런 것을 좀 익힐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EBS 사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감사히 느끼고 있고



요. 열악한 것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3월 달에 안병만 교육부장관께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수능시험 강의를 하게끔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EBS가 수능시험에 대한 그런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곽덕훈** 지금 수능 수입은 교재와 관련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연계 교재 매출이 약 520억 정도 되고요. 그에 따른 수능연계 교재 이익은 약 153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23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곽덕훈** 그것은 연계 교재를 포함한 모든 교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좀 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곽덕훈**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EBS 전체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수능 교재 판매를 좀 인하시키든지 해 가지고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말씀하실 때 인건비에 대한 것이 한 7%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7% 정도 올랐는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곽덕훈** 예.

○위원장 **한선교** 추가질의해 주시지요.

제가 사실 95년도에 처음으로 프리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재직했던 MBC에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좀 넓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모르지요, 요즘은 왜 그런지.

배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정 위원 김인규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배재정 위원 오는 11월 23일로 임기가 끝나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11월 23일입니다.

○배재정 위원 연임하실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11월 23일로 임기가

이제 끝납니다.

○배재정 위원 정연주 전 사장님 전례가 있어서, 대선에서 어느 쪽이 승리할지 모르니까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김인규 사장님께서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인정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드라마 ‘강철왕’ 제작 지시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저는 드라마 강철왕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드라마국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KBS에서 아직 기획단계로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돼야지만 사장한테 보고가 됩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편성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럴 겁니다.

○배재정 위원 이 강철왕이 화제가 되는 이유가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을 다룬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발독재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고, 또 재미있는 것은 드라마 세트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생가에서 겨우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더라고요.

‘편성 확정되지 않았다’고 금방 말씀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배재정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게 떨어져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1년 3월 31일입니다, 올해가 아닙니다. 지난해 3월 31일 날 KBS 한국방송이 유한회사 강호프로덕션에 ‘드라마 강철왕(가제) 편성 의향 통보’라고 해서 편성 의향을 통보하셨습니다. 이것은 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편성의향서에 대해서 의미 해석을 일반 분들이 정확히 잘 모르시는데 그 정확한 해석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라마국장이 와서 편성의향서가 뭔가를 설명을 해 주세요.

○배재정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편성의향서는 모든 외주제작사가 편성을 원할 때 저희가 편성의향서를 떼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편성을 확정된 것은 아니고 편성의향서가 있어야 초기 제작단계에서 준비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떼어 주는 것입니다.

○배재정 위원 좋습니다.

고 국장님이시지요?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예.

○배재정 위원 강철왕 제작에 대한 이야기 언제 부터 아셨어요?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제가 드라마 국장이 되고 나서 이후에 들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편성의향서 몇 번 보내셨어요?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제가 있을 때 총 세 번 보냈습니다.

○배재정 위원 세 번 보내셨어요? 언제 언제 보내셨어요?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한 번은 2011년 3월 30일자로 보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2011년 9월 22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낸 게 기획회의 통과한 직후인 2012년 6월 4일 이렇게 보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렇게 보내셨어요?

아마 미디어오늘 보도를 보셨는 모양이지요? 준비를 좀 해 오셨네요?

콘텐츠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한국방송공사콘텐츠본부장 전용길 콘텐츠본부장입니다.

○배재정 위원 드라마 기획회의에서 수차례 ‘강철왕 같은 명품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기억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콘텐츠본부장 전용길 예, 보고받고 제 의견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강철왕 같은 명품 드라마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콘텐츠본부장 전용길 예, 만약에 확정이 될 경우 좋은 드라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KBS 드라마국의 역량과 그 능력을 믿습니다. 상업방송과 차별되는 좋은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확정될 경우에. 아직은 대본이나 여러 가지가 미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1차 기획회의 후에 수정 보완을 내려놓은 상태이고 2차 대본이나 여러 가지 제작리소스 상태를 봐서 괜찮으면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배재정 위원 확정은 언제쯤 지으실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콘텐츠본부장 전용길 그것은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외주제작사가 갖고 오면 저희 CP와 EP와 국장들이 몇 차례 검토를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배재정 위원 KBS 구성원들이 안타깝게도 우

리 콘텐츠본부장님의 생각과 달리 경악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기획회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170억 원이나 되는 대작 드라마 편성 의향서 통보 공문을 다른 분들은 모르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결산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철왕 편성에 관해서 ‘최근에 알았고 최근에 편성의향서를 보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추적한 결과 지난해 3월 이미 외주제작사에 전달했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이길영 감사님 계십니까?

잠깐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한선교 와이어리스 마이크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셨나요? 자꾸 들락거리는 데 시간 걸리니까 말이에요.

○배재정 위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잘 아시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잘 압니다.

○배재정 위원 2006년 지방선거 때 선거대책위원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경북도지사 인수위원장도 지내셨고요. 이 정도면 정치인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분께서 공영방송의 감사로 있고, 더군다나 차기 이사장이 되시려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선대위원장 할 때는 오늘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고요.

○배재정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떠세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인수위원장을 맡을 때는 마침 방송사장을 그만두고 쉼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방……

○배재정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 지사와 강철왕 건으로 통화하시거나 만나신 적 있으시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런 적 없으세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배재정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난해 7월에 벌써 경북도청에 이런 부분들이 다 전달이 되고요. 무려 20억 원이나 경북도청에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김관용 도지사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충분히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받으실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저하고 그 프로그램

과 관련되는 연결이 전혀 없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사장님께 질문드려야 될 거 같은데, 2011년 11월 포항시가 경북도에 보낸 공문을 보면 ‘추진 경위, 2011년 5월 6일 한국방송공사 제작사 관계자 4명 포항시 방문’ 이런 추진 경위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KBS에서 포항까지 방문해서 가지고 이 강철왕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셨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드라마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라마국에 이재영 CP가 있는데요, CP가 당시 제작사 대표하고 그리고 유정수 작가하고 같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배재정 위원** 정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셨네요, 강철왕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위해서?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내려간 목적은 CP가 서울 출신이고 포항제철을 한 번도 가 보지 못했는데 제작사에서 포스코 관련된 드라마를 하겠다고 하니 과연 이 드라마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 상황을 좀 보러 내려갔다고 합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서 보여 드린 패널에서도 그렇고 지금 보여 드린 패널에도 강철왕은 올해 원래 방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의사를 여쭙어 봤을 때 ‘올해 방영이 아니고 내년 방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아까 제가 보여 드린 패널에도 ‘2012년 12월 드라마 방영 예정’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건대 분명히 올해 방송을 목표로 하시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거액이 들어가는 드라마를 만드시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보기에 모든, 더욱이 드라마 기획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모든 일들을 속전속결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드라마 강철왕을 어떻게든 올해 방영을 위해서 KBS가 편당 단계부터 띄어 주고 올해 편성도 약속하셨습니다. 최종 지시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강철왕 같은 게 기획회의를 거쳐서 넘어오더라

도 올해 안에 방송은 못 나갑니다. 그건 나갈 수가 없어요. 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송이 KBS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면 분명히 걸러질 겁니다, 편성회의에서. 사장으로서 KBS에 그 정도의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드라마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드라마라는 게 준비가 보통 1년 전부터 돼야지 방송이 되는 거지 그냥 몇 달 내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내년에 나갈 것, 연초에 나갈 것들이 지금 이미 촬영이 되고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년 전부터 했다’는 것은 드라마 제작에서는 당연한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치 대선에 참고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배재정 위원** 보충질의 때 다시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감사합니다.

다음, 조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 김인규 사장님, 조금 전에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작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드라마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 우리 역사’ 또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선진 대한민국 역사의 초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드라마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저는 공영방송으로서 충분히 기획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은 ‘이 드라마가 잘 안 될 것 같다’ ‘재미없을 것 같다’ ‘시청자들이 안 볼 거 같다’ 하면 관심 가질 일도 없습니다.

‘소재가 좋고’ ‘기획이 좋고’ ‘잘 될 것 같고’ ‘시청률이 높을 것 같고’ 할 때 정치적으로 이게 어느 쪽으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그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될 거 같다’는 그 전제를 놓고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될 것 같다는 전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으니깐 그것은 참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사장님 말씀처럼 방영 시기가 대선 이

후면, 그 부분만 확실하게 해 주시면 더 이상 논란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드라마국장께서도 외주제작사 기획 검토하실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줌, 그쪽에서 올해 안에 방영을 해서 기획이 올라온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보고가 여기까지 안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드라마가 불과 몇 달 안에 나가는 게 불가능하고요. 또 만약에 제작이 가능하다 그래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KBS 자체 내에서 이 드라마가 자칫 선거 전에 나갔을 때 끼칠 영향 같은 것이 다 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제작이 그 전에도 안 될 거로 보지만 되더라도 그거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는 드라마는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현대인물사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라든지 드라마는 공영방송이면 정말 한번씩 다뤄야 될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죽 한번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되지, 뭐 어느 대통령은 하고 어느 대통령은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죽 다큐멘터리로 나가고, 드라마도 이때의 박태준 강철왕은 정말 포스코의 설립을 그리는 거로 저는 최근에 보고를 받았지 이게 정치인과 관련된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작기획 의도에서 나중에 정확히 다 드러날 겁니다.

○**조해진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KBS의 인력구조가 2직급이 제일 많습니다. 전체 인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타 직급도 그에 맞춰서 줄어들고 있는데 2직급은 오히려 더 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이 있었고 이런 게 인건비 부담을 통해서 KBS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지 않겠는가, 이게 개선방안은 없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우선 KBS의 직급이, 지금 2직급을 고위직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KBS에서는 1직급(부장급)부터 간부 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직급은 차장이라든가 주로 팀장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부 사원이 아니라 허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KBS가 사실은 부장급 이상이 전체 약 5000명 직원 가운데서 242명이기 때문에 약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타사

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MBC 같은 경우는 부장급 이상이 25%이고 SBS도 16%인데 KBS는 불과 5%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지금 KBS가 관리직 1직급·2직급·3직급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2직급을 고위직이라고 보는 것은 KBS의 현실로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데 다른 전체 인원이 지금 줄고 있고 타 직급도 줄고 있는데 2직급이 늘어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것은 어차피 조직에 있다 보면 향아리형으로 됩니다. 중간이 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관리직이 역삼각형이 되면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 향아리형은 조직 형태로서는 괜찮은 형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KBS교향악단이 9월 1일부터 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조해진 위원** 그런데 지금 단원들이 법인으로 전적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저는 전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교향악단 법인화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 재단의 이사들하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KBS 사 측에서 깊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게 어쨌든 뉴스에 보도되고 국민들이 또 관심 가지고 있고 문화예술계 쪽의 관심 사항이기도 하고요. 옛날에 서울시향인가요, 또 아마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인화 취지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 쪽이 너무 관료화되거나 또 타성에 젖거나 변화가 없거나 또 자기 콘텐츠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외부의 신선한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는 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법인화라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분란이나 분규가 커지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사실 교향악단의 법인화 추진을 하려는 것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한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교향악단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법인화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역대 사장들이 10여 년 동안 시도만 한 상태로 죽 넘어왔는데 저는 왜 이번에 꼭 하려고 하나 하면 교향악단의 진짜 고품격, 한번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키우려면 지금과 같이 본사에서 비전문가가 관리하는 형태로 도저히 안 되고 정말 음악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법인화가 되어야지만 되겠다는 뜻에서 정말 현지의 교향악단 단원들을 잘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부 단원들은 이게 자칫 법인화가 되면 처우개선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사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처우에 전혀 조금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이미 노사협의회에서 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는 잘 해 주면서 좀 더 수준 높은 교향악단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 당사자들과 협의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다양한 채널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합의사항은 아니지요?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면 진행할 수 있는 일이지요? 어쨌든 말씀하신 게 쟁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처우를 안정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면서 또 처우라는 것이 완전히 변화가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형태로 가 버리면 예술적 콘텐츠 경쟁력이 정체되는 측면 그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뚫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점심시간이 가까워서 짧게 좀 해 주세요.

○배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외협력실을 통해서 편성의향서와 관련한 공문을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월 4일자도 아니고요 저희한테 말은 6월 12일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확보한 공문은 6월 4일자 공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2011년 3월 31일자 공문, 2011년 9월 22일자 공문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공문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재영 CP가 출장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 출장 관련 서류 부탁드립니다. 출장 가시기 전에 하는 것과 갖다 와

서 내시는 것 있지요. 그 내용 전부 다 저희에게 오후 질의 이전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오늘 오전 질의는 이어서 윤관석 위원님 그리고 박대출 위원까지 하고 점심시간 휴식을 갖겠습니다. 싫어요?

○박대출 위원 오전에 하라고요?

○위원장 한선교 싫으면 말고.

그러면 이상일 위원 하시겠습니까? 염 위원님 안 하세요?

윤 위원님 일단 질의하십시오.

○윤관석 위원 인천 남동읍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사장 김인규입니다’라는 아까 결산 심사 인사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통상적인 것에 비해서 너무 자화자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미안합니다.

○윤관석 위원 여러 가지 잘한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이 바라보는 KBS에 대한 민심과 위상은 좀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계속 민심을 외면하면 여기 인사말에 나온 대로 태풍 불라벤이 북상하는데 민심의 태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2009년에 취임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윤관석 위원 언제가 임기 만료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11월 이십며칠일 것입니다.

○윤관석 위원 몇 달 안 남으셨는데요. 더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3년차 마무리 하시면서 소회는 어떻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나름대로 사장이 되면서, KBS에 제가 한 40년 있었기 때문에 죽 이루고 싶은 것들이 한 10개 정도가 있었는데 한 두어 가지가 지금 안 된 게 있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래서 제가 김인규 사장께서 2009년 취임할 때 취임사를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2009년도에 참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내용은 훨씬 길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양심을 걸고 말합니다. 저는 KBS를 지키려고 왔습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자본 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 지켜지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지키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윤관석 위원** 하지만 끊임없이 정치편향 보도, 편파 보도 이런 것에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받아 왔지요? 사례는 무수히 많은데 제가 시간관계상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편파 보도의 시비는 야당으로부터만 제기되는 게 아닙니다. 여당으로부터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KBS……

○**윤관석 위원** 그렇다면 시민단체로부터 많이 제기를 받았지요. 그리고 ‘공영방송을 위해 투쟁해 온 우리 자랑스러운 KBS 후배들의 눈동자가 이렇게 저를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공사 1기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윤관석 위원** 1기로서 선배로서 자부심을 얘기 하시면서 ‘KBS 기자생활을 해 왔고 그 자부심으로 온 몸을 던졌고 자부심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소회를 물어본 것은 취입사에서 제기했던 아까 열 가지 중에 여덟 가지인데 두 가지가 안 됐다 이런 것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여덟 가지가 다 된 게 아니라 여덟 가지는 어느 정도 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한 두어 가지 정도가 안 됐다……

○**윤관석 위원** 그런데 지금 KBS의 현실은 말씀하셨던 취입사나 또 지금 답변과는 다르게 많은 기자들이 해고 내지 징계되었고 지금도 복직 활동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편파 보도 문제를 제기 하고 있거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많은 기자들이 해고 된 게 없습니다.

○**윤관석 위원** 다 잘못된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기자들이 해고된 게 없어요.

○**윤관석 위원** 징계?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징계는 했지요.

○**윤관석 위원** 그런데 후배 기자들을, 대화로 어려웠습니까? 그렇게 많이 징계가 필요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징계에 대해서 많이 했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마는 KBS가 이번에 일련의 파업을 통해서 징계가 과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윤관석 위원** 답변과 달리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받고 있고 또 작년에는 심지어 KBS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도청 의혹까지 제기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6월 5일 날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윤관석 위원** 부속합의서에 보면 8월 1일까지 대선공정방송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것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대선방송위원회를 지금 하기 위해서 논의가 됐는데, 그때 뭐가 있냐 하면 KBS에는 노조가 2개입니다. KBS 노동조합과 본부노조가 2개 있는데 이때 합의를 한쪽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노동조합하고 같이 해서 10명으로 구성되는데 5 대 3대 2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노조 간에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거지 합의만 되면 오늘이라도……

○**윤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6월 5일 날 했으면 8월 2일까지 구성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 달 이상 지체됐거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관석 위원** 대표께서 협상 주체가 다르다면 그것을 해서 빨리 대선공정방송위원회를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반기에 신입사원 채용이 있었지요. 면접심사 때 노조 파업 문제 이런 것 물어본 것 적절치 못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보고받았고 제가 최종 면접의 한 반 정도는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보통 최종 면접 시간이 한 8분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질문이 한 15개 정도 나가는데 그중에서 질문 중에……

○**윤관석 위원** 물어보는 게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파업에 관해서도 질문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때 시기가 파업을 한 90일간 한 상태 속에서 면접을 하다 보니까 어느 면접위원이……

○**윤관석 위원**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그것도 파업 여부를 미래를 가장해서 하는 게 그게

적절한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뭐 이런 겁니다.

○윤관석 위원 말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윤관석 위원 파업에 대한 참여 여부를 신입사원한테 질의하는 게 적절하다? 정확히 답변하신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말씀드릴게요. 촬영기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강에 사람이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당신은 계속 촬영을 할 거냐 아니면 이것을 팽개치고 구할 거냐 이런 질문과 함께 면접위원이……

○윤관석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하다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입사를 하러 온 사람한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아님 답일 것입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3명 중에 1명을 뽑는 거예요. 인성검사 할 수밖에 없어요.

○윤관석 위원 사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에 이길영 감사님, 나와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께서 2006년도에 선대위원장 맡으셨던 이야기를 했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게 선대위원장으로 찍은 사진이고 여러 군데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맞습니다.

○윤관석 위원 당에 가입하셨었나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저는 당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윤관석 위원 가입하지 않고 선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을 수가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입당도 물론 안 했고 당비를 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윤관석 위원 이것도 확인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답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알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당적을 보유하신 적은 없나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없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선대위원장으로 이게 가능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당원이 아니라도 선대위원장직은 취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윤관석 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방송법 제48조에서는 결격사유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만약에 당원이었으면 결격 사유입니다.

○윤관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사 신청을 하게 됐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감사 임기를 3개월여 남겨두고 이사직 신청한 것은 사실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윤관석 위원 일반적으로 무리한 신청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

○윤관석 위원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으면 이사 신청 철회하실 겁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철회와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관석 위원 그러면 적절치는 않은데 신청은 됐고 선임되면 그냥 하시겠다? 이게 공직자로서 옳은 태도입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이사직……

○윤관석 위원 더군다나 지금 감사께서는 과거에 했던 땡전뉴스 비리감사 이런 의혹, 문제 제기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하시다가 임기도 4개월 남겨 놓고 굳이 이사를 신청하시게 된 경위가 됩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감사 직무를 통해서……

○윤관석 위원 이사장직에 대한 내락을 받으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임기가 남았는데 신청을 했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이사직을 통해서 KBS에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겁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윤관석 위원 지난 8월 2일 날 저희 민주통합당 위원들이 이길영 감사 이사 선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감사 그 뒤의 업무공백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KBS에 피해를 주는 행위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 문제도 법률적으로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윤관석 위원** 아니,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행정적으로 공백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윤관석 위원** 어떻게 없습니까? 선임하는 데 적어도 몇 개월 걸릴 것 아닙니까?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과거에 약 5개월 동안 감사……

○**윤관석 위원** 적절치 않고요. 지금이라도 사퇴하시는 게 올바르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님 하실래요?

오늘 오전 마지막 질의로 해 주십시오.

○**박대출 위원** 경남 진주갑 출신 박대출입니다.

조금 전에 야당 여러 위원님들이 강철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기획됐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확인도 좀 들겠습니다.

원래 강철왕이라는 기획은 2008년 가을에 했던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언론인이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그분에 대해서 평소 존경도 하고, 제가 아는 그 언론인이 이것을 기획한 의도는 그거였다고 그러합니다. 당시에 금융위기가 와 가지고 온 국민이 그런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가 침체해 있고 또 패배의식에 젖어있을 때 그런 불굴의 정신이 필요한, 박태준의 일대기를 그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도전하는 그런 정신을 불어 넣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언론인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박태준 회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런이런 이유로 회장의 일대기를 한번 드라마나 이렇게 다뤄 보고 싶다’ 그래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박태준, 편의상 이렇게 TJ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 직책상. TJ께서 아마 ‘이걸로 인해서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도

추구하지 않는다, 그 기획자나 관련해서’ 그런 조건도 받고 몇 가지 조건을…… 이걸로 인해서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쓰고 ‘좋다. 그러면 취재를 해라’ 했는데 나름 이대환 작가 그리고 여러 드라마 제작사를 찾아다니면서 기획을 하는 것으로 넘겨주고 이대환 작가가 의욕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살아있을 때 그것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오해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게 추진이 좀 늦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1년 만에 되는 걸로 듣고 또 2년 만에 되는 것…… 그래서 저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TJ 일대기가 잘 되고 있냐고 제가 관심도 표명하고 묻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친구의 보안을 지켜 달라는 얘기를 듣고 함구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진행되었다가 작년에 TJ가 별세를 한 뒤에 논의가, 추진과정이 좀 더 진전을 갖게 되고,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KBS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드라마를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하나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은, 그 언론인과 작가 쪽에 ‘이 드라마의 원래 방영시기가 언제쯤으로 되어 있는냐?’ 그러니까 원래 기획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 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합니다, 대선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박태준이라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한번 일대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가치가 없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현대인물사 중에서 충분히 다루어 볼 만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 정치적인 오해만 사지 않는다면 충분히 해 볼 만한 것 아닙니까? ‘제빵왕’도 다루고 일대기 다 다루어지지 않습니까? TJ에 대해서 조명하면서 우리 경제의 기적을 이루어 냈던 하나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의미도 살리고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선거로 논란을 살 수 있다라면 그 시기만 피해 가지고 내년에는 꼭, 선거 끝난 그



다음 날부터라도 좋고 그래서 꼭 방영돼 가지고 좋은 드라마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립니다 싶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박대출 위원 이상입니다.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자료요청 한 게 안 와서……

○위원장 한선교 김인규 사장님 하실 말씀 먼저 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말씀 다 했습니다.

○박대출 위원 시간 남았습니까?

○위원장 한선교 예, 시간 다 쓰신다고……

○박대출 위원 EBS 대해서 한번 여쭙어 보겠습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 수능연계율이 70%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데 고교생 DDoS 공격에 지난해에 한번 무방비로 당하셨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가 지금……

○박대출 위원 회원이 5만 명 정도면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지요? 이것은 일반 500만 명보다 더 위험하고 더 중대한 피해라는 것 아시겠지요, 수험생 하나하나에 대한, 회원이 수험생이라면?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그 뒤에 완벽한 조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수능은 절대 그런 일이 없게끔 조치가 되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데 지금 교재내용에 오류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작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많이 보완해서 금년도에는 1권당 0.4개 정도가 발생해서 사실 거의, 교재 집필해 보신 분이나 책을 써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박대출 위원 지금 1권당 몇 건이라고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0.4건 정도 나옵니다. 작년도에는 좀 많은 오류가 나와서 철저한 개선책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잘못 갖고 있나요? 2012년 8월 2일 나온 자료를 보니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교재 110권 중 33권에서 114권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나와 있는데?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책이 아닌 PDF 자료 같은 것 수시로 올려는 게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책이나 PDF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 같은 겁니다. 0.33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그다음에 거기에 오탈자, 아주 미미한 문제까지를 전부 계산한 건데요, 이해하는 데 전연 지장이 없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류 내용 가운데서 답을 틀리게 표시하거나 풀이 자체를 잘못된 내용이 그중에서 33.3%입니다, 38건이고.

그러면 33.3%, 지금 말씀하시는 66.7%는 별볼 일이 없다, 그렇게 사소하다고 치더라도 33.3%는 대단히 중대한 오류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저희가 좀 더……

○박대출 위원 한 문제만 해도 이렇게 큰 과장을 일으키는 것 아시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70% 정도의 연계율을 가지려면 오류가 0.01%가 되어도 안 될 것이라는 그런 각오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고요. 현재 모든 오류는 인터넷에 전부 공지해 가지고 피해를 주지 않게끔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안이한 생각부터 빨리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알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BS 사장님, EBS 수해 입은 게 제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작년 7월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것 다 제대로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지금 아직도 일부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혹시 또, 큰 태풍이 온다니까 갑자기 생각하는데……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정말 큰 피해 없이 잘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최민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최민희 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오후질의와 관련하여 자료요청한 것들이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금방 도착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도착 금방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선교** 저 보지 말고 저쪽으로 해 주세요.

○**최민희 위원** 제가 말하면 안 들으니까 위원장님이 빨리 주라고 얘기하시라고요.

○**위원장 한선교** 예, 꼭 점심시간 이용해서 자료준비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이어서 민주통합당의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민 위원** 신경민입니다.

잠깐 자료요청 조금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시간 좀 빼 주시지요.

자료요청 관련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요약본만 계속 내시네요. 요약하는 데 시간 걸릴 텐데 원본을 요청하는데 안 갖다 주시고요.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실까봐, 2009년 12월 이길영 감사 선출 관련 이사회 속기록, 2009년 11월 김인규 사장 선출 관련 이사회 속기록, 그리고 차기 KBS 이사 중 KBS 출신 이사 보임, 그리고 안전관리실 특별감사 1·2차 감사보고서 전문입니다. 저한테 이걸 갖다……

그리고 연구용역은 준다고 그랬고, 다른 위원한테는, 이사회 속기록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는 없다고 그랬고 다른 위원에게는 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 있다 없다 이런 철학적 논쟁을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녹음·녹취 속기록 중의 하나든지 아니면 다든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시겠다니까 제가 발언 순서를……

○**위원장 한선교** 아, 그러실래요?

누구? 노웅래 위원?

○**신경민 위원** 예.

○**위원장 한선교** 예, 먼저 하시지요.

○**노웅래 위원** 노웅래 위원입니다.

이길영 감사님이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좀 나오실래요. 부리나케 좀 나오세요, 시간 가니까.

○**위원장 한선교** 와이어리스 마이크 왜 안 합니까?

○**노웅래 위원** 시간 좀 저거 해 주세요.

○**위원장 한선교** 시간 다시 드리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길영 감사님, 이사님이 아니고 감사님으로 불러야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 사표가 수리됐습니다마는 9월 1일자입니다.

○**노웅래 위원** 학교는 그러니까 서울 대신고등학교 나오신 건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예?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노웅래 위원** 그러면 57년부터 60년까지?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노웅래 위원**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맞습니다.

○**노웅래 위원** 맞다 이거지요.

대구상고 홈페이지……

○**위원장 한선교** 마이크 가까이 쓰세요.

○**노웅래 위원** 2006년도 대구상고 홈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무슨 말하는지 아시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대구상고 제가……

○**노웅래 위원** 부회장으로 이길영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2007년도 재경 대구상고 총동창회 명부입니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길영, 여기 또 들어가 있지요? 여기 동창회 명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최근의 총동창회 홈페이지, 됩니까? 'KBS 이사회는 지난 11월 차기 KBS 감사로 이길영 임명했다라고 밝혔다'라고 여기 동창회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학력 사칭이지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가장 유력한 대구상고의 학력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력 사칭입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노웅래 위원 대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국민산업학교 나왔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69년부터 71년까지……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65년도에 입학한 걸로 기억합니다.

○노웅래 위원 예?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65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노웅래 위원 65년도로 기억하신다 이거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지원서에는 69년도서부터 71년 다닌 걸로 쓰신 건 아시지요? 예? 이것도 허위 기재입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아니, 허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기록에 오류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것은……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 학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웅래 위원 오해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노웅래 위원 병역 면제 되셨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면제입니다.

○노웅래 위원 예?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노웅래 위원 병역이 뭐 때문에 면제 되셨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 병역은 제2국민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평족이지요, 평족?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평족입니다.

○노웅래 위원 지원서에도 면제사유가 평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병역법상 평족은 병역면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런데 이제 병역기록부에 볼게요. 병역사항을 우리가 열람해 보니까, 병무청. '질병 또는 심신장애, 평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신장애와 평족 이게 병역사항의 면제사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평족만 지원서에 쓴 이유는 이것은, 모집공고에 이렇게 쓴 것은 혹시 심신장애가 이사 선임에 지장이 될까 봐 이렇게 썼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전부 허위 기재입니다. 병역도 허위 기재……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 병역관계 제가 설명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노웅래 위원 이게 전부 허위 기재를 하셨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허위 기재가 아닙니다.

○노웅래 위원 허위 기재……

이렇게 허위 기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청서에, 지원서에……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명백히 말씀드리면 허위 기재가 아닙니다.

○노웅래 위원 잠깐만 주세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노웅래 위원 이 지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라고……

방통위, 누가 나오셨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부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저희가……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가부간에만 얘기하세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뭘 확인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읽어 드렸는데.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하여튼 말씀하시지요.

○노웅래 위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

어요.

그러면 허위 기재, 학력서부터 병역 다 허위 기재, 본인한테 불리한 부분은 다 빼고 기재했습니다. 더군다나 모 정당, 한나라당 인수위원장 그리고 선거위원장 그리고 부정 청탁 관련해서 한 부분 이런 부분은 다 여기 기록에 빠졌습니다.

이 부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제가……

○**노웅래** 위원 조치하세요. 규정대로 조치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알아보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뭘 알아봐요?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지.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저……

○**노웅래** 위원 잠깐만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기재가 허위 사실이 아님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노웅래** 위원 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드릴 테니까……

여기 KBS 내부 감사 보면 2010년부터 감사 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2009년 12월부터…… 12월 17일입니다.

○**노웅래** 위원 2012년 하반기에 감사 건수가 0건, 빵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뭔가 콩밭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네요. 다른 데 마음이 가 계신 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업무를 하시면서 감사 하나도 안 했다, 이를테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 안 하신 거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2010년도 감사 건수가 없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노웅래** 위원 2012년 하반기 감사 하신 것 없습니다. 0건입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12년 하반기?

○**노웅래** 위원 감사가, 기간이 12월까지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만두셨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저희가 지금 일상감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감사가 12월까지 업무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런데 그만두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사가 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백, 3개월 공백이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노웅래** 위원 이게 그냥 모집하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기간 거쳐야 되잖아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한두 달만 감사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누가 있을 거고……

그리고 KBS 출신 아니세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KBS 출신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감사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예?

공영방송 경영 투명성 담보하는 감사의 역할 방기하고, 더군다나 KBS 출신인데 KBS 다니는 사람이 다 후배 아니세요? 가족 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 역할 그냥 발로 차고 또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이사 하신다, 이것은 이사로서의 자격 없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저는 방기한 일은 없습니다.

○**노웅래** 위원 방기 안 하면 감사업무 누가 할 겁니까, 그 기간 동안?

감사업무 누가 할 수 있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감사직무규정에 의해서 행정적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어떻게 조치했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감사실장이 직무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예?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도중에 감사……

○**노웅래** 위원 어떻게 잘못된 일을 계속 변명을 하십니까? 예?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지금 위원님께서 방기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웅래** 위원 제가 국민의 대표기 때문에 욕박지르는 겁니까? 예?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KBS 강철왕 관련해서 아까 사장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대선기간 동안 이것은 방송 안 하는 걸로, 편성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불가능합니다, 그건.

○노웅래 위원 예?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불가능해요. 방송이 불가능합니다.

○노웅래 위원 이 드라마 시놉시스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예?

박태준 회장 일대기 좀 다루면서 상당 부분 박정희 대통령 미화하고 있습니다. 5·16을……

○위원장 한선교 1분 더 하세요.

○노웅래 위원 5·16을 혁명이라고 하고 혁명을 성공시킨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콘텐츠본부장, 이것을 꼭 필요한 작품으로 편성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까? KBS 출신인데?

고영탁 드라마국장,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전 예?

KBS에서 방송한다는 것, 이 강철왕 방송한다는 것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서는 갑자기 이게 추진하는 걸로 됐어요. 콘텐츠본부장의 외압인지……

이건 밖의 외압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한 입 갖고 두 말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것 사장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대통령 주례방송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선거 때 안 하시겠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대통령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그런 오해를 살 그런 방송 하면 안 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웅래 위원 주례방송, 대통령 주례방송?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노웅래 위원 이걸 유권해석 받으셨지요, 선관위의?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선관위에서 지난번에 그런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노웅래 위원 2008년 유권해석 받으셨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노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고맙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이길영 감사께.

마이크 있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학력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시려다가 못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대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대신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구상고에는 제 친구들도 많고 후배들도 있습니다,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그러나 대구상고에 제 학적은 없습니다. 제가 대구방송국 근무할 때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명예졸업장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공식 학력에 있는 것은 대구상고라고는 없습니다.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구요.

그다음에 국민산업학교는 제가 65년도에 2년간 다니다가 2년 휴학을 했습니다. 국민산업학교는 학사학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대학인데 지금은 국민대학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3년도에 중앙대학교 신방대학원을 갈 때 이때 제 학력관계는 검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감사로 올 때나 이번 이사 원서에도 제 학력관계나 경력관계는 정말로 손톱만큼도 거짓이 있거나 오류가 없는 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혹시 필요하시면 모든 자료를 증서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질의도 있었으니까 방통위에서도, 지금 본인도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학력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다음에 김기현 위원님……

조해진 감사 의사진행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마침 위원장님께서 이길영 감사께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가지고 잘 해결이 됐습니다. 마는 회의 진행하실 때 오늘 결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차례 중요한 쟁점을 가지고 다룰 회의가 많이 있는데 참석하신 분이냐 국감 때 증인·참고인의 경우에도 가급적 질문에 대해서, 특히 논쟁 가능성이 많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도록……. 답변 기회가 안 주어지면 우리도 다 그 쟁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답변을 못 하시면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시인한 건지 부인한 건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뭘 물어야 될지도 모르고 똑같은 질문을 또 반복해서 시간 낭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마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온 것 같습니다.

김기현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김기현 위원** 울산 남구울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과 간사 조해진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질의하고 답변을 합쳐 가지고 시간을 정하다 보니까 답변할 시간 없이 막 질문만 퍼부은 다음에 ‘나중에 기회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시간 다 갔기 때문에 끝입니다’ 그런 다음에 답변을 안 들었는데 질문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래 가지고 바깥에서 언론에 보도하게 하는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는 사례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면서 이게 좀 충실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시간을 몇 분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정해 주시는 게……. 질의·답변을 포함해서 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위원장님께서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하실 때 잘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길영 감사님 아직, 사직했지만 지금은 감사이시네요. 그렇지요, 9월 1일자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아까 병역 관련해 가지고 평족, 심신장애 그런 것을 허위 기재했냐고 그리고, 질문에 답변할 시간이 없어서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2국민역이라는 게, 1961년도에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병역법상으로 심신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발이 평발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마이크 볼륨 좀 올려 주세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발이 평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평발이기 때문에 61년도에 심검을 한 번 받고 지금까지 병역관계는 신경 쓰지 않고 지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장애에 의한 병역면제는 저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니까 병역면제된 사유는……. 국민역으로 편입됐네요. 그렇지요, 제2국민역으로?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제 발이 평발입니다.

○**김기현 위원** 평족이라고 하는 사유가 명확하다 이거네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니까 숨기고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 그동안 TBC 사장도 하셨던데 심신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랬던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만약에 제가 그런 장애가 있었으면 기자도 못 했을 것이고 KBS에서 보도국장이나 보도본부장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2010년도 1월에 감사가 됐을 때도 전국언론노조하고 KBS노조지부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한 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랬는데 그 행정소송은 이것은 소송감이 아니다 그래서 각하가 되었다면서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 당시에 제 임명을 취소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저희 제2노조위원장 엄경철 씨와 저희 이사로 있는 김영호 씨입니다.

○**김기현 위원** 그 소송이 각하가 되었던 거라고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각하, 기각이 됐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게 그러니까 감사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법원 판결이 난 거네요?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좋습니다. 앉으시고요.

EBS 사장님, 입시제도 관련해 가지고 EBS가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요즘 한창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고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대학 입시 관련입니다.

입시설명회, 체육관 설명회 그냥 막 빼곡하게 차고 수천 명씩 앉아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렇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김기현 위원 이런 문제를 체육관 설명회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지금 전형방법이 무려 3200여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대학별로 전형하는 방식들이요.

저도 고3 학부모가 되어 본 적이 몇 차례 있어서 도대체 어느 학교에 어떤 방식으로 입시를 응해야 되는지 자체를 통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 설명회 장사진을 이루고 있고, 그래도 잠시 한두어 시간 설명 듣는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입시에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지금 제한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좋은, 자기에 맞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의 낭비, 인재의 적정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들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EBS에서도 나름대로 순회하면서 설명회도 실시도 하고 홈페이지 그런 자료들도 게시를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김기현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해 봐야 20억 얼마 정도밖에 안 되지요, 예산이? 그렇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김기현 위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예산도 확보하고 방법도 조금 아날로그 방식을 벗어나서 디지털 방식으로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좋은 지적이십

니다.

현재 2012년도 EBS 입시설명회 개최건수는 총 272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관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체육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나 지역은 가능한 한 지역 현안을 찾아가서 설명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이렇게 입시가 굉장히 다양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EBS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설명회도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 내용은 가능하면 저희 웹사이트에 올려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볼 수 있게끔……

○김기현 위원 동영상으로 보게 하고 하시도록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다 하시는 줄 아는데, 제가 직접 학부모가 되어 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참 접근하기 어려워서 EBS의 설립취지하고 맞추어 보면 학생들에게 이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보다 진보된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혜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지역순회 입시설명회 이게 지자체 같은 데서 요청이 있어야 지역으로 간다면서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실질적으로 안전 문제가 있고 장소 확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 확보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기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거든요.

제가 지역이 울산이어서 찾아보니까 울산은 2011년, 2012년, 한 번도 지역설명회를 갖지 않으셨더라고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김기현 위원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냥 단순하게 설명회 요청에 의존하는 형태로 되면 편중 현상을 보이는 측면들이 있어서…… 장소 확보야 EBS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쪽에다가 교섭을 해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역편중현상도 해소하는 방법도 아울러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김기현 위원님은 고3 안 된 자녀가 아직도 있지요?

○**김기현 위원** 또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러니까, 4명의 자녀를 두신 분이 있으니까……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석기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이석기 위원** 예.

○**위원장 한선교** 질의하시지요.

○**이석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길영 감사님……

○**위원장 한선교** 아닌데…… 먼저 하시고 신경민 위원 다음에 하시지요. 내가 착각을 좀 했네요.

○**신경민 위원** 예.

○**이석기 위원** 이길영 감사님, KBS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설립목적에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정착, 2012년 방송 기본방향에는 흔들림 없는 공정성 그리고 2012년 경영과제와 방송지표에는 철저한 공적책무 강화, 특히 총선·대선에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방송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BS 이사회는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현실은 그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과 대선 편파 보도에 능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조작한 전력과 이를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 사실을 은폐·축소한 전력이 있는 이길영 감사가 KBS 이사회 이사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겠습니다.

이길영 감사의 전력은 KBS의 위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사진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석기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겠습니다.

공직자의 책임윤리 중의 가장 중요한 게 공정

성·청렴성이라고 봐지는데 이길영 감사는 2007년 경북한방산업진흥원 원장 재직 시 친구의 청탁을 받고 그 아들의 점수를 조작하여 부정 채용을 하였는데 감사원에 적발되고 인사상 조치 처분을 받아, 당시 김관용 도지사였지요,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 부분은 제가 서류를 조작했다는……

○**이석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사건은 맞습니다만 제가 조작하거나……

○**이석기 위원**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것은 맞습니다.

○**이석기 위원** 맞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그러나 제가 조작을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석기 위원** 아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아직 묻지 않았습시다.

그러니까 친구의 청탁을 받고 이게 감사원에 적발된 겁니다. 지금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감사원의 적발을 받아서 거기에서 인사 조치를 받아서 감봉 처분을 받았어요. 받았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감봉도 제가 자원해서 됐습니다.

○**이석기 위원** 아니, 제가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묻는 거예요. 감봉 처리 받았잖아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오해가 있는데 감사원으로부터……

○**이석기 위원** 3개월 감봉 징계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자원해서 받았 습니다.

○**이석기 위원** 자원하든 타천이든 어쨌든 당시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의해서 징계 받았잖아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이석기 위원** 아니, 이게 공직자로서 용서할 수 없는 공직윤리에 심각한 흠결사항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설명이 좀 필요한데 제가 설명할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석기 위원** 아니, 단순하게, 윤리강령에 이게 맞는 거예요? 인사청탁 비리하는 게 정당한 겁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기관 경고로 받았습시다.



○**이석기 위원** 그러니까 경고 받은 분이 공직윤리강령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잘못된 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석기 위원** 또 한 가지……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서류를 조작하거나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석기 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이길영 감사가 KBS 이사가 되는 게 옳지 않다 해서 KBS 감사실 직원들 20여 명이 이길영 후보자의 감사 임명을 거부한다며 집단적으로 반발한 KBS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석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기억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석기 위원** 그런데 정당한 요구를 당시 방통위에서 밀어붙였는데 당시 MB 특보이던 김인규 사장과 같이 등장해서 이길영 감사 임기 시작 첫날에, 놀라운 것은 감사실장이 전보되고 곧이어 이길영 감사에 반대했던 감사실 직원 대부분이 신속하게 전보 조치되는 보복성 숙청 인사가 전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숙청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석기 위원** 그러면 어떤 인사입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3년 또는 4년, 5년 장기 근속자에게 순환 원칙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석기 위원** 알겠어요. 지금 그것은 궤변이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KBS 역사상 감사 임명 이후에 20여 명의 감사실 직원이 전원 인사 이동한 것은 처음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논란이 많이 되는데 이길영 감사 초기에 권한을 남용하여 이른바 KBS 안전관리팀 비리 사건 은폐·축소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당시 감사실은 2009년 9월부터, 이것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알고 있습니다.

○**이석기 위원** 그런데 실지 내용을 보면 화염병 투척 자작극을 비롯해서 채용 비리, 금품 상납

사건, 심각한 범죄 사실인데 그런데 당시에 감사실에서 처분요구서를, 파면과 고발을 요구하는 처분요구서가 당시 인사운영팀과 법무팀에 요청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해서, 이길영 감사가 선임된 이후에는 숨방망이 처벌을 하셨는데 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감사로 부임하기 전에 그 사건은 1차 감사가 있었습니다, 전임 감사에서. 그런데 전임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으리 만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석기 위원** 아니, 이것에 대한 감사……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래서 재감사를 한 겁니다.

○**이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나중에 속기록을 좀 더 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길영 감사가 이사로 다시 재직하는 자체가 도덕적, 청렴성·공영성 문제를 떠나서 비뚤어진 언론관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고민과 문제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KBS는 독재의 암울한 현실이 반복되는 수난과 갈등의 시대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였던 사람이 사장으로 취임하더니 이제는 일반 국민의 도덕적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군부독재를 찬양한 이른바 맹전뉴스를 만든 장본인이 공영방송 KBS 이사가 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실지 언론 동료들은 얻어맞고 잘리고 감옥에 끌려갈 때 이길영 감사는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군부독재를 찬양한 맹전뉴스를 만든 장본인이 감히 공영방송 이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방송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영령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우리 국민에 대한 엄중한 도전입니다. 석고대죄 해도 부족한 판에 KBS를 MB 정권의 간증방송을 시킨 김인규 사장 때문에 KBS 파업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길영 감사가 KBS 이사로 온다면 더 큰 일이, 언론에 재앙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KBS를 아낀다면 후배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구악의 상징, 군사 독재에 부역한, 군사정권과 결탁한 언론인 이길영 감사를 이 자리에서 마주한 것 자체가 참담한 심정입니다. 평생 권력의 양지만을 쫓았다면 생애 말년에 지난 과오를

참회하고 반성하셔야 하지 않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수치를 안다면, 한 조각의 양심이 있다면 자리에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저널리스트로서 자신의 양심에 대고 정말 겸허하게 반성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퇴할 의향 있습니까? 사퇴하셔야 됩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권력이나 정권에 영합한 적이 없습니다.

○**이석기 위원** 권력과 정권에……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언론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1분 더 쓰세요.

○**이석기 위원** 여보세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이석기 위원** 이게 추악한 사실인데 당시 노동조합에서도 폭로한, 89년에 국정감사에서 나온 야당 폭로 자료예요. 당시 문공위하고, 여기 보면 이길영 감사 얘기가 나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고자’, 이른바 언론 통제하는 것이겠지요, 문공위에서. KBS 보도국장 이길영, 부국장 이대섭 그 내용, ‘신문 보도의 편파성을 느끼고 방송 보도에 대한 균형을 찾는 데 의견을 모음, 김만철 회견 등……’ 이것 잘 아시잖아요, 이 당시에? 이게 대표적인 언론 날조, 군사 독재……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 대목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석기 위원** 뭘 어떻게 성격이 달라요, 이게 명백히 드러난 사실인데?

저는 이 사태만 보더라도 도저히, 지금 역사가 태어나는…… 기가 막힌 일이 이 자리에서 생겼다고 봅니다. 어떻게 역사가 전진하는 게, 이 땅의 민주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수많은 언론인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내용 중에 말씀하시려다가 안 된 게 30초만 드릴 테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이석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과거 KBS 역사에 대해

서 일방적 평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석기 위원** 뭘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한선교** KBS 관계자가 말씀하셔도 만 위원들도 들으시고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 재차 질의시간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천 간사께 아직 말씀을 안 드렸나요? 여기 보도본부장 아직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보도본부장 이화섭** 예.

○**위원장 한선교** 재난방송 이것 때문에, 아직 못 들으셨나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최재천 위원** 예.

○**위원장 한선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가서 같이 준비를 하시고 일을 하십시오.

○**전병헌 위원**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위원장 한선교** 태풍……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태풍이 지금 뉴스 속보 방송이 1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러니까요. 가서 총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양당 간사께서 이해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창식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신경민 위원님, 염동열 위원님 순서로, 바꾸셨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위원님!

○**박창식 위원** 박창식입니다.

먼저 사장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요즘 경제민주화 하라는 얘기를 야당이나 여당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박창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KBS 자체 내에서 공영방송, 시청률 경쟁, 국민의 어떤 공익에 우선해야 되는 방송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KBS가 대표적인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창식 위원** 지금 현재 외주비율이 드라마·교양·예능이 한 몇 프로 정도 최근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외주가 1TV하고 2TV가 좀 다릅니다, 외주의 비율이. 2TV가 외주가 많고 1TV가 적은 편인데 구체적인 수치는 1TV가 24%고 2TV가 40% 정도 됩니다.

○**박창식 위원** 그런데 제가 경제 민주화라는 것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채널을 빛내고 있는 외주제작사들이 방송사에 있는 직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처우 개선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박창식 위원** 그런 어떤 부분이……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외주제작사 나름대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박창식 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그쪽에서도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진다면 채널을 빛내게 해 주는 외주사들이 최소한 방송사 직원과 동등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70% 정도의 그런 대우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는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외주제작사가 건강해져야지만 결국은 방송환경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KBS에서는 외주제작사하고의 여러 가지…… 외주제작사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논의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외주제작사 중에서도 후발 주자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후발 주자들의 임금문제는 아마 경영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래서 어려운 게 보니까 한두가지는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내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드라마어워즈나 그다음에 KBS 방송사의 연말 시상식 때 보게 되면 외주가 킬러콘텐츠 드라마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거의 지금 보면 방송 3사가 외주제작사가 근 한 80%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연말 시상식 때 보면 외주제작사 프로듀서나 대표나 아니면 거기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조명·동시녹음 스태프들에게 어떤 상을 줄 생각은 없으신지, 항상 보면 내부 잔치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KBS가 보통 두 달에 한 번씩 월례조회 때 외주제작사에, KBS에 기여한 데가 많은 데는 시상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와 달리 외주제작사를 단순한 갑과 을의 거래가 아니고 정말 KBS하고 같이 협력해야 되는 파트너로 인식이 돼 있습니다, 지금.

○**박창식 위원** 저도 지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갑과 을 관계가 많이 좋아졌

다는 것은 저도 인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갑과 을의 계약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통 계약서라는 게 갑과 을이 서로 조정이 가능해야 촬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제작비가 3억이었다, 3억이면 방송사의 편성권한이나 기술과 모든 인프라, 미술, 이런 것들을 댔을 때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 5000이고 나머지는 협찬을 외주사가 1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분배의 원칙은 뭐로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외주제작사에서 1억 5000을 댔 것이나 다름없고 방송사도 1억 5000을 댔다고 하면 권리·저작권 기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지금 사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외주제작사가 갖고 오는 드라마의 저작권은 KBS가 거의 100% 소유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외주제작사가 저작권 확보를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는 서로 양자가, KBS나 외주제작사가 서로 나누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런 인식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거의 비율로 잘, 배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거기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장님 말씀 중에 일부는 일리가 있지만 거의 한 60% 정도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KBS만큼은 그게 타 방송보다 먼저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제작비를 갑과 을이 결정했습니다. 결정했는데 시간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한 팀만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B팀, C팀, 때로는 3개 팀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을이 100% 부담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거기까지는 사장이 잘 파악이 안 됩니다.

○**박창식 위원** 제가 경제 민주화가 안 됐다는 게 그런 것이지요, 바로. 예를 들면 B팀, C팀까지 두 팀으로 가동하게 되면 그 비용을 고스란히 을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어떤 부분도 동등하게 갑과 을이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저는 오히려 다른 쪽도 아닌 KBS가 우선 실시하는 게 오히려 내부적으로 민주화하는 데 앞장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지금 되질 않고 있다는 것을 계약서를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제가 자주는 아닙니다. 마는 외주제작사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번 주에 또 가질 예정에 있는데, 가져서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모든 외주제작사와의 관계가 투명해지고 어떤 면에서 평등호혜 쪽으로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여지는 많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KBS 공영방송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다른 하나 이번에는, 제작비검증자문위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박창식 위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와 외주사와 같이 함께 계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접광고에 대한 제작비검증자문위원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방통위 부위원장님한테 여쭙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KBS 측에서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제출을 요청하신 적이 있으신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하여튼 그런 서류가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바로 드릴게요.

○**박창식 위원** 이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작비검증위원회가, 간접광고가 사실은 작년 말인가 올 초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올 초에 문화부하고 대중 얘기가 돼 가지고 됐지요.

○**박창식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위협스러운 게 뭐냐 하면 방송사 인하우스 프로그램이었을 경우에 제작비가 2억이었을 경우에 그것은 인하우스 프로그램에 자막 협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검증위원회가 검증을 제대로 못하면 값이 원하는 대로 인하우스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외주의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인하우스 프로그램이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증위원회에 대한 자문이 필요

하다 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저도 지금 그 서류가 있다는 것을 처음 듣는데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도 드리고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창식 위원께서 방송에 오랫동안 종사하셔서 가지고 많은 세세한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실제 외주제작사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니깐 잘 들어주시고, 드라마 제작은 그래도 좀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소 교양 프로그램하고 그런 제작사들에 대한 배려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위원** 자료 제출 요청할게요.

○**위원장 한선교** 자료 요구하시지요.

○**전병헌 위원** 전병헌입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다큐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에 ‘슈퍼피쉬’가 제가 보니까 거의 다큐프로그를 예술작품 수준 정도로 높여놓은 것 같아요. ‘차마고도’와 ‘누들로드’에 이어서 ‘슈퍼피쉬’가 대단히 감명 깊고 상당한 파급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차마고도’와 ‘누들로드’와 ‘슈퍼피쉬’ 제작과 관련한 제작자들, 역대 PD들이 죽 현장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신상명세를 쫓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열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만 EBS 지식채널e도 그것도 새로운 다큐의 지평을 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매우 유익하고도 정말 좋은 프로라고 생각하는데 지식채널을 처음부터 제작에 참여한 PD부터 현재까지 해서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고맙습니다.

다음 도종환 위원님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도종환 위원** 자료제출 요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먼저 하세요.

○**도종환 위원** 여섯 가지 자료제출 요구 부탁드립니다.

이길영 감사님이 자료 제출하시겠다, 거짓 없다고 하셨으니깐 이길영 감사의 KBS 입사 당시 작성했던 인사기록카드 사본 한 부, 97년·81년

회사 차원에서 진행됐던 호봉 재산정 당시 제출했던 경력서 사본 한 부 그다음에 두 번째 안전관리실의 감사 관련 전임 감사가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 이길영 감사가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한 부, 요약본이 아닌 원본에 대한 사본입니다.

세 번째 이길영 감사 취임 이후 일반감사·특별감사 내역, 네 번째 런던올림픽 방송편성비율, 런던장애인올림픽 방송편성안, 베이징올림픽 방송편성비율, 베이징장애인올림픽 방송편성비율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소송현황 및 결과, 소송비용 포함입니다.

여섯 번째 2008년 이후 징계자 현황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잠깐 신경민 위원 자료제출 요구 듣고 하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아침부터 계속 얘기했던 자료 관련으로 지금 말장난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장과 감사 2009년도 선출에 관한 속기록이나 녹취록이나 하여튼 모든 것을 달라고 계속해서 저희 방과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출이라 함은 면접 플러스 그 뒤이은 결정 회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말장난을 해서 면접은 있느냐 없느냐, 녹취 자료가 없느냐 있느냐 그러는데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는데 선출에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선출에 관련된 과정 모든 것, 면접 플러스 결정회의 플러스 알파를 다 달라는 것이고 속기록이 있으면 속기록, 속기록이 만약에 없다면 녹취와 녹음 이것을 달라는 것인데 말장난을 해서 지금 있느냐 없느냐, 있는데 드릴 수 없느냐니 말장난하지 마시고 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말장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빨리 KBS와 KBS 이사회가 결정을 해서 알려주시지요.

○배재정 위원 저도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하세요.

○배재정 위원 외주제작 드라마 1편에 대해서 편성의향서를 두 차례 이상 공문으로 보낸 사례가 있는지, 있으시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또한 외주제작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1, 2년 이전부터 편성의향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지, 역시 있

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선교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 도종환입니다.

사장님, 지금 초대형 태풍 ‘볼라벤’이 북상하면서 많이 불안해하고 많은 피해가 발생할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2시부터 재난방송 속보방송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물론 어저께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에서 제가 아까 점심 시간에 들어가서 다시 오늘 12시부터 된 상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종환 위원 재난방송이 그러면 자막으로 내보내는 방식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자막으로 나가는 것과 별도로 특보뉴스를 내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자막도 내보내고 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같이 나갑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디지털 전환 안내와 관련해서 자막고지도 또 나가고 있잖아요, 아직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은 가구들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런 형태로 내보내잖아요. 화면 절반 정도 이렇게 ‘아날로그 TV 앞으로 시청이 어려우니까 신청하세요’ 하는 것 내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재난방송 자막이 1시간에 10분씩 나가는 이 자막고지 위에 또 이렇게 나갑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저것이 아날로그 가상종료 고지 자막인 모양인데 그것이……

○도종환 위원 지금 굉장히 태풍이 초대형 태풍이라서……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것을 제가……

○도종환 위원 이 위에다가 또 내보내는 것은 아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아날로그 자막방송이 하루 종일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종환 위원 1시간에 10분씩 나갑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 부분은……

○한국방송공사편성센터장 서재원 예, 제가……

○도종환 위원 지금 아직 디지털로 전환하지 못한 가구들이 대개 오지나 벽지 소외계층으로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어려운 분들. 말하자면 태풍 피해를 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구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사장님, 지금 이 태풍이 오고 있는 이 기간만이라도 이런 자막 고지 방송은 좀 취소를 해서 더 긴급한 상황을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날로그 종료 자막보다는 태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즉각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장 진행팀들은 그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겠습니까마는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편성센터장 서재원 편성센터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 종료 자막은 하루에 한 여덟 번 정도……

○위원장 한선교 일어나세요.

어디 계시나요?

○한국방송공사편성센터장 서재원 편성센터장 서재원입니다.

아날로그 종료 자막은 하루에 8회 정도 순간적으로 방송을 하고요, 크기는 50% 정도로 나가고 지상파 방송 4사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회하고 연계해서.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태풍이 오는 기간만이라도……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편성센터장 서재원 태풍이 올 때는, 슈퍼는 하단에 슈퍼 자막으로 흘러가고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뉴스로 정보를 제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날로그 종료방송 멘트 때문에 우리 재난속보 스크롤 자막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아까 업무현황보고 결산보고 하실 때 한국방송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에 대해서 임무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소개를 하실 때 맨 앞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이것이 KBS의 제일 중요한 임무라고 말씀하시면서 16쪽에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한 일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공영성 평가지표 연구개발, KBS 저널리즘 온라인 웹사이트 구축, 그다음에 KBS 뉴스 옴부즈맨 운영 이런 것을 소개하시면서 대외조사 결과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사 조사 연속 1위, 광고주협회 조사 연속 1위, 영향력이

가장 높은 매체 1위로 시사저널을 포함해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영향력은 다 알고 있는데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공정성의 담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KBS는 한 달에 한 번씩 시청자위원회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서 뉴스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통해서 뉴스에 대해서 공정성 여부를 낱낱이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 간에 노사공방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세 가지 장치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데 1주일 전에, 지난 20일 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현업기자 667명을 대상으로 한 ‘2012년 기자의식 조사’를 보니까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대답한 것이 47.8%이고요, ‘공정하다’고 현업기자들이 대답한 것이 19.2%로 나왔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도종환 위원 이런 중에서 특히 지상파 방송 3사 기자들의 평가가 가장 낮았는데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보도 종사자 자신이 느끼는 그런 공정성에 대해서는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젊은 저널리스트들 기자들은 과거의 저널리스트와는 달라서 자기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저널리스트가 자기의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것이 객관적 저널리즘에 합당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리고요, 이렇게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질문에서 ‘정부와 정치권력 때문이다’라는 대답이 65.2%를 차지했고 특히 지상파 방송 3사 기자들은 83.9%가 ‘정부와 정치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응답을 했어요.

특히 2007년에는 이것이 23.3%였다가 2009년에는 56%로 올라오더니 올해에는 65.2%까지 왔어요. 왜 이렇게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저도 그런 어떤 정

치권력의 압력이라고 생각하는 현업기자들한테 만나서 과연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이런 것을 직접 간담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묻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데스크, 그러니까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뜻을 정치권력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정치권력이 개입을 해서 어떤 보도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종환 위원** 잠깐만, 그러면 이번에 39기 신입사원 13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것이 'KBS가 공정하고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대답에서 '그렇다'고 한 사람이 34.3%이고요, '그렇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고 대답한 수가 58%, 그러니 10명 중 6명이 공정하지 않다고 대답한 것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러니까 그 설문 자체가 제가 아직 정확한 것을 못 보았습니다마는 저도 가서 연수원에서 39기와 1시간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39기 신입사원들의 정말 KBS에 대한 평가는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위원** 혹시 이것이 현 정부의 언론특보를 지냈던 사장님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책임이 있다고 물으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반론을 펴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KBS 39기생들하고 정확한 여론조사를 한다면 그런 결과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위원** 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편파방송 등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어서'라고 답한 사람이 그 중에 43.5%였거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런데 그 39기가 사실 뽑은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사실 KBS 내 연수원에서 수습을 받다가 며칠 전에 끝난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KBS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어떤 의도로 설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설문 자체가, 설문 자체의 어떤 신뢰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종환 위원**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공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선교** 나중에 또 질의하시지요.

김을동 위원님 다음에 신경민 위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을동 위원님!

○**김을동 위원** KBS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독도 영유권 문제가 아주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공영방송인 KBS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국내외에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 위성을 통해서 독도 영상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독도 파노라마 영상 모니터 설치 보급 사업 이것 하시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김을동 위원** 매우 의미 있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현재 확대 보급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이것이 2010년부터 HD카메라를 통해서 영상과 음향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국회 로턴더 홀에도 있습니다마는……

○**김을동 위원** 예, 거기에서 보았습니다, 항상.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지금 공개적으로 기관별로 하는 것이 한 30여 군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환은행에서 외환은행 전 지점에 그것을 지금 서비스하는 것이 있고 한편으로는 KBS가 지금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다가 이 영상을 서비스하는데 과거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성을 통해서 넘어갈 때는 셋톱박스라든가 파라볼라가 필요했는데 이제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TV 모니터만 있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보급 확대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김을동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홍보 같은 것을 그 영상만 아니고 거기다가 자막이라든가 다른 콘텐츠를 가미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 할 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외환은행은 독도 영상 서비스와 함께 외환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점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러합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지요. 저희들은 독도 영상만 서비스하는 것이고……

○**김을동 위원** 영상만 하고……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거기다가 이제……

○**김을동 위원** 그러면 KBS에서 영상 서비스와 동시에 독도의 홍보에 관한 그런 자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저희들은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서 보면 독도 앱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독도의 이 시간 현재 라이브 모습과 함께 독도에 관한 이슈가 현재 라이브 모습과 함께 독도에 관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안의 독도’ 이런 제목하에 스마트폰에 독도 라이브 영상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보급 사업에 좀 더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시의성이 아주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범국민적 차원의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KBS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더욱더 홍보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김을동 위원** 그리고 KBS 당기순이익이 2011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방송 제작비가 오히려 700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중편 출범과 종합편성채널 그것 도입되면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투자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주된 수입원인 광고수입 증가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현재 시청료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지금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대폭 감소하고 있는데 인건비성 경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해서 7.4% 증가했는데요, 이러다가는 KBS에서 앞으로 큰 문제점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작년 결산에서 인건비가 7%가 넘어간 것은 사실은 2010년 임금협상 때 임금을 동결하면서 그때 못 한 분을 소급해서 다음 해로 넘겼던 것이 그것이 2011년에 2차 연도가 합쳐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래도, 그거 압니다. 이 기본급 인상분이, 2년 동안 기본급 인상분이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년 대비 7.4% 경비 증가율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KBS 인건비 관련해서 임금협상이 매년 연말에 벌어집니다마는 임금협상 때문에 지난해에도 우리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강행을 할 정도로 노사 간에 상당히 시각차가 큼니다.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2012년 임금만 하더라도 예산상에는 2%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조합에서는 10%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임금협상에 있어서 상당히 난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하여튼 수신료를 재원의 일부로 삼고 있는 공영방송으로서 상업방송과는 임금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또 한 가지 좀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요, 지난 5월에 시청자본부 산하 KBS교향악단을 31년 만에 독립 법인으로 분리시키는 재단법인화 결정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김을동 위원** 현재 9월 1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기존 KBS교향악단 단원 대부분이 재단법인으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 동의서를 거부하고 있어서 지금 출범부터 아주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지금 교향악단 법인화에 따라서 단원들의 전적 동의서 부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몇 명이나 전적 동의서 썼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법인화추진단과 함께 재단법인의 이사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 KBS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지금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여튼 이 교향악단 단원들이 우리 KBS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만큼 처우에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향악단이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교향악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을동 위원** 그런데 전적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데에다가 전환 배치해서 고용승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같은 이런 문화예술인들은요, 음악 연주자들에게 다른 직무를 줘서 이렇게 배치하겠다는 거는 스스로 나가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음악계에서도 좀 우려도 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게 노사 합의를 통해서 좀 더 인권도 보장하고 좋은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김을동 위원** 문화예술단체들의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면, ‘공익성과 전문성이 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저는 분명한 것은 공익성이나 예술성을 더 한층 높이기 위해서 법 인화로 가는 거다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을동 위원** 물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노사의 협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신경민 위원 질의하시지요.

○**신경민 위원** 신경민입니다.

지금 KBS월드 하고 계시잖아요, 김 사장님?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신경민 위원** 제가 최근에 외국을 갔다 왔는데, 이 KBS월드의 인기가 현지인과 교민 사이에 높아지는데…… 자막 번역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신경민 위원** 자막 번역의 질이 너무 낮아서 불만스럽다, 그중에 바이링구얼(bilingual)을 하는 2세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 번역의 질을 좀 높여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KBS월드를 KBS월드, 인터내셔널같이 영어로만 하는 두 가지 채널을 지금 만들어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경민 위원** 그거는 또 다른 문제…… 그거는 뭐 아리랑TV하고 또 겹치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할 기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신경민 위원** 이길영 감사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길영 감사님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대학교, 군, 입사 모든 게 미스터리인데 왜 이렇게 미스터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명을 하셨는데

해명도 잘 납득이 안 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게 이렇게 의혹과 미스터리로 쌓여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나중에 정확한 서류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의심나는 것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그러시지요.

○**신경민 위원** 대구상고를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대구상고를 나온 KBS 대구 간부가 지적을 하고 나서 바꾸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대구상고 행세를 하셨다고 그러고 지금은 명예졸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명예졸업은 사실이 고요, 제가 대구상고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닌 적은 없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리고 또 대학은요, 국민산업대학 나오신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어떤 때는 국민대학으로 되어 있고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국민산업학교입니다. 국민대학……

○**신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금방 증언하신 것을 보니까 65년도에 대학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그렇습니다.

○**신경민 위원** 65년도에는 국민산업학교라는 게 없습니다. 65년도에는 중앙농민학교가 있고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바로 그렇습니다.

○**신경민 위원** 69년도에 국민산업학교로 교명을 변경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러니까 국민산업학교를 다니신 적은 없습니다, 유감스럽지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졸업한 학교가 농민학교인데 국민대학으로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졸업증명서에는……

○**신경민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중앙농민학교를 들어가신 거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맞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리고 95년도에 중대에서 석사를 받으셨던데 논문 제목이 뭐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텔레비전 뉴스 수용과정에 대한 실무연구’입니다.

○**신경민 위원** 실무연구예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신경민 위원** 직접 쓰신 거구먼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물론입니다.  
 ○**신경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신경민 위원**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71년도에 대학을 졸업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 72년도에 고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한 걸로 되어 있는데 1년 만에 경영대학원 수료가 가능합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1년 과정이었습니 다.  
 ○**신경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신경민 위원** 그리고 군대도 보면, 지금 아까 ‘편평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신 겁니다. ‘본인 이길영, 61년 병종 제2국민역 질병 또는 심신장애 편평족. 장남 이재운, 1989년 5급 제2국민역 질병명 비공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맞습니다.  
 ○**신경민 위원** 이거 본인이 하신 건데 이걸 왜 부인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신고한 내용 중에 병역법상으로 제2국민역이 심신장애 또는 평족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경민 위원** 아, 그래서 질병과 심신장애는 아니란 말씀이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그렇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러면 아드님 경우에는 질병은 맞고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그렇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리고 입사도 왜 이렇게 다른니까? 64년도에 총무처에 급사로 들어가서 가지고 65년도에 문공부로 전보를 하시고 66년도에 KBS 기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식 기록에 보면 공사로 바뀐 73년도부터 기자로 되어 있는데 뭐가 진실입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64년도에 총무 처 급사가 아닙니다. 5급 공무원 시험 합격했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때 5급은 지금 5급하고는 다르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행정서 기입니다, 그 당시에.

○**신경민 위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총무처에서?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총무처에 근무하지 않았습니 다, 그 당시에.  
 ○**신경민 위원** 안 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신경민 위원** 그러면 문공부는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 당시에 제가 KBS 중앙방송국에 근무를 했습니다.  
 ○**신경민 위원** KBS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신경민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그러면 언제 KBS 기사를 시작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KBS 기자로 온 것은 문광부에서 1년 8개월 근무하고 66년 4월 1일부터 왔습니 다.  
 ○**신경민 위원** 66년부터 KBS 기사를 하신 겁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그렇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공식 기록이나 본인의 증언이 왜 할 때마다 다른지 이것도 좀 서류로 보완을 해 주시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할 때마다 다르지는 않았습니 다.  
 ○**신경민 위원** 그리고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시절에 김준길 씨한테, 문공부 홍보정책실 보고서는 이미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김만철 회견을 확대 부각한 거하고 뭐 ‘지역감정을 자극시켜 노태우 후보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든다’ 87년도 거는 제가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는데요.  
 88년 총선을 앞두고 민정당이 선거구를 케리맨 더링한 사실을 시청 출입기자가 특종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길영 보도본부장은 KBS에서 이런 기사를 보도할 수 없다고 막았습니 다. 사실입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거론은 했지만 막지는 않았습니 다.  
 ○**신경민 위원** 그러면 보도 했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기억에는 지금……  
 ○**신경민 위원** 보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91년 5월에 일산·분당 신도시 부실 건설 문제를 기사가 취재해 왔는데 그 당시 본부장이신 이길영 본 부장이 부정적 측면만 다루었다고 이것도 역시

불방 처리했습니다. 지금도 이 결정을 맞다고 보십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 아이템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기억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팩트로 남아 있고 증인들이 다 지금 눈 부릅뜨고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시는 대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지사 선대본부장·인수위원장을 하실 때 비당원이라고 오전에 증언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신경민 위원 비당원이지만 뭐 사실상의 당원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당원과는 분명히 저는 차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민 위원 인수위원장·선대본부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KBS 감사로 오신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감사로 임명된 데에는 인수위원장 지낸 것이 비당원이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행정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경민 위원 이제 인수위원장·선대본부장은 KBS 감사, KBS 이사·이사장 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군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결격사유가……

○신경민 위원 이제 바로 이길영 선배 뒤를 따라서 모두 다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

○신경민 위원 KBS 감사 면접에서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랬는데 왜 또 KBS 이사로서 기회를 요구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감사 직무를 통해서 터득한 정보와 지식을 이사를 통해서 공영방송에 헌신하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신경민 위원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뭐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러면 KBS 감사는 유관기관으

로서 KBS 이사로 오려면 시간차이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잔여 임기가 지금 3개월여 남아 있는데 이런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경민 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디를 갈 때 유관기관은 2년 내지 3년 동안 가지를 못 한다고 하는 규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KBS 감사는, 법률적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도덕적·윤리적으로 가시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하여튼 제한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아, 그러니까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도덕과 윤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제가 범죄사실이 없는 한 언급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경민 위원 범죄만 없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아닙니다.

○신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한 가지 제가 30초만 시간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무슨 내용에 대해서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73년도 경력에 대해서 지금 신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감사를 지명할 때 KBS가 요구하는 서식이 73년 공사 이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73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의 제 경력은 지금 문화관광부에 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참고해서 다시 이따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염동열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염동열 위원 EBS 광덕훈 사장님!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광덕훈 예.

○염동열 위원 지금 EBS방송센터 디지털 종합

건립을 하고 있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그렇습니다.

○**염동열 위원** 왜 이 사옥을 건립하게 됐습니까, 어떤 이유로?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지금 현재 EBS가 7개 사옥에 분산되어 있고요. 현재 우면동에 있는 스튜디오가 저희 게 아니라 한국교육개발원 소속인데 그게 팔리고 이사를 가기 때문에 저희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경기도개발공사하고 MOU를 맺었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염동열 위원** 그리고 2011년 6월 달에 부지매입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올해 8월 달에 건설관리사업 용역업체를 공모하셨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그렇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3월 달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내년 7월 달에 착공을 한단 말이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염동열 위원** 그리고 2015년 5월 달에 완공을 하게 되는데 이 공기가 너무 짧지 않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2015년도 6월까지 입주를 해야만, 현재 우면동에 있는 방송시설이 매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갈 수 있는 때가 그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끝을 정해 놓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2008년 1월 달에 이 계획이 들어서서 지금 5년간을 사실은 허송세월 보냈단 말이지요. 그리고 23개월의 짧은 공기 동안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우리 국립현대미술관 이게 3만 3187㎡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디지털 종합 건립은 아마 6만 6250㎡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염동열 위원** 거의 딱 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21개월 공기 동안 내부 공사, 골조 공사하고 같이 혼용해서 하는 바람에 아마 이 화재가 발생한 걸로 추측이 되는데,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

한데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사실은 제가 2009년 10월에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제반 승인을 받는 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승인을 거의 받고 지금 이번에 설게 회사까지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가 명심해서 차질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게 저희 숙제라고 보입니다.

○**염동열 위원** 이것 사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되는 게 국립현대미술관이 지하 3층, 지상 3층이거든요. 3만 3187㎡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것은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입니다. 훨씬 더 공기가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서둘러야 합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알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2015년 5월 달에 완공이 되지 않으면 수능시험 하는 방송에 많은 차질이 있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염동열 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을 잘 유념하셔서 공사 관계자, 또 담당자들한테 철저히 말씀을 드려서 안전관리사고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총 공사금액이 2044억이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그렇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리고 자체 부담률이 1427억, 맞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염동열 위원** 내용 아십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알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어떻게 되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1427억이 저희가 자체조달이고요 나머지……

○**염동열 위원** 자체조달인데 아마 유동성자금이 250억이고……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700억 정도를 차입을……

○**염동열 위원** 그리고 본사 매각이 477억, 본사 매각 이거 가능한 겁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위치가 좋습니다.

○**염동열 위원** 만약에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서

다운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최대한도로 저희는 그 금액에 육박하리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제가 볼 때는 1427억 자체부담이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700억을 거기서 차입금을 하게 되는데 이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 언제 다 하시겠어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저희가 현재 EBS는 차입금이 없습니다마는……

○**염동열 위원** 아니, 앞으로 디지털사옥을 건립할 경우에는 700억을 차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477억의 부동산이 매각이 낮춰진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차입을 하게 되는데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거와 관련해서 EBS가 다양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저희 구성원들이 경비도 절감하고 해서 이런 문제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하자는 그 어떤 큰 뜻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염동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을 말이지요 계획이 서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좀 갖다 주시고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리고 통합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도곡동 본사옥이 있고 우면동에 또……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우면동에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리고 대명빌딩이라든가 한방빌딩이라든가 이렇게 전체의 그 사옥의 평수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2700㎡, 한 1만 평이 안 되는데 이걸 지금 2.4배 정도로 크게 키워서 사옥을 만든단 말이지요. 이렇게까지 필요합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계산하신 것은 현재 입장이고요 저희가 너무 장소가 좁아 가지고 사실 회의실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가 제대로 없어서 공연도 제대로 한번, 회의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동열 위원** 그런데 2.4배라고 그러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볼륨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00억이라는 돈을 차입해 온 단 말이지요. 굳이 지하 4층 지상 25층으로 이렇게 지어도 되겠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실제 이번에 설계는 25층 이하로 설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동열 위원** 정확하게 몇 층이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22층 정도로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다.

○**염동열 위원** 22층이요? 그래서 공사비가 좀 줄어듭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지금 저희가 시공을 결정하면서 입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보통 일반인들이 볼 때는 EBS 방송이 한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채널 수가 많습니다. 지상파가 있고 수능채널이 있고 학교채널이 있고 영어채널이 있고, 실질적인 채널만 해도 지금 국내에서 방송되는 게 6개 채널이 지금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차입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간도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해서 그런 문제가 없게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EBS 종합사옥 건립은 여러 가지 우려됩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두 번째로는 공기를 못 맞추게 되면 우리 수능시험 방송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내용이 이겁니다. 사옥 건립을 너무 크게 무리하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EBS의 부실을 초래하지 않나 하는 것이 염려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시설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지 않지요? 시작 단계라고 한다면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층수를 내리시고 연면적을 줄여서 우리 EBS에 맞는 그런 디지털 종합사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마지막으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오기 이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구성원 간의 외부컨설팅을 받고 다 검토를 해서 이렇게 나

오고 정말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스페이스 공간은 확보해야겠다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을 새겨서……

○**염동열 위원** 재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철저하게 저희가 문제가 없게끔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리고 관계자 한 명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헌 위원** 전병헌입니다.

김인규 사장, 벽치기가 뭐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벽치기……

○**전병헌 위원** 언론계에서 사용하는 벽치기가 뭐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옛날에 정당 출입할 때 당사에서 회의 같은 것 할 때 기자들이 벽에다가 귀를 대고……

○**전병헌 위원** 벽에다가 귀를 대고 있는 것이다, 이거지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KBS 새 노조에서 제작한 신문인데 ‘끝나지 않은 이야기, 도청과 정치공작’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KBS 도청문제, 민주당 대표실 도청문제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상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난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민주당 대표실 도청사건과 관련해서 KBS 관련 연루설이 나왔을 때 김인규 사장께서 이와 같이 ‘벽치기 취재기법으로 문제될 게 없다’ KBS 이사회에 가서 이런 발언을 하셨지요? 이것은 사실상……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뭐라고 했어요?

○**전병헌 위원** ‘벽치기 취재 기법은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벽치기는 전통 취재기법이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것은 ……

○**전병헌 위원** 잠깐만요. ‘당시에 민주당 대표실에 비공개 녹취록이 그대로 나돌고 국회에서 공개된 것 자체가 사실상 KBS의 벽치기로부터 된 것이다’라는 변론을 했어요. 이것은 김인규 사장께서 민주당 대표실 도청사건이 사실상 KBS에

서 나온 것이라든 것을 간접 시인한 것이다, 고백 내지는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저는 결코 아닌 게 그것을 보도한 두 신문사가, KBS가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가 돼 가지고 곧 그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것은……

○**전병헌 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도청 문제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이 자리에서 또 그렇게 변명을 하심으로 해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만 언젠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우리는 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궁금해하지는 않고 있다, 왜냐하면 김인규 사장께서 스스로 이와 같은 사실상 자인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KBS 시사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리셋 KBS’를 죽 새 노조가 만들어서 보도를 했는데 지난 4개월 동안 리셋 KBS가 보도한 기사를 재인용한 보도 건수를 보면 총 682건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KBS 8개 소위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인용 건수는 842건인데 이것이 8개 프로그램을 총 합친 숫자여서 이것을 평균으로 나누면 평균 인용보도 횟수가 105건입니다.

그래서 리셋 KBS가 공중파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많은 일종의 인용 기사를 생산해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 KBS 새 노조가 지난 6월 파업을 끝내는 조건으로 우리 사장님과 함께 대선공정방송위원회 설치와 탐사보도팀 부활을 약속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대선공정방송위원회는 합의가 된 거고요……

○**전병헌 위원** 아니요, 탐사보도팀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탐사는 그것과 관계없이 미리 사 측에서 탐사보도팀을 강화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전병헌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아직 탐사보도팀을……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다 됐어요. 발표됐어요. 전 위원께서 지금 팔로업이 잘 안 됐는데 다 됐어요.

○**전병헌 위원** 제 자료에는 아직 탐사보도팀이……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한 한 달 전에 됐습

니다.

○**전병헌 위원** 부활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요. 이와 같이 탐사보도팀의 부활과 같은 것들과 그리고 이번에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슈퍼피쉬’ 같은, 아주 다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리얼리티 플러스 예술성이 가미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 조치들이 KBS의 공영성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으로 비쳐져야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이 KBS 공영성이 강화되어서 국민들에게 인정받아야 지금 인사말에서 말씀하셨듯이 KBS 수신료의 현실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어떤 노력도 사실은, ‘혹 한방에 간다’ 이런 말씀 잘 아시지요? 혹 한방에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KBS 앞에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 이길영 KBS 감사께서 만약에 KBS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시거나 선임이 된다면 저는 KBS 공영성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고 수신료 현실화에도 엄청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적을 안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오히려 당적을 안 갖고, 그것도 그냥 어느 잠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치열하게 당 대 당의 사실상 전투 내지는 전쟁과 다름없는 선거 체제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적을 갖고 맡은 사람보다 훨씬 더 당적스러운 새누리당의 본질과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영 감사께서 지금 어떤 변명하시려고 마이크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KBS에서 지금 따져 보니까 48년을 일하셨네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전병헌 위원** 48년 일한 KBS를 진정 위한다면 KBS 이사장직은 고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저는 현재 9월 1일자로 KBS의 이사 열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사장 문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위원** 그렇다면 KBS 이사장직은 결코 말지 않겠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결정할 수 있

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병헌 위원**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정녕 48년 봉직한 KBS를 위한다면 KBS 이사장직을, 이와 같이 아주 심각한 당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매우 예민한 대선의 시기에 KBS 이사장직에 취임을 하는 것은 KBS의 공정성과 편파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오얏나무 밑에서 갓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길영 감사께서 만약 KBS 이사장을 맡게 되면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갓을 벗어 던지고 감투를 새롭게 고쳐 쓰는 거예요. 새롭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KBS 가족들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KBS 수신료의 현실화 문제도 사실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우현 위원님 순서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이우현 위원** 용인갑 이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인규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런던올림픽에 우리 KBS에서 직원 분들이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120명 정도 갔습니다.

○**이우현 위원** 120명이요. 저도 늦게까지 많이 봤는데 아주 공정하게,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비인기종목에 더 많은 방송시간을 많이 할애해 줘 가지고 비인기종목에 있는 체육인들이 아마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올림픽 때만 하지 마시고 이런 비인기종목도 국내대회나 국제대회나 국민한테 많이 알려져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팬싱 같은 것 어쩌다 4년 만에 한 번 보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많이 해서 비인기종목 체육인들한테 사기 차원에서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가서 가지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올림픽 중계를 협력했다고 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 작년 연말부터 올 초가

되면서 계속 ABU에 런던올림픽 중계권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과거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당수 국가 대부분은 ABU,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에서 스포츠중계권을 가지고 가게 돼 있는데 북한도 그동안에 여러 번 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런던올림픽을 좀 확보해 달라고 해서 ABU의 스포츠국장, 호주 사람입니다마는 호주 사람이 평양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아마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오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스포츠중계를 많이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올 봄에 유럽컵 중계권을 좀 달라고 해서 ABU에서 줬더니 31일 동안 그것을 2시간씩 매일 방송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북한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런던올림픽 중계권 확보와 함께 최초로 런던올림픽에 북한방송단을 보내고 싶다. 이 방송단 보내는 것을 ABU에서도 도와 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스포츠국장 차원이 아니라 회장한테 부탁할 사안이니까 저를 초청했지요. 그래서 가서 저희들이 6명의 AD카드랑 모든 제반여건을 ABU가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런던에서 만나 봤습니다마는 처음으로 북한이 현지에서 금메달 수상자들하고 인터뷰한 것도 나가고 그래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북한 방송단장 얘기가 하루에 5시간씩 런던올림픽을 북한에서 방송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큰 반응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우현 위원 북한 기술로는 아직 생중계하고 그렇게는 못 하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우선 방송단이 못나가 봤으니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KBS가 한 120명, MBC SBS 같이 합치면 한 300명의 방송단이 나가 있는데 이번에 기자 들, 카메라 들 그다음에 통역 하나, 기술 하나 이렇게 6명이 가서 하여튼 나름대로 초보적인 것이지만 현장에서의 올림픽 방송을 처음 한 게 기록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이번에 10월 달에 아·태지역 52개국 방송사 ABU 총회가 한국에서 열려서 KBS 김인규 사장님이 의장, 사회를 보시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도 그날 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이번에 10월 달에

ABU 서울 총회가 열립니다. 열려서 이번에 가서 차승수 조선중앙방송위원장을 초청했습니다. 차위원장이 참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차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북한 방송관계자가 서울 총회에 참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어떻게 초청이나 이런 건, 좀 와달라고 부탁은 안 했습니까, 먼저 북한 갔을 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제가 차 위원장한테, 북한 조선중앙방송도 ABU의 중요한 회원사입니다. ABU는 60개국에 약 225개 회원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정멤버입니다. 멤버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을 요청했고, 참석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서울총회 때 하여튼 북한방송단 대표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이번 정부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도 좀 불안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박창식 위원님 말씀대로 외주제작사애가 많이 의뢰를 하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이우현 위원 그런데 KBS와 을 간의 그 계약 조항이 사장님이 보실 적에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제작사들에게 불공평한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이게 역사적으로 되 돌아보면 지상파 방송사가 잡이고 외주가 올라가는 잡을의 이런 수직관계가 상당히 있었지요.

그런데 분명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고 또 바뀌어 가고 있는데, 최근에 KBS 외주제작 같은 경우는 외주제작사 대표하고 외주제작국 책임자하고 정말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개선이 돼서, 제가 다음 달에 외주제작사 대표하고 식사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우현 위원 무슨 일이든지 갑과 을이 공평하고 공정한 속에서 신뢰도 얻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EBS 박덕훈 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폭력이 심각한데 아까 보고 보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공교육 복원, 창의, 인성 이런 것을 가지고 학부모님들과 같이 해서 방송에서 하겠다는데 그 계획이 어떤 겁니까?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저희가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학교폭력 및 10대 자살 예방 프로젝트라고 해서 10부작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부작은 내년 1월 2일부터, 1월 달 2월 달에 죽 방영이 될 거고요.

○**이우현 위원** 내년 언제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내년 1월부터……

○**이우현 위원** 제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시간이……

그리고 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많은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뷰자를 발견하고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우현 위원** 요즘 학부모님들이 걱정하고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을 좀 빨리해서 국민한테 불안하지 않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비정규직이 2009년에는 19명, 2010년에는 35명, 2011년에는 46명으로 자꾸 늘어나는데 요즘 사회갈등 많잖아요. 그런데 정규직은 별로 안 늘고 비정규직은 이렇게 자꾸 늘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실질적으로 정규직을 늘리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늘어나는 게 2010년도 수능연계정책 강화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직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대체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다음에 특수직무인 성우나 연기, 음악효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6명 중에 16명의 특수직무를 빼면 약 30여 명 되는데요,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규직 T/O를 좀 늘려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제가 사교육비 절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번에 저희가 EBS 국제다큐멘터리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개막작으로 ‘불리’라는 1시간 반짜리 프로그

램이 있는데 이게 미국의 왕따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 가지고 이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EBS는 지속적으로 그런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라디오도 지금 ‘책 읽어주는 라디오’로 전환시켜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에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희 위원** 민주당 통합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아까 인사위원회 회의록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운운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2항에 의해서 KBS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 모르시나요? 김인규 사장께서 얘기해 보시지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은 KBS는 공공기관법이 아니라 국회법 제128조와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장님! 이게 국회법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법을 들어서 지금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KBS가 국회 위에 있습니까? 국민 위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께서 자료제출을 이렇게 일부러 지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지금 당장 빨리 요청자료들 제출해 주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선교** 글썄요, 그러면 정지환……

지금 직책이 뭐지요?

○**한국방송공사대외정책실장 정지환** 예, 대외정책실장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가요?

○**유승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한국방송공사대외정책실장 정지환** 예.

○**유승희 위원** 이게 분명히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열람도 ‘고려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요.

○**한국방송공사대외정책실장 정지환** 열람 두 군데 해 났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회의록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고 개인의 명예가 심대히 훼손……

○**유승희 위원** 그렇지 않지요. 이게 공공기관법이 아니라 국회법과 국회 감정·증언법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랑 설전 벌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답변 다시 해 주시고 자료요청 다시 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대외정책실장 정지환** 아니,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앉으세요, 끝나고 내가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유승희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해고사유가 뭐지요? 김인규 사장께서 얘기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어떤 해고사유 말씀입니까?

○**유승희 위원** 김현석 새 노조위원장을 비롯해서 중징계를 받았는데, 아까 ‘인사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장 사인도 없이 그냥 해고를 시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해고 사유야 불법파업을 90여 일 동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승희 위원** 왜 불법파업을 했지요? 이분들이 왜 불법파업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면에서 불법파업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1년 반 전에 파업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과다하다 이렇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보도본부장 인사가 마땅치 않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 인사조치에 대해 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봅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KBS가 공영방송입니까, 민영방송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공영방송입니다.

○**유승희 위원** 공영방송이지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공정성과 그리고 독립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적반하장으로 지금……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1년 반 전의 파업은 공정성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2노조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마는 새로운 노조가 출범하면서 단체협약이 안 됐다 그래 가지고 파업이 일어난 겁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노조의 설립배경도 그렇고 노조원들의 요구사항은…… KBS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물론이지요.

○**유승희 위원**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KBS 공영방송을 살리려고 하는 이러한 KBS를 사랑하는 KBS 젊은 직원들을 그렇게 해임을, 해고를 시키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공공의 적’ 보셨습니까, 혹시? 제가 한번 여쭙 보겠습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봤어요.

○**유승희 위원** 공공의 적에서 보면 묻지마 살인을 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가 그 손톱을 삼켰는데 결국은 그 손톱이 증거가 돼서, 증거 인멸하려는데 그게 증거가 돼서 나중에 그 범인이 잡힙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노조원들이 공영방송을 위해서, KBS를 위해서 분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투를 삼키면서 95일간 파업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로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을, 김현석 위원장을 해고조치하고……

그런데 또 화룡점정은 뭐냐면, 반면에 지금 이 길영 KBS 이사가 추천이 됐다는 겁니다. 이길영 KBS 이사가 지금 이사 중에서 최연장자지요, 그렇지요? 최연장자 아니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지금 질문을 제한해 하는 겁니까?

○**유승희 위원** 예, 김인규 사장한테 하는 겁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최연장자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리고 전두환 5공시절에 김인규 사장께서 보도국에 계셨을 때 보도국장으로서 모시고 있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김인규 사장의 상관 아니셨습니까, 이길영 이사께서?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저희……

○**유승희 위원** 저는 이 로드맵이 한편으로는 공영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해고를 시키고 한편으로는 5·6공 때 그야

말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때 땡전뉴스를 주도했던, 그리고 노태우 정권의 탄생을 위해서 지역감정을 부추겼던 그 장본인을 KBS의 이사장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이사로 선임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 로드맵이 김인규 사장의 시나리오 아닙니까? 누구의 시나리오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KBS 이사 선임은 KBS 사장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유승희 위원 통신위원회에서 물론 하지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에요. 불가능한 얘기를 이렇게 답을 강요하시면 그것은 의원으로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유승희 위원 뭐가 잘못된 정보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이사장을 KBS 사장이 추천했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유승희 위원 제가 추천했다는 얘기 안 했고……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지금 ‘이사장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유승희 위원 아니, 만들었다는 얘기 안 했고, 이러한 전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김인규 사장이 떳떳하시면 지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분이 지금 KBS의 이사로 선임이 되고 앞으로 이사장이 될 그런 로드맵으로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자격이 있다고 보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KBS 이사회는 KBS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에 관해 사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대해서는 제가 일체 언급을 안 합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이길영 씨가 현직 감사직을 유지한 채 KBS 이사에 지원을 했는데 그건 아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지 법적인 조치를 알아보았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과거에 그런 선례가 한 사람 있어 가지고 감사가 그만 두고 감사실장이 5개월 정도 권한대행을 한 사례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은 아시지 않았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뭘 알아요?

○유승희 위원 아니, 감사로 있으면서 이사로 지원을 한 것은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이사로 등록했다는 것을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유승희 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그렇게 알았고, 그다음에 현직 감사가 됐을 때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유승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직을 유지하면서, 언론보도를 봤다고 치면, KBS 이사에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도 없이 펍 먹고 알 먹고 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저는 이사회에 관한 부분은 언급을 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로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언하는 게 적절치가 않아요.

○위원장 한선교 또 추가질의 하시지요.

○유승희 위원 다시 추가질의를 나중에 할게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다음에 하나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 김현석 기사를 해고시켰다는데 지금 해고가 아니고 정직 6개월이에요, 분명히. 다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유승희 위원 정직 6개월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그러니까 자꾸만 아닌 걸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진작에 정정을 해주시지 그랬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글썽 아니라 그러는데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위원장 한선교 정지환 국장은 아까 그것 설명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30초 이내로 간략히……

○한국방송공사대외정책실장 정지환 예,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족할 만하게 자료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다 협조를 해 드렸습니다. 다만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양해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정계위원들의 발언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공개한 전례도 없고 재판 외의 목적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정보공개법에서도 어떤 예외로 규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승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국회 전문위원님한테 해석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관련해서 협조를 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회의록도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꾸 다르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한선교** 유승희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우리 행정실에서는 두 분 간에 지금……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한선교** 잠깐만 계세요.

빨리 규정을 저한테 보내 주세요, 요약해 가지고.

말씀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지금 여기서 약간 혼돈이 빚어진 것 같은데 이사회 의 속기록을 공개하거나 이런 것은 KBS 경영진 권한 밖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사회에서, 모든 속기록을 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KBS 조직상 KBS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거기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공개하고 이렇게 안 되고, 그건 이사회를 비롯한 이사회가 사무국하고 결정해서 공개를 하고 안 하게 된다는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승희 위원** 이사회가 법 위에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이사회요?

○**유승희 위원** 이사회가 법 위에 있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이사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회 운영규정이

법 위에 있나요? 지금 국회법에 내게 돼 있습니다. 왜 자꾸 딴 얘기를 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위원장 한선교** 위원님, 그런 점을 지금 유권해석 내리라고 보았으니까……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그 법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야 되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말씀하시는 것을 이사회에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렇게 군림하시는 태도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법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한선교** 알겠습니다.

이어서 강동원 위원님 다음에 남경필 위원님 하시겠어요?

강동원 위원부터 먼저 하시지요.

○**강동원 위원** 강동원입니다.

이길영 감사, 아까 사표 수리됐다고 그랬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강동원 위원** 사표 수리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강동원 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정확히. 무슨 지난주 수요일 얘기합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사표는 지난주에 수리됐는데 날짜는 9월 초하루입니다. 9월 1일자입니다.

○**강동원 위원** 9월 1일자로 사표 수리됐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강동원 위원** 그래서 오늘 나오셨군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강동원 위원** 그래서 9월 1일자로 감사 사표 수리하고 9월 2일자로 이사 취임합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강동원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강동원 위원** 참 뻔뻔스럽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감사 사표를 내고 이사가 되기 위해서 이사회에 공모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KBS에서 9월 1일자로 딱 감사 사표 수리하고 9월 2일자로 이사로 취임하고,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온당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이길영 감사께서 위증을 하고 있어요. ‘감사실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금방 사장께서도 5개월간 했던 전례를 찾아냈다 그러는데 방송법에 보면 감사는 임원입니다. 임원인데 어떻게 감사실장이 감사 직무대행을 합니까? 있을 수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생각을 해 보세요. 임직원, 임원과 직원은 엄연히 구별이 되는 건데 어떻게 감사실장이, 직원이 임원을 대행한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위원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원 위원** 앉으세요, 당신한테 얘기 안 했으니까. 앉으시라고.

사장께서 답변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있겠습니까마는……

○**강동원 위원** 이건 유권해석보다도 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모독이고.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우리 감사직무 규정상……

○**강동원 위원** KBS만 그렇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우리 KBS의 감사 직무 규정상 감사의 보조기관인 감사실장이……

○**강동원 위원** 그것은 잘못된 규정이에요. 규정 개정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개정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원 위원** 검토가 아니고 개정해야 돼요. 모법에 있는데 왜 규정에서……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현행 방송법하고 KBS 정관 등에 감사 결원 시 직무대행 하는……

○**강동원 위원** 자, 보세요. 방송법 제50조4항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임원의 임명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실장인 직원이 감사를 대행한다는 얘기에요? 이러니까 KBS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자, 지금 이길영 감사가 계속 본 위원회에 출석을 해 가지고 위증을 하고 있어요. 금방 ‘감사실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 이것도 잘못된 얘기고, 감봉을 자원해서 받았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이 자기의 징계 양정을 스스로 자청을 해서 받으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법체계가 없습니까? 무슨 망발 하는 거예요, 지금.

앉으세요, 묻지 않았으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신장애가 있는 걸로 의심을 받는 거예요.

이길영 감사 관련된 내용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한테 말씀드릴 시간을 좀 주십시오.

○**강동원 위원** 앉으세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한선교** 이 감사님, 여기 위원이 답변을 요청할 때 하시고 제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면 그때 말씀하세요.

○**강동원 위원** 여러 가지 지금, 이길영 감사께서 저는 오늘 무슨 참고인으로 나왔는지 증인으로 나왔는지 좀 헛갈렸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건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KBS가 우리 국회, 우리 위원회를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이길영 감사, 지난 1987년 10월 항쟁 아시지요? 이한열 열사가 경찰의 최루탄을 맞아서 사경을 헤맸을 때 시위의 격렬함을 부각시켰다고 자랑했어요. 부역언론이 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 1989년 국정조사에서 우리 야당이 입수해서 폭로한 ‘문공부-언론인 개별접촉’ 문건에서도 아주 자랑스럽게 김만철 회견 등을 확대 부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요? 그 당시에 KBS 보도국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 그랬지요?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KBS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방송법에 의해서 저촉받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는데 공공기관은 모두가 경영공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경영공시에는 이사록을 모두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국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때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어떻게 공개하는지의 공개 방법, 공개 횟수, 그리고 공개한 내용이 감사가 어느 정도로 발언을 했느냐에 따라서 기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회의록을 지금 어쩐다고요? 아

까 정보공개 어쩐다고요? 이런 얘기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로 아주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다음에는 경영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KBS의 예산을 보면 기본적인 수입이 방송법 제56조와 제64조에 의해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의 경우 KBS 수신료 수입이 5778억입니다. 그런데 KBS 임직원의 인건비가 5213억 원입니다. 90%입니다. 이래 가지고 경영 악화가 요인이 되니까 수신료를 인상해 달라……

자, 수신료 수입의 90%를 인건비로 사용하면 경영 악화입니까? 사장 답변해 보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KBS의 재원은 지금 현재 수신료가 한 40%가 좀 안 되고 광고료가 한 40%가 되고 기타 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동원 위원** 지금 그것을 제가 묻지 않았어요. 지금 KBS 수신료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39.8%이고 나머지는 방송광고료 등등인데 이 수신료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 주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위원장 한선교** 1분 더 쓰세요.

○**강동원 위원** 경영 악화가 됐는지, 경영 혁신을 위해서 어떤 인적 구조를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어서 KBS 직원들의 임금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강동원 위원** 답변 그만하시고 제가 한 가지 계속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예입니다.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사장 평균 임금이 34.5% 인상됐어요. 부사장·감사 30.2%, 본부장 25.9% 인상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직원들은 거의 쥐꼬리만큼 인상됐어요. 왜 이렇게 임원들만 인상돼야 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우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이상하게 들리는데 KBS 사장의 연봉이 SBS 사장의 44%밖에 안 됩니다.

○**강동원 위원** 그러면 SBS로 가시면 될 것 아니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SBS하고 비교해 보면 SBS가 100이라면 우리 직원들은 한 85% 정도 됩니다.

○**강동원 위원**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직원들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지금 직원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강동원 위원** 직원은 인상률이 연평균, 보실까요? 2010년도의 경우 25년차 0.2%, 20년차 0.5%, 15년차 0.3%, 10년차 0.5%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사장 얼마 인상됐습니까? 사장 얼마 인상됐어요, 지난해? 이걸 꼭 밝혀 줘야 되겠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지난해에……

○**강동원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 부문도 2010년도 같은 경우 5.0%이고 공공 부문은 1.1%밖에 인상 안 됐어요. 이렇게 해서 경영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정신 차리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길영 감사는 아까 뭇 때문에 말씀하시려 했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지금 강동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위원장 한선교** 뭘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사실과 다른 부분……

○**위원장 한선교** 뭐에 대해서냐고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우선 감사 직무대행에 법률적,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보고를 드리면 이해가 가지리라 믿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아니, 앉으세요. 그것 서면으로 갖다 드리세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한 가지만 그러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기회를 드리니까 자꾸 회의가……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죄송합니다.

저 위중한 적 없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보도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강동원 위원** 내가 언제 지역감정 얘기했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아니, 위원님이 하

신 게 아니고 아까 유승희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강동원 위원 얘기를 확실하게 하세요.

○위원장 한선교 자, 그만 앉으세요.

사실 아까 감사 대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정이 있으면 그걸 서면으로 주시면 다음 추가질의 때 질의하시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원 위원 그것은 법 개정하기로 했어요. 규정 개정하기로 했으니깐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이 감사 아시겠어요?

○위원장 한선교 자, 추가질의 해 주시고요.

다음에 남경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경필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야당 국회의원을 한 10년을 했습니다. 그때 문광위원을 제가 했었는데요. 참 재미있게도 그때 저희 야당 시절에 저희가 했던 취지하고 비슷한 내용의 말씀들을 요즘 야당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보면서 ‘야, 이거 방송 중립성 얘기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야당 할 때는 ‘정권의 나팔수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는데요. 지금도 그런 얘기가 계속되는 걸 보면 이게 사람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은 결국 국민들의 것이고 이게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매번 방송사 사장의 적격성 문제, 중립성 문제, 방송통신위원장 선임의 문제, 이사진의 정치적 편향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는데 김인규 사장님 어떠세요?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이러한 논란이, 계속 국회에서 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고쳐서 시비를 그만, 이러한 시비가 다시 안 일어나도록 시스템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래서 지난 18대 국회부터 방송법 중에서 KBS에 관한 부분에, 지배구조 개선 부분이 여야 의원들 중에서 발의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진척이 되리라고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사회 구성은 거의 안 됐고 아직도 사장 선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위원 저도 관련법을 냈는데요. 크게 보면 이사회 정원을 KBS 같은 경우에 12명으로 증원을 해서 여·야·대통령 이렇게 하고 3분의

2가 찬성해야 사장 임명을 하든지 또 해임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또 하나는 특히 사장이나 이사들의 경우에 정당과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결격사유를 두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사실 KBS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은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탈정파적으로 하느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탈정파적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사장 선임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하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KBS의 이사 구성이 법상으로는 각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파적으로 구성되는 그런 좋지 않은 선례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장 선임의 문제까지 다 연계가 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KBS의 지배구조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문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특히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는 구조로 바꾸면 한쪽에 의한 일방적인 독주가 아니라 합의 구조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굉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저희 국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KBS 사장을 상대로 저희가 질의하는 게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 봤고요.

이제 법안심사소위 구성이 됐나요, 위원장님? 안 됐습니까?

빨리 법안심사소위 등 소위를 구성해서 우리 국회에서 이 논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디지털전환 100% 재단 했는데 왜 이렇게 목표도 조그맣게 잡아 놓고 소극적인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게 당초 재단 정관 부분이 위성방송을 통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이 너무 많아서 정관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 디지털전환 예산 계획 수정이 돼서 상당히 많은 가구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다세대 공동주택에 관한 난시청 문제까지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확대가 많이 될 겁니다.

○남경필 위원 그런데 2011년도 사업계획 보면

전체 한 16만 7500세대 중에 12%밖에 목표로 안 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한 10년 걸릴 텐데 내년에 확 좀 늘립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지금 이걸 정관을 고쳐 가지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는데 난시청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절대난시청 가구가 있고 그다음에 인위적인 난시청 지역이 있는데 현재 여기서 말하는 난시청 가구는 절대 난시청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속이라든가 섬 지역 이런 건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위성을 통해서밖에 커버리지가 안 되고 공공시설의 난시청 지역은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경필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가능한 세대가 대개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올해 15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를 우리가 100% 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약 1만 2597개 단지 중에서 약 6602개 단지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8월 현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 320억짜리 재단인데 운영재단이 지금 262억이나 잔액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것은 당초 정관 수정하기 전이고 지금 이후에는 올해 아마 반 이상이 다 집행될 것입니다.

○**남경필 위원** 그렇습니까?

집행을 좀 빨리 해서, 난시청 되는 지역이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니까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남경필 위원** 박덕훈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EBS의 대학 배너광고 사업이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처음에 좀 잘 되다가 대학이 요즘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우니까 홍보비부터 제일 먼저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원격교육연수원 이것도 더 형편 없고요, 온라인변호사연수원은 목표치의 7.1%밖에 못 했는데 이것 뭐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2011년도 변호사협회하고 온라인 변호사 연수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지금 2011년도는 시작 해이니까 그렇고

처음에 온라인 연수를 3시간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수강률이 저조했는데 이제 온라인 연수를 8시간으로 늘리면서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많이 얼마나 활성화되었어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변호사협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변호사님들이 수강을 하는데 마지막에 듣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힘만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그쪽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진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남경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병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완 위원** 장병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남경필 위원께서 지난 민주당 10년 동안 야당 의원 시절에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관한 논의가 왜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당시에 정부에 있으면서 죽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반복되는 것은 똑같은데 매번 결론은 달랐습니다. 지난 10년의 민주당 시절에는 여러 가지 도덕성과 이런 윤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매번 탈락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청문회 과정에서도 위장전입 한 번 한 사람 총리 후보에서도 바로 탈락을 했고 장관에서 줄줄이 다 사퇴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그 극치가 조금 전에 인권위원장 했던 현병철 씨였습니다마는 여야가 다 반대하고 문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임명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죽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길영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적격성과 관련된 논의를 지켜보면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이길영 감사가 KBS 이사로 다시 임명이 되게 된 것은 이길영 감사의 과욕과 방통위의 직무유기가 결합을 해서 공영방송의 위상을 추락시킨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론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통위가 공영방송인 KBS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유지시키려는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이길영 감사를 비호하는 특정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 적격성 검증을 아예 눈을 감아 버렸거나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심심하게 계시는데 홍성규 부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말씀하시지요.

○**장병완 위원** 몇 가지 확인만 제가 해 보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장병완 위원** 지금 이길영 감사가 아직까지는 감사니까 지금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시절에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의 막내아들 부당 채용해서 거기에 따라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병완 위원** 오늘 여기 와서 알았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여기 와서.....

○**장병완 위원** 어쨌든 있다고 지금 확인이 되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지난 참여정부 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유사한 사안이었습니다—그 당시에는 어떤 결론이 났었느냐,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해당 정무직이었습니다, 바로 사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어떤 경우에요? 죄송합니다만.....

○**장병완 위원** 이렇게 친구의 아들과 관련된 취업이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진행됐다는 자체에 도덕적 책임을 느껴 가지고 정무직을 사퇴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KBS 안전관리팀 특별감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파면 4명, 6명의 감봉조치가 있던 것을 이길영 감사가 감사가 된 후에 특별히 특정한 한 사람에게 대해서만 감봉 1개월 처분하고 마무리 지은 사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KBS라는 공영방송이 어떻게 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권위와 이런 것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사실 어떤 감사실에서 자기 조직의 보호 마음이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특별감사를 통해서 할 때는, 전부 다 그 특별감사를 했던 분들도 정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KBS의 공영방송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감사를 했는데 그것을 다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고 없던 사실로, 사실 감봉 1개월은 없던 사실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인데, 한 것 자체가 지극히 정무적 판단 내지는 직무를 유지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KBS를 위한 것이 아니라 KBS를 결국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위원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배려나 이런 것에 따른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저희는 법에 따라서 법적인 분야만 보고 하니까 결격사유나 이런 것을 법에 적시된 대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에 따라서 결격사유가 없고 또 상임위원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장병완 위원** 어떤 감사실이 같은 동료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징계를 하고 싶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적인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을 다 뿌리치고 KBS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특별감사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 감사를 없던 일로 돌려버리는 것 자체가 이것은 KBS를 망치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지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제기를 하니까 경기도지사 후보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때 당적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더 당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문제다 하는 것은 전병헌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KBS 이사나 감사에서 중립성 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결국 당적을 가지거나 정치적 활동에, 특정한 세력에 편향되어서 했던 사람은 안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S의 공정성 중립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방통위가 공영방송인 KBS의 중립성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이랬는지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계속 위원장은 하셨는데 이런 것들 다 확인 안 해 보고 이제 여기 와서야 알았다고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절대 몰랐던 것이 아니고 이길영 감사를 비호하는 특정 세력의 요청을 받고 당연히 인사 검증자로서 해야 할 의무를 유기한 것이예요, 이것은.

물론 KBS는 공공기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

니다. 그러나 한국방송공사법이라는 것 자체가……

○**위원장 한선교** 1분 더 드리세요.

○**장병완 위원** 그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KBS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KBS 방송공사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을 안 받아도 된다, 안 받더라도 보다 더 독립적으로 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 공공기관법 적용을 배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야 할 방통위가 전혀 의지가 없고 처음부터 항복하고 이번 인사에 임했다 그런 이야기지요. 물론 위원장이 안 계시고 부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시려니까 위원장이 하셨던 말을 넘어서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방통위가 그렇게 일을 하신다면 방통위는 스스로 해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이제 두 분 위원님 남으셨습니다, 김희정 위원, 또 최재천 간사님.

먼저 김희정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먼저 KBS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전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인데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책정된 예산도 모두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도 계속적으로 불용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우선 불용은 이런 것입니다.

3, 4년 전에 전임 사장은 KBS의 재원구조가 불확실하니까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것이 있었고요, 저는 디지털 전환은 반드시 공영방송이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하고자 했는데 사실상 그것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잡았던 것보다도 그 해가 되면 가격이 좀 저하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지 예산상의 집행실적은 낮지만 목표는 차질 없이 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지금 디지털 전환을, KBS가 특히 MBC나 SBS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디지털 전환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전혀 재원이 확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사회 같은 시각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은행 차입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전환에 특히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예산을 해주는데 우리도 몇 년 전에는 검토했다가 지금은 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행 차입금으로 디지털 전환을 해 가야 되는데 저 자신도 디지털 전환을 해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옳은 경영인가, 정부 정책을 따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경영의 문제를 고려할 것이냐, 이런 갈등을 항상 겪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희정 위원** 사장님께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님까지 맡고 계시는데 지금 내용이 부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렇지요. KBS는 디지털 전환 작업을 예정대로,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요인이고요,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희정 위원**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는 몇 년째 대표 수치상으로 이렇게 되어서 혹시 내용상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결산하고 별도로 현안하고 관련된 질문을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 먼저 청소년 연예인 관련되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을 보면 방송을 시청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만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의 자료에 의하니까 청소년 연예인 중에 절반 정도가 1주일에 만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이 있고 학습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을 했고요, 또 청소년 연예인의 36%가 초과근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보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특히 아동 청소년의 출연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이 없으시다면 사장님의 결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향후 의지를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이것이 미성년자 방

송 출연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쟁점이 돼서 KBS 나름대로 프로그램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우리 담당 본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답변시간이 좀 제한이 있으니까 의지만 사장님께서 밝혀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저한테 답변을……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프로그램별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저에게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내 주셨으면 하고, BBC 같은 경우가 외국 사례지만 제작 가이드라인 어린이 청소년 출연자 관련 주요 규정을 두고 있어서 다른 방송사나 미디어 제작에 상당히 모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KBS가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ABU 관련 되어서도 앞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 3대 국제방송기구의 하나인데 작년에 KBS가 이것을 유치할 해서 올해 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먼저 축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는 것 중에서 특히 한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특별히 과거 ABU총회에서 없었던 것 중에 K-pop이라든지 코리안 웨이브(Korean Wave) 관련되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로 기획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뭐 좀 소개를 해 주시고, 저희들 도움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ABU 서울총회를 위해서 지난 봄에 이사회가 열렸는데 많은 회원사들이…… 지금 60개국, 한 220개 회원사가 됩니다마는 많은 회원사들이, 특히 서울에서 하는 서울총회에 참석도가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합니다.

특히 K-pop이라든가 한류를 의식해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서울총회 직전에 라디오송 페스티벌하고 TV송 페스티벌을 합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도 참여를 하지만 여기를 통해서 우리 K-pop을 소개해 주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ABU 산하 회원사들에서 예선전을 다 치러 가지고 지금 본선에 나올 사람들이 결합

이 돼서 그날 라디오는 라디오송 페스티벌을 통해서, 텔레비전은 텔레비전송 페스티벌을 통해서 콘서트가 열리고 이때에 정말 우리 K-pop의 진수도 소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습니 다마는 지금 북한방송 대표단의 참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희정 위원** 북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과거하고 달리 이번에 북한을 직접 방문해서 런던올림픽 중계권 제공 협약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ABU 회장사 자격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와 향후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북한에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느낀 거는 북한의 새 지도 체제가 북한 주민들한테 텔레비전을 통해서 좋은 콘텐츠를 지금 많이 제공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요.

특히 스포츠 콘텐츠에 대해서는, 강력한 스포츠 콘텐츠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북한 자체만으로는 국제스포츠 콘텐츠 확보가 안 되니까 ABU를 통해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런던올림픽도 마찬가지고요. 그와 함께 런던올림픽에 처음으로 방송단을 지금 처음으로 보내는데 이 방송단 보내는 것에 대한 지원, 또 앞으로는 다큐멘터리 지원을 좀 많이 해 달라고 그래서, ABU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해서 거기의 차승수 북한 조선중앙위원회 위원장과 ABU 회장 간에 MOU도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기타 제가 서면으로 좀 자료요청하고 싶은 거는, KBS가 올해 4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우선 적립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공기업, 그러니까 정부출자기관 공기업하고는 조금 운영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가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김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 마지막 순서로 민주통합당의 최재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천 위원** 예, 최재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에 개원을 해서 방통위는 몇 차례하고 또 방문진이나 그다음에 MBC 문제나 오늘은 KBS까지 왔는데 어차피 KBS가 한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이니까…… 제가 그간 몇 가지 소회를 우리 방통위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KBS도 계시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언론사가 언론기업처럼, 이를테면 비누를 만드는 그런 주식회사 공장과 똑같다면 과연 미국식 표현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를 주장할 근거가 어디 있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주식회사와 똑같다면, 다른 사원·다른 기업과 똑같다면, 그냥 언론기업이라고 당신들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면 왜 당신들한테만 특별히 표현의 자유라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기자의 특권을, 기자의 접근권을 더 인정해 줘야 되는 거지?’ 이러면서 LAT(LA타임즈)의 유명한 논설위원 출신이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서평을 쓴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비누공장 종업원과 언론사의 기자가 뭐가 다르단 말인가, 뭐가 같단 말인가, 뭐가 다르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반문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KBS나 MBC나 SBS나—SBS는 좀 제외입니다마는—YTN이나 죽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 방송의 공공성·중립성·독립성을 이야기합니다만, 자꾸 외압을 이야기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내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는. 왜 정권이 바뀌면 스스로 줄을 서야 되는 거지요? 왜 친위대가 자꾸 따로따로 형성이 되고 따로따로 줄을 서고 스스로 내부를 분열시키는 거지요? 내부 분열이 저는 극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공정방송, 공공성·독립성에 대한 대의를 인정하고 그 회사에 들어갔고 그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면 어떻게 분열될 수 있는 거지요?

이를테면 얼마 전에, MBC 방문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이야기가 있는데, MBC 같은 경우 이진숙 기획실장이라고 옆에 와 있어요. 내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새 로비스트와 기자의 경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전에 신문사 비서실장으로, 신문사 비서실에 기자들이

가는 걸, 종이신문사, 저희들은 늘 비난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사장이나 임원진이 정치화되고 거기에 기자들이 배속돼서 근무하는 게 그 회사에서 일종의 승진 코스가 돼 버리고,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은 도리어 국방부에서 군인들을 내보내려고 그리고 법무부에서 검사들을 내보내려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문민정치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려고 그러는데 도리어 지금 언론 기업들은 언론 비즈니스형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사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처음부터 그 대의에 수궁을 하고 동의해서 기자라는, PD라는, 행정직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안고 들어가셨다면 스스로 좀 더 반성하고 스스로 지키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수신료도 인상할 거고 공영방송이 만들어 내는 그 공공성·중립성·콘텐츠에 다들 감동할 거고,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KBS가 이 나라의 대표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KBS는 이 나라의 대표선수, 공영방송의 중심으로 남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서 이번 이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일어나 보십시오, 이길영 감사님. 감사지요, 아직?

자, 대학 몇 년에 갔습니까? 대학이 아니라 국민산업학교 몇 년에 갔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65년으로 기억합니다.

○최재천 위원 자,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국민대에서 답변 오기로는 64년에 입학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과에 들어갔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65년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최재천 위원 아니, 학교도 기억하고 말고입니까? 정확히 딱딱 꺼내야지.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분명히 졸업증명서에 6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천 위원 졸업증명서는 왜 제출 안 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아, 제가……

○최재천 위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졸업증명

서에는 입학 연도는 안 나와 있어요. ‘국민산업학교, 농업경영학과’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농경과 맞습니다.

○최재천 위원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최재천 위원 몇 년에 들어갔는데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65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최재천 위원 그러면 KBS 기자…… 몇 년에 들어갔습니까, 문공부에?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문공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시험 합격한 게 64년입니다.

○최재천 위원 자, 그러면 공무원시험 합격해 가지고 대학 다닐 수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다닌 학교가 각종학교입니다.

○최재천 위원 예, 학교도 그냥 대학이 아니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와 과제물로 학점을 인정받는 그런 데입니다.

○최재천 위원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언제 수료했습니까? 졸업입니까, 수료입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71년도에 했습니다.

○최재천 위원 그때 뭐로 졸업했습니까? 무슨 과 졸업했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농업경영과입니다.

○최재천 위원 그때에는 폐과되고 없던데요, 국민대 학교 자료 보니까?

69년 1월 8일 교명을 ‘중앙농민학교’에서 ‘국민산업학교’로 바꾸고 구 학과를 다 폐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 국민대학으로 통폐합이 됐습니다.

○최재천 위원 국민대학으로 통폐합 안 됐어요, 폐교됐어요, 72년 2월에.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중앙농민학교’가 ‘국민산업학교’로 되고 ‘국민대학’으로 통합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재천 위원 통합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학교 학칙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후 내내 읽었어요, 틀릴까봐. 폐교되고 말았어요. 폐교되고, 그래 가지고 중앙대는 그걸 데려다가 좋은 농과대학,

이과대학을 만들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거짓말하세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만약에 과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졸업을 합니까?

○최재천 위원 폐교라니까요, 폐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력서에는, 지원서에는 1969년 8월에 들어가서 71년 2월에 국민산업학교 농업경영학을 전공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 기록이 아마 잘못되었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최재천 위원 자, 누구 기록인데, 이게? 이번에 이사 들어갈 때 낸 지원서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아닙니다. 그게 65년……

○최재천 위원 자, 방통위, 이 자료 누가 만든 거예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4년제인데 어떻게 2년 만에 졸업할 수 있겠습니까?

○최재천 위원 1년 반 만에 졸업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들에게 방금 제출한 자료잖아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기록이 잘못……

○최재천 위원 방통위가 저희들한테 보낸 거예요. 이 기록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진 누가 붙였어요?

자, 이 감사!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최재천 위원 이 사진 누가 붙였어요, 여기에? 자기들이 만들어 온 자료 아니에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

○최재천 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이력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65년에 입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회사에.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66년에 저는 KBS 기자입니다. 그 기록이 타천 서류가 들어가서 혹시 오류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자, 이길영 후보자는 65년에 KBS에서 평기자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몸담았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안 맞아요. 국민대학교에서는 64년에 대학 들어왔다고 그리고 여기는 65년에 평기자로 KBS에서 기자 시작했다고 그리고 여기 이력서에는 69년 8월에 들어가서 71년 2월에 농업경영학 학사를 취득했다고 그리고……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학사 취득한 적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재천 위원 아, 학사는 취득 안 되어 있고……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최재천 위원 자, 국민대학교에서는 우리는 이미 69년 1월 8일 날 교명을 바꾸면서 그 과 다 없었고 기업경영학과만 남아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민대에 전화했더니 64년에 들어온 게 맞다고 되어 있고, 도대체 누구예요? 이길영 감사님, 누구예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아니, 제……

○최재천 위원 고등학교도 평생을 숨기고 살아왔고 전두환 시절에는 대구상고 출신이라고 출세하고 이제 와서는 대신고로 바꾸고 지금까지는 죽 국민대 나왔다고 쓰고 이제 와서 문제 삼으니까 이제는 ‘국민산업학교 다녔습니다’ 이려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지금 위원님 말씀한 거 제가 서류로 전부 소명드리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아니, 지금 구두로 소명하세요. 뭘 서류로 소명해요? 서류를 못 믿으면서 누구를 믿어요?

자, 다른 사람이 감사실 직원 시켜서, 감사실 밑에 있는 기자 시켜서 추천서 넣어 놓고…… 다 확인했어요, 저희들이.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타친 서류를 쓸 때 혹시 오류가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65년……

○최재천 위원 자, 그러면……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전혀 잘못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재천 위원 부하 직원 시켜서, 기자 시켜서 추천서를 넣으면서 확인도 안 했단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아요?

마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한선교 앉으십시오.

이따 또 추가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각각 7분씩……

○강동원 위원 위원장,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하세요.

○강동원 위원 강동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시간이 없어서 준비한 자료를 다 못 했는데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휴식과 또 다음 추가질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한선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은 역시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와 마찬가지로 최민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희 위원 이길영 감사님, 아까 남경필 위원님께서 공영방송을 놓고 여야가 뒤바뀌어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셨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 정도 문제 제기되면 다 그만뒀습니다. 저는 사실 김인규 사장님 특보하셨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량이나 KBS를 사랑하는 정도 진짜 인정합니다. 그런데 달라요.

이길영 감사님, 김병호 박근혜 후보캠프 공보단장 잘 아시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잘 압니다.

○최민희 위원 최근에 만난 적 있으세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없습니다.

○최민희 위원 통화한 적 있으세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없습니다.

○최민희 위원 아니, 그렇게 잘 알고 친한데……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옛날에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최민희 위원 친하시다면서요. 그러면 옛날에……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잘 아는 사이……

○최민희 위원 친하다고 말씀하셨어야죠.

아니, 그게 이상한 거지요, 친한 분인데. 그리고 요새 정국에 대해서 대선 앞두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좀 거짓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아닙니다.

○**최민희 위원** 그건 전화해도 괜찮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전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민희 위원** 친하니까.

그런데 요새요 이길영 감사를 ‘KBS 왕사장’이라고 부른다더군요, 내부에서. 왜 그래요, 그것?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저는 처음 듣습니다.

○**최민희 위원** 감사실이 부적대다는데요? 사장님실이 옆에 있는데 감사실이 오히려 결재 받는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다던데, 이것 왜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김병호 박근혜 후보캠프 공보단장님하고 가까워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전혀……

○**최민희 위원** 왜 그렇게 부적대요? 부적 안 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부적대는 일 없습니다.

○**최민희 위원** 부적대다던데요.

그리고 아까, 최우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KBS 안전관리팀.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최민희 위원** 정신이상자 화염병 투척 및 흥기난동 사건 당사자예요, 조작 당사자.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사건은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런데 아까 ‘이 사건에 대해서 2009년 KBS 내부감사한 게 너무 형편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재감사 들어갔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너무 형편 없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편 없었다고.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최민희 위원** 어쨌든 부실해서 그랬다 그러셨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이의 신청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민희 위원** 들어왔는데 그전에 말씀하셨어요. 속기록 보면 나오는데 왜 이러십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저는 형편없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러면 말을 바꾸지요, 부실해서 다시 감사했다. 그것 속기록 좀 확인해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의 신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최민희 위원** 아니, 그전에…… 속기록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감사 누구예요? 2009년에 1차 감사 하신 분, 그때 책임자가 누구예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변원일 감사입니다.

○**최민희 위원** 그분 KBS 감사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제 전임입니다.

○**최민희 위원** 그런데 아까 진짜 형편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쓸 수가 없는 자료였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속기록 좀 확인해 주실래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변원일 감사는 무지하게 기분 나쁘겠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그런 말씀은, 거듭 말씀드리는데 형편없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최민희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이의 신청을 정식으로 문서로 받았을 뿐입니다.

○**최민희 위원** 저희가 또 하나 문제 제기할 게 있는데, 최우식 씨는 그런 거짓된 사건을 조작했어요. 그런데 감봉 1개월 받았어요, 최종적으로. 맞지요, 그것은?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런데 그 외에 보니까 최근에……

김인규 사장님, 최성민 씨라는 분 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최민희 위원** 그분이 감봉 1개월 징계 받았더라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마지막에 감봉 1개월 받았습시다.

○**최민희 위원** 그런데 그분 감봉 1개월 받은 이유가 민주당 기자회견 참석했다는 이유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그렇게 알고 있

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런데 화염병 투척 조작 사건은 사실 엄청 부끄러운 사건 아닙니까? 조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둘 다 감봉 1개월인 것, 이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최성민 그 당시의 심의위원일 텐데요. 그때 심의위원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규상으로는 더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위원** 그러니까 정파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다 이 말씀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최민희 위원** 그게 과연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화염병 투척 조작 사건의 당사자가 감봉 1개월 받은 게 너무 이상한 일 같아서요. 이 부분은……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것은 감사 결과가, 하여튼 저도……

○**최민희 위원** 그렇게 나왔지요. 그래서 제가 이길영 감사께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형평성 없게 일처리를 하는 이길영 감사께서 이사에 지원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더군다나 이사 되는 것, 이사장 되는 것 말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잠깐 봐 주실래요, 김인규 사장님?

취임사에서 대대적인 탕평 인사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김인규 사장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게, 말하자면 정파적인 문제, 공정 방송 문제 제기한 기자들은 굉장히 중징계 받았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데 탕평 인사 하시겠다고 해 놓고 측근 챙기기, 위인설관형 인사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최모 씨 같은 경우는 사규상 국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국장직무대리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국장급에 임명하기도 하셨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최민희 위원**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일을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은 정말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최민희 위원** 그리고 KBS의 법무팀이 몇 명

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법무팀 숫자가……

○**최민희 위원** 몇 명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8명?

○**한국방송공사법무실장 오영철** 법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몇 명입니까?

○**한국방송공사법무실장 오영철** 사내 변호사 3명이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아, 3명?

○**한국방송공사법무실장 오영철** 일반 직원 7명, 총 10명이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10명이네요.

○**최민희 위원** 그런데 아까 도종환 위원님도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니다.

2010년에서 2011년 KBS 소송 현황 중에 단체 교섭 혹은 노조 관련 소송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 또한 김인규 사장님은 노사관계도 잘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좀 의외였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앞으로 노사관계도 이렇게 소송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분 더 주실……

○**위원장 한선교** ‘주십시오’ 하면 드립니다.

○**최민희 위원** 예, 주세요.

사실은 노사관계를 잘 운영하는 것도 사장의 역할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송을 통하지 마시고 그냥 노사 간에, 서로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데이터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가 노사 관련해서 소송한 건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2건, 2건 이렇게 밖에 안 돼요, 현재.

○**최민희 위원** 그것 자료를 한번만 저도 볼 테니까 사장님도 한번……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취임 후 노조 관련 소송은 모든 게, 제가 4건밖에 없습니다.

○**최민희 위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소송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2011년에. 그것은 또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전반적으로 보시고 가능하면 소송은 줄였으면 좋겠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소송 건수는, 일반 소송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노사관계 소송



건수는 4건에 불과합니다.

○**최민희 위원** 그런데 그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서면으로 두 가지 정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정 위원** 자료제출 요구해도 됩니까?

○**위원장 한선교** 자료?

○**배재정 위원** 제가 아까 자료제출 요구를 드렸는데 아마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든, 전달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드라마 한 편에 대해서 편성의향서를 두 차례 이상 공문으로 보낸 경우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자료를 뽑고 있을 겁니다, 아마.

○**배재정 위원** 그런데 답변이라고 해서 그냥 ‘몇 건, 뭐 뭐 뭐’ 이런 식으로 와 가지고요. 제가 요청한 것은 공문 사본을 요청한 겁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지금 드라마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런 양식에 맞는 답변 준비를 하려니까…… 현재 뽑고 있습니다. 그것은 갖다 드릴게요.

○**배재정 위원** 예, 진행 중이시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것은 안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최민희 위원** 아니요, 답변이라고 왔기 때문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니라서……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회의가 열리니까 우선 그렇게 드린 모양인데……

○**배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계속해서 배재정 위원 질의하셔야 돼요.

○**배재정 위원** 저 할까요?

먼저 사장님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통상 외주제작사 드라마 편성 경위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외주제작사 측의 기획서가 오면 드라마기획회의를 통해서 편성 여부를 논의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사장은 어느 정도만 아나 하면 편성제작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 올라오면 되는데

외주제작 편성회의라는 것은 그 밑의 단계의 한참 전 단계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제가 잘 모릅니다.

○**배재정 위원** 프로세스를 잘 모르세요? 그러면 어느 분이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것은 드라마국장이나 콘텐츠본부장이나 들……

○**배재정 위원** 그러면 콘텐츠본부장님 나와 주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드라마국장이 더 정확한 걸 알 겁니다.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편성 과정을……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렇지, 외주제작 편성.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저희 드라마국에는 기획회의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예, 제가 그것을 여쭙어 보는 건데요. 기획회의를 하고 편성 여부를 결정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예.

○**배재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강철왕’과 관련해 기획회의 언제 하셨어요?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6월 달에 한 것으로……

○**배재정 위원** 어느 6월에 하셨지요? 올해 6월에 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올해 6월입니다.

○**배재정 위원** 그런데 편성의향서는 어떻게 지난해 3월에 벌써 보내셨어요?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편성의향서는 편성이 결정됐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편성할 의향이 있음’입니다.

○**배재정 위원** 아니요, 제가 다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제가 PD 분들한테도 다 확인을 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드라마기획회의도 한번 안 하고 편성의향서 먼저 덜렁 주는 것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답변이 일반적인 거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게 아니고 사장님한테 진짜 책임을 여쭙어

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외주제작사한테 편성의향서를 기획회의 한번 없이 덜렁덜렁 보내면 그 지자체가 그대로 그것을 근거로 받아서 투자 결정을 합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어떻게 정상적이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강철왕’ 외주제작사인 강호프로덕션,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에도 가입해 있지 않고 독립제작사협회 회원사도 아닙니다. 게다가 알아봤더니 드라마 제작 경험도 전무해요. 이런 곳에서 기획을 해 오니까 덜렁 편성의향서부터 지자체에 다 보내시고 KBS 관계자가 현장 방문까지 합니다. 이게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하는 공영방송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세요?

뿐만 아니라 KBS 편성제작국 직원들한테도 모든 것이 비밀리에 진행됐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포항에서인가 제작발표회 이런 것을 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알았고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팩트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라마는 소재만을 보고도 결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편성을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기획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과연 편성의향서를 떼어 줄 만한가……

○배재정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기획회의를 올해 6월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획회의도 하기 전에 1년 반 정도 전에 편성의향서부터 온갖 곳에 다 보내는 게 말씀이 되세요?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아니, 기획회의에 상정하는 요건은 기획안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대본 1, 2회를 만들어 왔을 때 기획회의에 상정하는 거고요. 지금 ‘아이리스’……

○배재정 위원 그러면 대본도 제대로 없을 때부터 지자체에 편성의향서를 보내면 그 지자체에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KBS 관계자가 방문을 하고 편성의향서가 KBS 이름으로 공문이 날아왔어요. 그러면 ‘아, 당연히 이것을 KBS가 만드는 모양이다’ 하고 포항시하고 경북도가 투자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 상당히 잘못된 게, 대선 일정이 언제 정해졌습니까? 우리 올해 12월에 대선한다는 것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지난해 3월 말일자 편성의향 통보 공문에서 방영예정일을 2012년 상반기로 적시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아까 그러셨지요, 올해 안

에 안 한다고.

뿐만 아닙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강철왕’이 올해 12월 방영되는 것으로 알고 지원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지자체 우롱하시는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제작사가 ‘2012년 상반기에 하고 싶다’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의향서를 좀 떼어 달라’ ‘그러면 그때까지 준비가 가능하겠느냐?’ ‘가능하다’ ‘그러면 한번 준비를 해 보라’라는 뜻에서 의향서가 나간 거고요.

본인들이 준비를 하다가 역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날짜를 연기해 달라 그래서 뒤에 가을에 편성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편성의향서를 가을로 해서 떼 준 거고요.

그때 유가족들이 이게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본인들도 원치 않아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그러면 우리도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면 대선 끝나고 나서 방송을 하시오’라고 해서 저희가 편성의향서를 내년 초로 다시 떼 준 겁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KBS의 일방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는데요. 지자체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자체의 입장에 대해서, 지자체의 공무원이 한번 되어서 생각해 보세요. KBS에서 덜렁 편성의향서까지 다 보내 주고 거기에 맞춰서 다 투자 계획을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예산까지 집행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KBS에서 또 다시 ‘편성, 우리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러면 지자체는 그것 홀랑 다 뒤집어써야 되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위원님, 저기……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내가 말씀드릴게요.

편성의향서가, 지금 편성의향에 대해서 곡해가 있는데 편성의향서는 다 문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지만 최종적으로 편성제작회의에서 편성이 되어야지만 방송이 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편성의향서를 받고 방송이 못 나가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발간 안 하면 외주제작사들이 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외주제작사의 지원 방안으로 웬만하면 의향서를 발급해 주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배재정 위원** 그러니까 강호프로덕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 제작 경험도 한 번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덜렁 이렇게 쉽게 쉽게 편성의향서를 내 보내 주셨다가 거기에 따른 피해는 KBS에서 안 지신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올해 방영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면서 자정능력을 믿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배재정 위원** 예, 믿고 싶습니다. 믿게 해 주십시오.

다만 제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정말 우려가 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미래 권력에 대해서 잘 보여서 자리를 보전하시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는 겁니다.

사장님 올해 말 아까 임기……

1분만 더 주십시오.

올해 말 임기가 다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연임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이길영 감사님은 이 사장 되시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KBS가 망가져도 상관없는 건지 그리고 KBS 편성제작국 직원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고 그러면서 정작 KBS 관계자가 포항까지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사장님께서 오전에 질의·답변 하시면서 대통령들을 차례로 조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의문이 드는데 군사 독재정권으로 쿠데타 일으키고 광주학살 자행한 전두환·노태우 대통령도 기리는 다큐멘터리와 드라마 제작하시겠다는 뜻인지, 특히나 드라마는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특성상 주인공이나 주요 배역에 대한 미화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 사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명박 대통령이 주인공으로 나온 KBS 드라

마 ‘야망의 세월’ 국민들이 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철왕’은 올해 안에 못 나가는 것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이게 지금 답답한게 드라마 기획회의에서 뭐 하더라도……

○**위원장 한선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방송사에 좀 있어 봤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못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리고 최종적으로 편성제작회의에서 그런 것을 다 걸러냅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러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아까 사장으로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것을 보고 받았습시다마는 만약에 이게 작년에 나갔다,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올해 이런 대통령선거 앞두고 나갈 수가 없어요. KBS가 그 정도의 자정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배재정 위원** 믿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중복돼서 이제 그 질의는 뺐으면 해서 다시 한번 내가 질문을 했고, 조해진 간사 질의하시지요.

○**조해진 위원** 김인규 사장님!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조해진 위원** 저는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고 또 가급적 빨리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문방위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문방위 업무와 관련 없을 때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왜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보니까 결국은 현실적으로 국회의 여야가 동의가 안 돼서 그렇겠지만 국회의 여야가 동의 못 하는 더 큰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부담을 지고 그것을 못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될까,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한두 가지 정도 요인이 아닐까. 첫째는 KBS가 어쨌든 국민의 방송을 지향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우리의 방송이다, 우리를 대변하는 방송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하는 그런 의식이 아직 성숙이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그 하나하고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KBS가 굉장히 경영이 방만하다, 인력이 필요보다도 많고 또 급여가 과다하다 이런 지적들이 그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국민이 주인으로 여기는 방송이나 아니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여론이 썩 갈리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은 KBS 조직은 정부가 설 때마다 그 정부에서 보내는 사람이 경영진이 된다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또 반대로 KBS는 기자들이 주도하는 좌파방송이라고 보는 관점,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립하는 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KBS가 정치적으로도 독립돼 있고 중립적이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국민을 우선하는 또 우리를 대변하는,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책임지고 가꿔야 될 방송이다 라는 의식을 갖도록 해 주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경영 개혁 그게 관건이 아닌가 싶은데 그에 대해서 사장님의 복안은 어떤 것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부분은 지난해에 수신료 인상 때 여러 차례가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한 1000원 정도 인상에 대해서는 한 3분의 2 정도가 동의를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물론 민주사회라는 건 다양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분도 한 3분의 2 나왔고 1000원 정도 인상에 대해서는 3분의 2 정도가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자들이 KBS를 보면서 KBS 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수신료를 내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사실 KBS가 중요한 게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신뢰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신뢰도가 한 3년째…… 상대적인 것이지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신문·방송 다른 매체보다는 제일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을 지금 KBS로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도를 높이는 데 상당히 충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사실 수신료 인상이 안 되는 가장 큰 이

유는 정파적인 시각이 수신료 인상 결정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당이 바뀌면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던 쪽도 반대를 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 18대 국회 마지막에 수신료 인상안이 처리가 안 되면서 여야 원내대표끼리 사실은 합의를 본 게 ‘그렇다면 과거에 국회에서 추곡수매가 때문에 매번 시끄럽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수신료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는 게 어떠냐, 독일의 KEF같이? 수신료산정위원회 구성방안이 하나의 좋은 절충안이다’ 이렇게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일부 법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KBS의 지배구조가 독립성 확보와 함께 재원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수신료산정위원회 구성문제를 방송법에서 같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사회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장이나 이사장이나 감사나 이런 KBS를 이끌어 가는 주요한 직책들은 KBS 이 큰 조직 내부의 복잡다단한 메커니즘이나 흐름이나 그런 것을 소상하게 잘 아는, 경영의 실태나 또 히스토리까지 잘 아는 또 개개인의 면면까지, 역량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분이 오면 임기 3년 중에 1년은 공부하다가 수습하다가 다 지나가고 내용도 모르고, 겨우 1년 정도 일하고 나머지 1년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면 또 같은 출신이기 때문에 이 큰 조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변화시키고 쇄신시키는 데 내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직의 출신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앞으로…… 아까 야당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임에 관한 논의도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복안과 비전 제시가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소신·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KBS의 개혁을 위해서는 KBS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신속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논리도 있고요. 또 내용은 알지 못하고 개혁을 하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지요.

제가 아쉬운 것은 아직 우리나라의 방송정책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유료방송과 무료방송의 구성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전혀 사회적 공감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공영방송의 개혁도 지금 중요하지만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송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개혁이라는 측면으로만 보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친소관계가 없는, 방송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물론 빠른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조해진 위원** 그런데 그런 분이 들어와도 결국은 자기 뜻대로 뭘 하려고 하면 안의 어느 세력하고 결국 손을 잡더라고요. 파벌이 만들어지고……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물론이지요. 그런 것에 저항은 상당히 있겠지요.

○**조해진 위원** 이길영 감사님,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2010년도에 감사에 임명되셨을 때 언론노조하고 KBS의 노조위원장 그리고 같은 이사회 의원이었던 야당 추천의 김영호 이사 이 세 분이 자격이 없다고, 방송법상 법적 자격이 없다고 취소소송을 내서 2개는 각하되고 하나는 기각됐는데 그 판결문을 보면 야당 추천의 김영호 이사라는 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길영 감사님이 당원 당적을 가진 것으로 오해해서 잘못 알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것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정확한 것은 당의 선대위원장을 했다 하더라도 당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판결입니다.

○**조해진 위원** 판결취지는 그런데 취소소송을 낸 야당 추천 이사 분의 취지는 보면 당원이었던 것으로 오해하고 계세요. 당적을 가진 것으로 오해하고 계셨던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그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법정에서 항소까지 했습니다. 항소이유를 내라고 했을 때 원고 측 변호사는 항소이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개인의 신상문제나 인신 공격적 발언만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송 제기 자체가 감사 임용의 결격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정치성이 있었던 것으로 법정은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앉으시지요.

계속해서 민주통합당 윤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관석 위원** 인천 남동구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이길영 감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대위원장이라는 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선대위원장이 됩니까? 더군다나 도지사선거 때 선대위원장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것 웬만한 사람들이 못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더군다나 기자도 오래 하시다 도지사랑 광역단체장 선거운동 하는데 선대위원장을 해서 아까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중요하신 분들하고 촬영까지 했는데, 대부분 다 당적을 가졌거나 또는 적어도 당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뛰는 사람으로 선대위원장을 임명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당연히 정당인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정치행위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선대위원장직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한데 사실은……

○**윤관석 위원** 특정한 후보를 위해서 뛰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치경험이 없고 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이름만 갔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활동은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윤관석 위원** 물론 일은 밑에서도 많이 했겠지요. 그런데 특정한 당에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후보를 위해서 댄 것 아닙니까, 이분 위해서? 그것이 2006년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2008년도에 관련해서 그 기관에 나가셨고 이렇게 하는데 KBS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책임져야 될 이사로서의 자격이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자질문제가……

○윤관석 위원 ‘정당법에’ 이런 것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공정성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약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윤관석 위원 특정한 분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게 공정하다고, 사람들이 시간이 좀 지났다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스스로 생각하셔도?

우리가 비슷한 인사청문회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도 그랬고 얼마 전에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재우 이사장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어 왔는데, 오전 내내 또 오후에 우리 존경하는 문방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과거의 그런 정치적인 편향 경력 그리고 군사 정권하에서 땀 전뉴스와 또 최근의 비리 감사 그것까지 다 지적을 받고 계시고 또 학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학력문제도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증자료 갖고 다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 몇 가지만 봐도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꿈도 꾸지 못하는데, 더욱이 현역인 KBS 감사로서 업무가 아직도 한 4개월 가까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사로 다시 지원해서 신청해서 하신다는 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타당한 것입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세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서. 이유가 타당하면 우리 위원들이 동의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한번 해 보세요, 그것 갖다가. 감사로서는 KBS에 기여하는 게 도저히 안 됩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타당한 이유를 설명드리기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윤관석 위원 어쩔 수 없는 새로운 권력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아닙니다. 결격사유가 없다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관석 위원 일각에서는 지금 KBS 김인규 사장님은 현 권력이고 우리 감사님은 신 권력이다 이렇게 미래권력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동의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상당 부분 오해인 것 같습니다.

○윤관석 위원 문전성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윤관석 위원 하여튼간 제 생각에는 임기를 적어도 마무리하고 그 이후를 도모하는 게 상식인 것입니다, 인사라는 것들이.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다른 모종의 어떤 그런 관계나 또는 지시에 의해서 한나라고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진정으로 KBS를 위한다면 지금 이사 신청 들어간 거 다시 철회하시고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KBS 사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을 때, 6월 5일 날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윤관석 위원 ‘왜 그것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느냐’ 했더니 당시에 소위 ‘새 노조(언론본부)랑 했고 여기 다른 또 노조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하셨는데, 그런데 그 합의는 흔히 말하는 새 노조(언론본부)하고 한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했는데, 다른 노조를 또 얘기를 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하시면 이게 형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때 합의할 때, 아까 말씀하신 새 노조는 소수 노조고 다른 노조가 다수 노조입니다. 그러니까 다수 노조하고 이게 합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윤관석 위원 합의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물론 합의서에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위원장이 저쪽 다수 노조하고 합의를 봐 가지고 숫자까지 5 대 3 대 2로 하겠다고 약속을……

○윤관석 위원 구두합의하신 겁니까, 그것은?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윤관석 위원 이면합의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뭐 어떤 쓴 게 아니라 구두로 이렇게 합의를 했지요.  
 ○윤관석 위원 구두로 '다른 노조하고 같이 합의해서 온다' 이거 확실한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럼요.  
 ○윤관석 위원 그래서 합의문 외에 구두합의가 있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러니까 합의를, 맨 처음에 이 문제가 논의될 때 'KBS로서는 노조가 2개니까 한쪽하고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하겠다', 숫자는 예를 들자면 10명이면 사 측이 다섯 그다음에 세 사람……  
 ○윤관석 위원 그러면 다른 노조하고도 또 다른 합의를 하신 게 있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어떤 게요?  
 ○윤관석 위원 지금 새 노조 말고.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제가 알기로는 이쪽 위원장하고 저쪽 위원장하고 만나서……  
 ○윤관석 위원 아니, 사 측하고.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사 측하고요? 사 측하고는……  
 ○윤관석 위원 다수가 저쪽 노조인데 새 노조하고만 합의문을 만들면 저쪽에서 당연히,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기본 노사관계인데 다른 합의를 한 게 있냐고요, 그쪽하고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래서 얘기가 됐고, 저렇게 했는데 동의를 했지요.  
 ○윤관석 위원 당시에 언론본부(새 노조) 말고 다른 노조하고 합의문을 또 만들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다수 노조가, KBS 노동조합이 동의를 했지요.  
 ○윤관석 위원 동의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윤관석 위원 이 합의서에 동의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동의한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러니까 대선공정방송위원회 구성……  
 ○윤관석 위원 대선공방위 구성에 대해서 합의하고……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것을 노조위원장끼리 합의를 했어요.  
 ○윤관석 위원 새 노조하고는 이 합의문을 만들고 나머지는 구두합의를 한 거고, 그다음에 다른 노조하고는 또 다른 합의를 만들었습니까, 그

런?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안 만들었다니까요. 안 만들고, 두 노조위원장이 같이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듣고 한 거지요.

○윤관석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실무협의로도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냥 노조끼리만 안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사 측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오늘도 논의하고 있고 내일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윤관석 위원 '실무협의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윤관석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의해서 시간이 한 달 가까이 지금 가고 있고 대선으로 치면 3개월 2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4개월이 안 남은 상태입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래서 대통령선거 방송 관련해서는 대선공정방송위도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진실검증단도 발족을 했고 정책검증단도 발족을 했고 다 차례대로 가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TF 만드신 것은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대선공정단도 빨리 합의사항대로 만들어서, 아까 강철왕이나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제기받고 있는데 그게 다 '대선을 겨냥한 거다'라는 의혹 때문에 더 커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조와 합의했던 공정단도 조속하게, 노조에만 맡기지 말고 사 측에서 공정방송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갖고 추진하시기를 강력하게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대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대출 위원 경남 진주갑 출신 박대출입니다. 이길영 이사 추천자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때 김관용 경북도지사 후보 선대위원장 맡으신 적 있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리고 2010년 7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게 있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 내용이 됩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2010년 1월 19일로

저는 기억합니다. 당시에 본부노조……

○**박대출 위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짧게 그 판결만 상기시키고 지나가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경력이 KBS 감사 선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맞습니다.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다 정리가 된 사안이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박대출 위원** 그 점 제가 상기 먼저 시켜 드립니다.

지금 이사 추천자께서는 언론인 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저를 추천한 사람 말씀입니까?

○**박대출 위원** 지금 감사님 명칭이, 감사를 사표 내시고 해서 제가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사 추천자라고 부르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아직 감사입니다.

○**박대출 위원** 아직은 감사십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만 46년째입니다.

○**박대출 위원** 40년 정도면 지금 알고 계시는, 그동안 알아 온 KBS 후배나 아니면 언론계 선 후배들이 대충 몇 명쯤 된다고 보십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정확히 숫자로 셈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박대출 위원** 그냥 열심히 하시다 보면 수백명, 수천 명은 되겠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기자들까지 하면……

○**박대출 위원** 그런 선후배들이 각기 각 분야에 다 포진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지금 여당 후보의 캠프에도 들어가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야당의 캠프에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KBS 뉴욕특파원 출신도 지금 야당 후보의 캠프에 가 있고 그리고 MBC뿐만 아니라 한겨레, 동아, 언론재단, 서울신문 그리고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새전북신문 이런 다양한 언론인 출신들이 지금 야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습니다, 경선 선거운동에. 그러니까 예외 없이 문재인 후보, 김두관 후보, 손학규 후보 다 마찬가지로

모두로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민희 동료 위원께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신 분을 지적해 가지고 ‘어떤 부당한 게 있지 않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 이 감사께서 ‘KBS 보도에 부당한 개입을 하거나 관여를 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의심을 하고 어떤 정치공세성 발언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면 문재인, 김두관, 손학규 후보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실제 김 모 씨는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전화 한 통화 한 일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박대출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12월 대선에 여야가 공정한 게임을 하려면, 선거 경쟁을 하려면 유력 후보 그리고 상대당 유력 후보에 대해서 아무 때나 갖다 붙여서 흠집 내기를 하거나 트집 잡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정치공세이자 우리 여야 간의 서로 정치 금도를 벗어난 게 아닌가 하고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공감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공감합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여야 대선 국면이 격화되다 보니까 정치공세성 발언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한때는 심할 정도로 느껴져 가지고 ‘배탈이 나도 박근혜 때문에 배탈이 나고’ ‘걸어가다가 넘어져도 박근혜 때문에 넘어진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고 하는 그런 국회를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전적으로 공감드립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대출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충고를 주셨습니다. 많은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지역감정을 부추긴다거나 특정 정치인을 위한다거나 또는 제 행적에 대해서 위증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공정보도에 각별히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민 위원 질의하실까요?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신경민 위원 하시기 전에……

○위원장 한선교 신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희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먼저 질의하세요.  
나중에 드린다니까.

○신경민 위원 이어서 아까 질문 못 드린 것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신 걸 보면 60년에 대구상고가 아니고 대신고를 졸업하셨고, 64년에 총무처, 65년 문공부, 65년 중앙농민학교 이렇게 되어 있고요. 66년에 KBS 기자, 도대체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 가시고요 경력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중앙농민학교입니까, 국민산업학교입니까, 국민대학입니까? 왜 웹사이트마다 다 다르게 그렇게 기재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여튼 공적인 경력하고 학교하고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은 65년에 중앙농민학교라고 하셨지요? 갔다가 2년을 다녔다고 그러고, 그러면 나머지 2년은 언제 다니신 거고, 뭐가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됩니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다 기록한 사이트일 텐데 이것도 왜 뒤죽박죽이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년도에 총무처가 아닙니다. 총무처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것이 제가 공인으로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65년부터 중앙농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때 문공부로 또 가셨다면서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문공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1년 8개월간요.

○신경민 위원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다니고 직장은 어떻게 다니고……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때 제가 다닌 학교가 학력과 학점을 인정해 주는 각종학교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정규대학 수준은 아닙니다.

○신경민 위원 그러면 대학은 언제 나오신 겁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71년도 제가 마쳤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언제 입학해서 언제 졸업하셨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중간에 2년 휴학이 있었습니다.

○신경민 위원 아니, 각종학교를 들어가서 대학으로 졸업하신 거예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대학원은……

○신경민 위원 아니, 대학원은 저의 관심사항이 아니고요. 대학원은 뭐 박사를 하셨건 석사를 하셨건 지금 관심사항이 아니고요.  
대학하고 사회 경력이 왜 뒤죽박죽입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KBS에 기자로 근무한 기간하고 문공부 근무한 기간하고 공부를 한 시점이 같습니다. 그게 같이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리고 KBS 기자가 아니고 보도국의 자료정리요원으로 들어갔다는 그 당시 동료들의 증언이 있는데……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자료정리요원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66년도 5월 달에 여기 올 때는 KBS 기자였습니다.

○신경민 위원 어디 출입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1년간 편집부에 있었고요. 그 후에는 한국은행과 정부를 출입했습니다.

○신경민 위원 하여튼 이 공적인 경력하고 학교하고, 도대체 학교가 또 어느 학교인지 들어간 학교 나온 학교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학교가 변경이 되고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 가시고, 도대체 이 감사님의 경력은 하나도 명쾌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생 전체가 미스터리고 대단한 성공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가 KBS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KBS 다큐팀들한테 ‘나는 어떻게 석세스 했는가’라는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그렇고요, 이것은 하여튼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좀 명쾌하게 알려 주십시오.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서류로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서류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직을 유지하면서 KBS 이사를 신청한 인물이 선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누굽니까? 언제 누굽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감사직으로 있으면서 이사로 간 경우는 선례는 아닙니다.

○**신경민 위원** 선례가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알기로는 강동순 감사가 당시에 방송위원으로 간 걸로 기억합니다.

○**신경민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 감사께서 최초라고 얘기할 수 있군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이사로 가는 것은.

○**신경민 위원** 도대체 법률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차라도, 미리 감사사표라도 내셨던 것이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에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걸 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KBS 후배들의 ‘부끄러운 선배 5인방’에 당당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민 위원** 그것을 아시긴 아시는군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러면 ‘자랑스러운 선배’에도 들어가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전인미답의 경지를 가진 거고 석세스 스토리의 주인공이다라는 점에서는 자랑스러운 선배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

○**신경민 위원** 제주총국 사건 기억하시지요? ‘제주 사연’이라고 그러는데 이 제주 사연이 제주총국 간부들의 조상으로 사연을 구성해 가지고 외주제작사 심사도 허위였다는 거 이거 감사해서 가지고 징계하기로 된 것 전부 다 환원조치해서 징계를 거의 안하신 거 기억하시지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 사건은 저희가 감사를 해서 집행부에, 인사위원회로 넘긴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경민 위원** 아니, 감사 대상인데 감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억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어떻게 KBS 감사도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 공직으로 나를 불태우겠다’고 당시에 심사위원들한테 KBS 이사회에 읍소를 하셔서 놓고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주 사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체 감사 케이스가 아닌 걸로……

○**신경민 위원** 기록에 있습니다. 기록에 있어서 제주 감사는 전혀…… 청원경찰 사건 기억하시겠습니까? 이거 같은 겁니다.

청원경찰 사건으로 전부 다 징계하고 파면하고 고발하기로 한 것 전부 다 따듯한 마음으로 삭감해 주시고 지금도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셨는데, 제주총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배풀어 주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통위 부위원장께 여쭙겠습니다.

김재우 이사장으로 선임됐다는 뉴스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길영 이사도 되면 이사장이 되실 거고요. EBS, 제가 시간이 없어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땅을 사랑한 이춘호 이사장 해 주셨고, 왜 그렇게 방통위가 관련되는 데는 여러 재재다사 많은 우리나라 인재들을 다 버리고…… 표절은 지적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이길영 이사장 후보는요 정치적으로 양심불량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재재다사들을 다 놔두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만 골라서 이사장 내지 이사로 하시는지, 도대체 기준이 됩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아시다시피 이사 선임은 결격사유라든지 이런 것 또 각 분야의 대표성이라든지 그런 거 확인한 후에 상임위원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사장은 뭐 어차피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거니까요.

○**신경민 위원** 그 정도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표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절을 한 사람은 방문진이나 KBS 이사를 하는 데 전혀 결격사유가 아닙니까? 지적 사기꾼이라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제가 알기로

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그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민 위원** 그것은 방통위원장하고 견해를 같이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저희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경민 위원** ‘법률 요건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 사기꾼은 이사도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저희 규정과 관련해서는……

○**신경민 위원** 규정은 하여튼, 형식적 합법성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방문진 이어나 KBS 이사는 표절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세계만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광고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한선교** 방통위 때도 그러한, 표절이 아직 판정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한 질문이 나왔는데 아마 그 전후에 대한 고민들은 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석기 위원 안 계시고……

○**최민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1분 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제가 이길영 감사님과 그다음에 김병호 공보단장을 연결해서 여쭙어 본 것은 지금 나온 거와 관련해서 보면 정말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고 이게 유주열 서스펙트(usual suspect), 뭐 어쨌든 저로서는 이상한, 학력도 뭔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으시고 감사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막 감사 하시면서 또 이사 지원하시고 왕사장으로 군림하신다는 소문도 돌고, 그래서 혹시 공보단장이신 김병호 과거 정치부장과 통화했나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이 질문한 것을 왜 그렇게 또 역으로, 말하자면 우리 결산보고 심사 대상기관 앞에서 지금 정파적으로 모시는지 불쾌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누구나 다 이해했을 겁니다.

박대출 위원은 발언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병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병완 위원** 김 사장님, 사람 살아가면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는데, 소송이라

는 게 사실은 여러 당사자들 간에 해결 하다 하다 안 돼서 마지막으로 하는 최후의 방법 아니겠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장병완 위원** 그런데 특히 공영방송인 KBS가 같은 다른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을 하고, 또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사내의 구성원으로부터 많은 피소를 당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KBS의 경영이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 것을 지표로서 좀 나타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외부에서 KBS의 경영과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하면 정말 우리 KBS 운영에 좀 문제가 없는가 자성을 해 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먼저지, 덜컥 외부 언론기관과 소송부터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특히 내부 구성원들과도 대화하고 그 주장하는 내용 중에 받아들일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을 다 하나 하나 최대한 이렇게 짚어 보는 것이 공영방송, 특히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 결산 결과를 보면 소송비용이 당초 예산보다 한 2.6배, 제작년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한 3.8배로 예산보다 실집행금액이 그렇게 늘어났어요.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소송 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KBS가 자체적으로 원고가 돼서 수행한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총 원고·피고 건수를 다 합친 소송 건수는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원고로서 수행한 건수가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변호사 비용들이 늘어나고 해서 지금 소송비용이 증가가 된 거란 말이지요.

그것 보면 대부분 앞서 말한 대로 타 언론사들이 KBS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이 좀 잘못됐다 해 가지고 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 2건이 패소됐고 2011년도에 일부 승소한 것을 빼 놓고 패소가 1건 있고 나머지 2건이 사실상 지금 패소가 거의 확실시되고 작년도에도 2건을 고소를 했는데 진행 중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실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KBS가 사실 과연, 다른 국내 언론사들이 KBS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KBS 내부에 문제가 없는가 자성을 해 보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또 패소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도 낭비를 하고 KBS 위상도 또 실추되고 그런 것 아니냐..... 만약에 순수하게 진짜 보도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먼저 제소를 했어야 하는데 그쪽은 아니고 이렇게 잣단 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우선 타 언론사하고 송사 부분은 일차적으로는 다 언론중재위에 중재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에 신청을 해서 중재 조정이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우리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봤는데 이것은 분명히 사실과 다른 오보에 의해서 할 때만 언론중재위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정정보도를 요청해서 사실상 정정보도를 받아들여서 조정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을 경우, 결렬이 됐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소송으로 넘어가셔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년에 보통 소송이 돼서 한 2건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건은 KBS가 승소를 했고 1건은 지금 진행 중이고 1건은 곧 결정이 나겠습니다마는 승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것, 질 것을 떠나서 KBS의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 보도가 돼서 KBS의 결정적인 명예가 훼손됐을 때는 그것은 사장이 해라, 안 해라의 차원을 떠나서 KBS의 시스템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언론중재위에서 매듭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될 경우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적인 게 있는데 사장으로서도.....

○장병완 위원 됐어요. 사장님, 충분히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렸는데, 작년에 소송한 건 중에서도 지금 3건이 KBS 도청 관련 사건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장병완 위원 그러면 우리 당에서 KBS 도청 관련해서 이미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사실은 소송을 하거나 이런 것을 했어야 할 텐데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소송을 바로 진행을 해 가지고 이미 지금 1건이 패소를 했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아니지요.

○장병완 위원 2건은 아직은 진행 중이지만.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는 이 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KBS가 국민들이 KBS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 상관없이 일단 먼저 KBS가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그 자체를 먼저 하기 위해서 사실은 소송부터 진행해 보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무리하게 소송비용도 급증을 하고 그런단 말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그런데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토론을 한참 벌입니다. 한참 벌여 가지고 이게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법무실, 홍보실, 정책본부 측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조정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절차가 가는 거지요. 그냥 무조건 그게 소송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병완 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더 이야기를 해 보시자는 이야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지금 장 위원 말씀하신 것 취지를 잘 알아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지요. 그리고 아까 노조와의 관련도 총 4건인데 2건은 노조가 사 측을 제기한 거고 2건은 사 측에서 노조를 제기한 겁니다. 2건, 2건. 이것도 잘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장병완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서면질의 할 테니까.

○위원장 한선교 예, 진작 드릴 걸 그랬네.

.....

○장병완 위원 아직 제가 노조와 관련된 질문은 구체적으로 안 하고 건수만 아까 잠시 언급을 했는데 그것 노조와 관련된 것입니까? 전부 다 부당노동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 지금 패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말이지요. 건 자체가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금 패소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이 소송 자체가 제기하지 않았어야 할 소송을 제기했던 거고 지금 새 노조냐 뭐냐 이것을 떠나서, 패소 사유가 뭔지 알아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단체교섭 요구 거부, 부당한 징계' 이 세 가지 유형입니다. 그러면 제가 김 사장님께 예의를 다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소송으로 가지 말고 사내에서 잘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 입장을 충분히 살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셔야지……

○**위원장 한선교** 감사합니다.

노웅래 위원 하십니까?

○**노웅래 위원** 노웅래입니다.

이길영 감사님 마이크 좀 잡으실까요.

이길영 감사님, 아까 회의 때 ‘2005년도에 대구상고 명예졸업장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05년인지 04년인지 그렇습니다. 받기는 받았습시다.

○**노웅래 위원** 05년인지 04년인지, 그러니까 2004년이나 2005년에 받으신 거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노웅래 위원** 그러면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대구상고 홈페이지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1960년 졸업, 32회 졸업생’ 그리고 임원으로 ‘부회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이길영 감사님이시고요. 총동창회 명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960년 졸업, 32회 졸업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혹시 착각할까봐, 이길영 감사님이 그러셨을까봐 그러면 총동창회 명부도 매년 나오기 때문에 그 전 것을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03년도 것을 봤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러면 명예졸업장 안 받았으니까 30회도 아니어야 되지만 2003년도에 총동문회 명부에 ‘이길영’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명백하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시는 거고요. 더 한번 해 볼까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위원님, 제가 말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한선교 위원장, 조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노웅래 위원** 이제 드릴게요. 나 혼자 하면 거짓말이라고,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84년도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84년 10월호 경향신문에서 발행한 겁니다. 월간 정경문화 10월호. 이걸 한번 볼까요. 누가 썼냐 하면 이것은 대구매일신문의 서울지사장인 송인식이란 분이 이것을 쓴 건데요.

(책을 들어 보이며)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길영’ 해서 여기는 ‘대구상고 32회 졸업생, KBS LA 특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길영 감사님 말씀을 백번 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다 하더라도 2003년 총동창회 명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 거며, 84년 경향신문에 나온 이 목록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 부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웅래 위원** 지금 저 쳐다볼 수는 있으신 거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렇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노웅래 위원** 양심의 가책 안 느끼십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무슨 사유로 받으셨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위원님, 제가 대구상고에 학적이 없습니다.

○**노웅래 위원** 당연히 없지요. 안 다녔으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런데 32기가 저하고 학교가 같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웅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예졸업장 받으셨다면서요. 그런데 32회 졸업생 아니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적어도 제가 대구상고 학교를 팔고 사칭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노웅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32회 졸업생 맞아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32회 졸업 동기들이 제가 많습니다. 친구들 많은데 대구상고 졸업한 일 없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학력 사칭을 하신 거잖아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 의사하고 상관없어……

○**노웅래 위원** 84년도에 나온 책, 그러니까 전두환 쿠데타 이후에 그때 이후에 대구 사람이면 좀 재미 볼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지금 죽 대구상고 이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대구상고에 학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노웅래 위원** 좋습니다. 어떤 사유로, 무슨 근거로 명예졸업장 받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명예졸업장이나 명

예학위라는 건 대학에서 주는 거잖아요. 명예학위, 명예석사, 명예박사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고등학교에 명예졸업장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받았습시다.

○노웅래 위원 그리고 만약에 명예졸업장을 받았다고 그런다면 학교를 다니던 사람이나 이런 거지 지금 생판 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받았다, 그러면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학교에서 정식으로 저한테 주었습니다.

○노웅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았어요? 이거 전달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졸업식장에서 받았습시다.

○노웅래 위원 누구한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학교 교장으로부터요.

○노웅래 위원 교장이 누구예요, 이름이?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이름은 지금 기억 못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게 뭐예요. 언제 받았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게 2005년인지 2004년인지 그것은 정확치 않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84년 자료 2003년 총동창회 목록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정확히 말씀드리면 32기하고 저하고 친구들이 많아서……

○노웅래 위원 친구들 많으면 본인이 학력사칭 해도 되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서울에 있는 낚시모임을 한번 갔었는데 그 낚시회 이름이 재경동문회 이름으로 올라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만하세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적절치 않은 부분은……

○노웅래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아니, 그러니까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노웅래 위원 기자 선배 아니세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노웅래 위원 기자 선배지요? 기자 아니예요? 기자 출신이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맞습시다.

○노웅래 위원 에이 여보쇼! 혀를 깨물겠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소명하는 말씀은 전혀 이해를 안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노웅래 위원 소명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대구상고를 사칭해 가지고 사회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명예를 얻거나 덕을 본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노웅래 위원 학력사칭, 병역 허위기재 그리고 부정청탁 그리고 특정 정당에 연루돼서 활동, 이렇게 하고도 공영방송의 도덕성, 공영방송의 중립성 할 수 있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위원님, 병역 허위기재 그것은 정정하셔야 됩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속기록을 위해서 정정을 해 주십시오. 저는 병역 허위기재 한 적 없습니다.

○노웅래 위원 본인이 불리한 것을 거기다 기재 안 했는데 그러면 허위기재가 아니고……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불리한 것을 기재하지 않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노웅래 위원 평발만 기록했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선……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평발이면 군대 면제입니다.

○노웅래 위원 심신장애라든가 안 넣었잖아요. 그렇게 해 놓으시고……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위원님 저한테 심신장애라고 하면 현저한 명예훼손입니다.

○노웅래 위원 거기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역기록부에.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심신장애 또는 평발이라는 조건이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심신장애는 저하고 해당이 없는 부분입니다.

○노웅래 위원 거기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역 기록에.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병역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본인이 그래도 지금 하나도 거짓말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없습니다.

○노웅래 위원 예?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병역관계 특례

처분은……

○**노웅래 위원** 명예졸업장 갖고 있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가지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지금 어디 있어요? 오늘 중으로 가져오세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학교에서 확인하면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역관계는 정정해 주십시오.

○**노웅래 위원** 명예졸업장 오늘 중으로 갖다 주세요, 사본.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병역관계는 오늘 드릴 수 있는데 명예졸업장은 오늘 가져 올 수 있을지……

○**노웅래 위원** 병역기록은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거기에 보시면……

○**노웅래 위원** 거기에 ‘평발’만 있는 게 아니고 ‘심신장애’가 있는 거예요, ‘심신장애’가.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심신장애’라고 위원님이 그러면 저한테 현저한 명예훼손입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법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법대로 하는 데이기 때문에.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법률적 조항이 분명히 심신장애와 다릅니다.

○**노웅래 위원** 내가 감사보다 나이가 적어요. 나이가 적지만 지금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 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그래서 제가 존경해서 답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노웅래 위원** 그런데 정말 뻔뻔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위원님, 저를 심신장애자라고 하면 그것은 괜찮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웅래 위원** 병역기록부에 그렇게 돼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률적 관계가 심신장애 또는 별항으로서의 평편족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노웅래 위원** 방통위원장님, 이것 조사하고 조치하세요. 분명히 조사하고 조치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해진** 노웅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는데, 출석해서 답변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덜 힘들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새누리당의 박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식 위원** 박창식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야 될 내용도 아니고 그냥 평소에 사장님이 한류나 드라마에 대한 지론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거랑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입니다.

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도 필요하지만 합리적인 제작비 지원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돼 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간접광고라는 어떤 법도 만들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자막 협찬도 방송사나 외주사가 같이 하게 돼 있고, 결국 이게 제작비가 소위 말해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뺏어야 되는데 방송사의 광고료나 이런 것들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간접광고를 통해서 자막 협찬을 위한 어떤 외부의 자금을 좀 끌어들이기 위한 부분이지요. 그러다 보니 작가나 연출자들이 사실은 그런 어떤 간접광고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해 주기 위해서 작품에 스크래치가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게 방송사, 방통위, 문화부 전체가 사실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표준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 이 부분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작가 개런티나 배우 출연료도 아시겠지만 일본에 비해서 저희가 받는 것은 많게는 한 5배 이상씩 주인공이 받아가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불을 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 사실은 한류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동을 다들 못 걸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묵묵히 일하고 있는 한 2000여 명 되는 연기자들이, 사실은 엄청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하고, 한 200명 정도 되는 배우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지금 드라마, 특히 연기자들의 임금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제대로 합리적으로 되려면 고액 출연자나 고액 작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편당 제작비가 고액 출연자나 고액 작가한테 다 쏟아버리면 수많은 연기자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거지요.

그래서 과거에 방송 3사끼리 가이드라인 합의까지 봤었습니다마는 그게 무너지고 그랬는데 방송협회 차원에서 이 부분 논의를 시작했는데 아직 합의 상태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마는……

○**박창식 위원** 사실은 오래 전부터 계속 진행돼 왔던 게 계속 누적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방송사·외주사·방통위·문화부가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정착돼야 거기에서 배우나 여러 가지 스태프나 다들 돈을 받고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박창식 위원** 물론 해외에 한류배우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만큼 인센티브도 제도를 도입해서 가면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빨리 한류가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움직이는 것만큼, 지금 눈높이는 할리우드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자막에 대해서.

보통 드라마가 끝나면 자막이 텔롭(telop)이 올라가고 박스 자막이 올라가고 제작협찬 자막이 나가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박창식 위원** 이 부분인데, 저도 사실은 방송에 처음 왔을 때 아주 기본 바닥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한 자막이 나갔을 때, 첫 방송을 할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방송을 하면서 느끼셨을 건데 시골의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지요, ‘내가 오늘 어떤 드라마를 하는데 내 이름이 나갑니다’. 시골에서 못 본 거지. 저도 못 봤어요. 왜?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야. 그것은 오히려 만든 사람한테 예우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도 처음에 기자로 들어가셨

을 때 기자 리포팅하실 때 자막 보고 아마 그런 생각 가지셨을 거예요.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 덧붙인다면 자막을 제작협찬을 내지 않습니까? 보통 협찬 자막을 내는데 그것은 돈을 그 기업이 몇 억씩 냅니다. 적게는 5000만 원, 많게는 2~3억씩 내는데 그 돈을 낸 기업들이 자기들 자막이 넘어가는 것도 잘 못 보는 거지요. 이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예를 들어서 지금 방통위의 법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작지원 협찬 자막이, 허가 낸 자막이 20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초 안에 자막을 5개를 내든 10개를 내든 내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한 4개 정도 내면 한 5초씩 가는데 사실은 방송사고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글은 읽게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아마…… 이것은 사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로 외주제작사가 됐든 어디든 방송을 하는 사람은 가지고 가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막이 나왔으니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한번 칸에 갔는데, 칸에 갔더니 드라마 페스티벌을 하는데 일본의 바이어가 저보고, 제가 만든 드라마인데 그 포스터에 제 이름도 없고 회사 이름도 없고, 제가 만들어서 그것을 납품했는데…… 이게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외주제작사의 다 같은 아픔이거든요. 그것을 만든 제작사, 기획사 이름 하나 거기에 올려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온 그 바이어가 ‘이것 당신이 만든 것 맞느냐?’ 이랬을 때는 참 배신감도 느끼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조해진 간사, 한선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외주사한테 배려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방송사의 채널을 빛내주면서 일을 하는 스태프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할리우드에서는 물을 떠다 주고 커피를 배달하는 친구도 자막이 다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경제민주화를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작은 것이지만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게, 이제는 21세기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어 가는데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정말 조그만 것 같지만 외주제작사의 자막이라도 넣어야 된다는



배려 부분은 공영방송이 앞장서서 좀 더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빠르게 의주제작사에 대한 배려 부분은 많은 보완대책이 강구가 될 겁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전병헌 위원님.

○전병헌 **위원** 전병헌입니다.

홍성규 위원께 묻겠습니다.

방송사에서 부장과 차장의 일종의 경력 연수는 대체로 어느 정도 됩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글썽요,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차장이 한 10년에서 15년 사이, 부장은 한 15년에서 20년……

○전병헌 **위원** 국장.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그게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국장 되려면 한 25년 정도 해야 될 겁니다.

○전병헌 **위원** 차장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저는 이제 내년이 40년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저희가 입사할 때는 저희 보도국장이 서른여덟이었습니다.

○전병헌 **위원** 예,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흥 위원하고 이길영 감사하고는 누가 선배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이길영 선배가 많이 선배시지요.

○전병헌 **위원** 얼마 정도 선배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글썽요, 한 5~6년, 7~8년 이상 그 정도 선배시지요.

○전병헌 **위원** 김인규 사장하고 이길영 감사하고도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전병헌 **위원** 바로 이 점이네요.

사실상 이길영 감사께서는 한나라당 도지사 선대위원장을 했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맞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러면 언론인 출신으로서 어떤 특정 정당 후보의, 그것도 조그마한 구의원이나 시의원 정도의 선거가 아니고 특정 정파의 도지사 선거에서 선대위원장을 맡는 순간 언론계의 복귀는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 한국사회에서의 언론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것 아닙

니까? KBS가 설사 편파적이고 방송에 불공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김인규 사장께서 여기 나와 가지고서 'KBS는 공정하다, 공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 특정 정파의 도지사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사실상 언론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스스로 포기하고 상실한 분이 지금 KBS 감사로 복귀해서 계시는 것만도 사실 감지덕지인데 어떻게 또 다른 노력을 하셨는지 지금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아서 사실상의 KBS 이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길영 감사께서 KBS 이사장으로 결정되는 순간 KBS는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여기 방통위원, KBS 중립성·공정성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홍성규 위원도 새까만 후배고 김인규 사장은 더더욱이 새까만 후배고……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더더욱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아닙니다. 김인규 사장이 저보다 1년 선배입니다.

○전병헌 **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이길영 감사하고 김인규 사장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런데 아까 '더욱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그게 적절치 않았던 이런 얘기예요.

(웃음소리)

○전병헌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길영 감사께서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야당 위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본인 행적의 불투명성도 있고 자질과 적합성 문제도 있지만 매우 구조적으로 엄중하고도 심각한 사태다, 이것은. 그리고 공영방송 KBS가 국민으로부터 또 다시 신뢰를 잃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KBS의 공영성과 신뢰성을 KBS 가족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투쟁으로, 땀과 피로 지켜온 것입니까? 그리고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런데 특정 정파의 선대위원장을 하신 분이 공영방송 KBS의 이사장, 사실상 상왕 노릇으로 가시겠다? 이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한 여러 가지 자질의 문제라든지 의욕의 문제들 그런 것이 설사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본인께서 만일 양식이 있는 지식인이고 그리고 또 소위 최소한의 상식적인 합리성을 가진 언론인으로서 기록되고 싶다면 더 이상 노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엄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설사 이길영 감사께서 새누리당을 지원하고 새누리당에 편향성이 있고 새누리당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에도 절대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참외밭에서 운동화 끈, 신발 끈 다시 매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갓끈 고쳐 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감투를 새로 집어 쓰는 격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인규 사장께서 새 노조와 함께 합의했던 탐사보도팀의 부활은 ‘하셨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탐장까지 임명이 나왔어요.

○전병헌 위원 예, 그러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게 지난 22일 KBS 내의 광경이에요. 이 광경은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뭐지요?

○전병헌 위원 탐사보도팀을 부활했으면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좀 늘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이제 그런 후속조치가 다 될 겁니다.

○전병헌 위원 확실히 되는 것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조직이 생기면 프로그램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향적인 답변이라고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KBS가 최근 3년 사이에 IPTV와 웹 콘텐츠 판매수익이 아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KBS 수익구조에 있어서 새로운 시장의 발견이고 급성장하고 있는데, IPTV의 경우에는 일정하게 시간이 지나면, 저도 KBS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대

개 무료로 전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문제는 특히 웹하드 같은 데 유료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상당히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도에 이게 무료로서 해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KBS가 모자라다, 남는다 이런 걸 떠나서 수신료로 상당 부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콘텐츠를 일정 기간 유료화해서 판매하는 것은 좋겠지만 일정하게 시간이 경과가 되면 이것을 무료로 전환시켜서 특히 젊은 계층이 KBS의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KBS가 다른 방송사와 달리 VOD 서비스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 고화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산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공영방송으로서 가급적이면 무료서비스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병헌 위원 예,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을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좀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까 전현무 씨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등급을 매겨서 출연료를 하고 있는데 공영방송사로서 어떤 등급별 격차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좀 더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현무 아나운서의 사직 문제도 사실은 대우와 보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꼭 이런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KBS 프로그램에 나름대로 훨씬 더 기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요, 예를 들어서 ‘차마고도’나 ‘누들로드’ 이런 것들이 KBS의 대표적인 성공한 다큐멘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KBS의 간판 다큐멘터리를 성공적으로 만든 사람들이 지금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심의부 직원으로 돼 있어요. 이분이 지금……

.....

○**위원장 한선교** 전 위원님, 1분 하실 거면 1분 하시고……

○**전병헌 위원** 예, 1분 할게요.

○**위원장 한선교** 그러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전병헌 위원** 알았어요.

나머지는 제가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누들로드’의 제작자인데 지금 심의부 직원 이런 걸로 돼 있으면 본인의 유능한 적성이나 직능을 제대로 살리지 않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주 탁월한,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경쟁력을 만든 능력 있는 방송인이나 언론인들은 사내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계속 인물로서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인센티브제도는 최근 몇 년간 대폭 확대해서 KBS에서도 1000만원, 2000만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차마고도’나 ‘누들로드’ 같은 프로그램을 만든 관료직 관계자들은 계속 좋은 다큐멘터리 제작에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유승희 위원님 하시고 염동열 위원님 이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먼저 유승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최재천 위원** 제가 계속 오전부터 감사실 특별감사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일체 대답 없어요.

블러드드릴게요. 2011년 특별감사 내용 중에 ‘공사 직원들의 정당 가입 및 당비 납부 조사’ 그다음에 부정채용이 하나 있었는데 ‘모 씨에 대한 채용 관련 조사결과 보고’ 그다음에 ‘스포츠 취재부 폭행사건 조사결과 보고’ 그다음에 기자에 대한 진정사건이 있었는데 ‘누구, 누구, 누구 기자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 그다음에 보도본부 간부에 대한 접대골프 수수의혹 조사 결과, 감사 결과, 그다음에 정치활동 금지 및 정치단체 가입 위반 사례 조사, 이게 2011년 특별감사 중에…… 특별감사가 열몇 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원하는 자료고요.

그다음에 2012년 특별감사 자료 중에 정치활동 금지 위반 혐의 직원에 대한 특별조사, 그다음에

개콘, 요즘 인기 있는 개콘 초대권 위조 관련 특별조사 이런 자료들을 제가 쪽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계시거든요. 안 가져오면 안 끝납니다.

○**위원장 한선교** 가능한 자료부터 빨리빨리 좀 주세요, 아니면 끝날 수가 없으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위원장 한선교** 끝내는 건 제가 끝내는 건데 그렇게 됐어요.

(웃음소리)

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희 위원** 김인규 KBS 사장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KBS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러면 사장으로서 공영방송 가치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임무 맞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유승희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건데 군사독재에서 정권 유지의 앞잡이, 말하자면 그런 노릇을 한 이길영 이사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르쇠로 일관을 하시면 과연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회의록 제출 요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사회가 권한이 있다’ 이렇게 궤변을 자꾸 늘어놓으시는데 KBS 이사회가 무슨 국회법 위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의 증언·감정법 12조에 의해서 3년 이하 징역을 살고 그리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홍성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께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길영 씨에 대해서, 검증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길영 씨를 KBS 이사로 선임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길영 씨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서 소위 그 유명한 땀뉴스를 만든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검토를 하셨나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요.

○**유승희 위원** 검토 안 하셨다 이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유승희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검토가 되었다고 한다면 결격사유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그래서 법적인 결격사유만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유승희 위원** 법적 결격사유냐 아니냐 이거를 가린다는 말씀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3배수 추천을 하거든요. 3배수 추천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경찰 이런 데 또 신원조회도 하고 결격사유가 있나를 확인하고 그 후에 상임위원들 간에 논의를 거쳐서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이길영 씨가 보도국장이었을 때 홍 부위원장께서도 KBS 보도국 소속 사회부에서 일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편집부나 사회부나 하여튼 제가 직원인 것은 맞습니다. 기자였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길영 씨께서 땡전뉴스 만드는 데 주역 했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억으로 이길영 씨가 어떤 보도국장이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것이고 또 너무나 오래된 일이고 해서요.

○**유승희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공익성과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방송법상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사를 대통령한테 추천하게 되는데 땡전뉴스의 주역이었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해서 추천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증 제대로 안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간에?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아닙니다. 여기에 법적으로 몇 가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 정당법에 의해서 당원이나 아니냐,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 33조 쪽 나열된 게 있는데 이 부분, 이런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것은……

○**유승희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정치적인 편향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 말

씀하신 세 가지 결격사유에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나온 그 사실로만 해도 결격사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결격사유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그래서 임명을 했습니다.

○**유승희 위원** 아니, 지금 확인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아니요, 아니요.

○**유승희 위원** 지금 예를 들면 땡전뉴스의 주역이었다는 것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확인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은 됩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그거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 정당법에 의한 당원이나,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는 거지요.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땡전뉴스의 주역이었다 이런 것은 전혀 법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그렇습니다. 여기의 결격사유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KBS 공영방송의 독립성 그리고 공익성 이런 것은 기본적인 지켜야 될 하나의 가치인데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합니까? 적절하게 추천하셨다고 봅니까?

지금 땡전뉴스의 주역이고 군사독재 정권 미화하고 찬양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공적지위를 이용해서 또 채용 비리까지 저지른, 그런 여러 가지 비리가 전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셔야 됩니다. 검증하시겠습니까? 다시 검증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유승희 위원** 그러면 그냥 전혀, 이런 것들이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라도 전혀 결격사유가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 제기된 여러 가지 사안이 검증 절차를……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건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법적인 아까 그 세 가지,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현저한 범법행위가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거지요.

○유승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제대로 검증할 의사도 없고, 그다음에 추천을 취소할 의향도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이사로서는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철회를 해야 됩니다. 추천 철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는데 지금 강력하게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전혀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럴 사유가 안 된다 이게 답변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저희들은 정치적인 고려는 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인, 법에 되어 있는 부분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1분 더 하세요.

○유승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적절한 추천인지에 대해서 다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통위 부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로서는 법적인 범위 안에서만 검증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 법적 의미 안에서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노웅래 위원님도 문제 제기했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땡전뉴스의 주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건 법적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앵무새 똑같은 이야기 되풀이하듯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도 책임 있는 발언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저는 지금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는 게 공식 수행이고 또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유승희 위원 양해는 좀 힘들고요. 일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추천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고맙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다음에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꼭 7분을 다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염동열 위원 염동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인규 사장님, KBS 교향악단의 문제에 대해서 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염동열 위원 그리고 보니까 핀란드 음악협회 그리고 이스라엘 음악협회, 브라질 교향악단에서 이메일 보냈는데 사장님한테도 갔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저는 이메일이 하루에 수백 통씩 와 가지고 다 제대로 못 봅니다.

○염동열 위원 확인 안 됐지요?

거기에 보면 재선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요. 외부기관에 교향악단을 맡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살펴보니 결국은 법인 설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공신력 있는 단체들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게 제가 이메일을 잘 안 봐서 정확히 모르는데 담당 본부장……

○염동열 위원 그냥 그렇게……

그러면 2005년도에 한번 법인 설립하려고 그러셨고 2009년도에 법인 설립 시도하셨고요. 그러다가 이게 무산되고 2011년 7월에 함신익 지휘자가, 상임 지휘자가 들어오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2010년이지요.

○염동열 위원 11년으로 되어 있던데?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10년에 들어왔습니다.

○염동열 위원 10년입니까? 그러면 이제 2년 됐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올해가 2년이 다 됩니다.

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면 11년도 말에 노조하고 재선발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고 또 자체 감사에서 근무 평가를 결국은 오디션, 그리고 평가에 의해서 신분을 재배치한다 이렇게 명령이 내려져서 지적을 하셔서 2012년도 올해 1월 달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리고 단원들이 반발하게 되지요, 올해.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요약이, 압축이 돼 가지고 조금 그 안에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

사장이 교향악단에 일일이까지 개입은 안 하는데 자세한 얘기는 우리 담당 본부장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아니, 일단은 올해 어쨌든 교향악단에 대해서 단원들이 반발하게 되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반발은 법인화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지요.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결국 법인화의 주요 쟁점을 보게 되면 재선발에 대한 문제란 말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재선발이 아닙니다, 그게. 재선발이 아니고……

○**염동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화 되면 거기의 최대 이슈가 재선발로 이렇게 보이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재선발은 제가 분명히 사장으로서 노사협의 할 때 신분이나 처우는 보장해 준다 그랬으니까 일단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보면 오디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것은 발단은……

○**염동열 위원** 그러면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1명이 징계를 받은 것 같은데……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게 이제 징계 절차가 두 가지 사유가 있어요. 하나는 교향악단 단원 중에서 이른바 다른 학교에서 강의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을 8시간 제한이 되는데 어떤 분 같으면 20일 이상 하시는 분이 있어서 겸직, 의무조항을 어겨 가지고 징계를 한 게 있어서 그게 발단이 됐고……

○**염동열 위원** 아니, 이제 71명이 3월 달에 집단적으로 징계가 됐고 말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것은 두 번째는 오디션, 오디션을 받게 돼 있었는데 오디션을 거부하는 바람에……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재단으로 할 경우에는 결국은 그게 쟁점이 오디션으로 저는 파악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그래서 정확한 것 들으려면 담당 본부장한테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염동열 위원** 본부장 말씀하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시청자본부장 박갑진** 예, 본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디션에 관련해서는 그건 평가 관리하는데……

○**염동열 위원** 평가하는데……

○**한국방송공사시청자본부장 박갑진** 평가는 노사합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시청자본부장 박갑진** 예, 그것을 거부했고 국약은 다 받았고……

○**염동열 위원** 그래서 거부하는 바람에 3월 달에 있던 정기 연주회가 취소되고……

○**한국방송공사시청자본부장 박갑진** 예, 그게 발단이 된……

○**염동열 위원** 또 폭력 사태가 되고, 그래서 3월 달에 71명 징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시청자본부장 박갑진** 예, 그런데 재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단은 서울시향이 넘어갈 때는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선발했는데 저희는 전적 동의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절차 없이……

○**염동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단원들이 결국은 법인화되는 이유가, 반대하는 이유가 그 안에 나와 있는 최대 이슈인 재선발 선정인데 재선발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음악의, 단원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시청자본부장 박갑진** 예,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러나 전적 동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사협약에 따라서 재선발 없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평가는 나중에……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고 난 뒤에 평가를, 1년마다 재선발을 하니까……

○**한국방송공사시청자본부장 박갑진** 재선발은 아닙니다. 그것은 노사합의 할 때, 저희 직원들도 매년 근무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에도 근무평가 형태로 실적을 평가받아

가지고,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2년 연속으로 미흡을 받을 경우에……

○**염동열 위원** 그런데 결국은 재배치에 대한 영향력을 받고, 보니까 노사합의에 그런 재배치에 대한 평가를 오디션이나 근무평가를 통해서 재배치한다 이렇게 KBS 자체 감사에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시청자본부장 박갑진** KBS 감사에 대해서는 법인화 관련해서 경쟁력을 좀 높여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염동열 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그런데 89명이 단원이지요?

○**한국방송공사시청자본부장 박갑진** 예, 지금 89명입니다.

○**염동열 위원** 89명이고 보니까 봉급이 정확하게 하면 72억 1043만 원이 나가는데 지금까지 8회 정도의 공연이 취소가 됐고 1년에 보니까 한 80회에서 82회 정도의 공연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사태로 본다고 한다면, 공연 어렵다고 본다고 한다면 그 월급 나갑니까?

○**한국방송공사시청자본부장 박갑진** 예, 지금 저희가 법적 검토를 했는데, 공연 취소는 물론 처음에는 그런 거부 사태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재단법인을 결의하면서 재단법인 될 때까지는 연주회를 잠정 중단하라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주회를 안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월급은 나가야 된다는 그런 저희가 해석을 받았습시다.

○**염동열 위원** 단원들이 거부한 거 아니고 경영자 측에서 잠정 중단하라 이렇게 된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시청자본부장 박갑진** 예.

○**염동열 위원** 결국은 7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 놓고 1년 동안에 KBS 교향악단의 음악을 들을 수 없는, 국민들이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박탈당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루속히 빨리 그 사태를 조기에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시청자본부장 박갑진** 알겠습니다. 저희는 9월 1일부터 재단법인이 되면 정상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리고 이길영 감사님!

제가 오늘 이길영 감사님 이렇게 감사받는 걸 보고 말의 힘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야당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길영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교 문제, 땡전뉴스 문제 등등

을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런가 하고 부정적으로 보니까 또 부정적인 측면이 들고, 또 박대출 위원님이 이길영 감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두둔하려고 합니다.

48년 동안 방송 생활을 하시면서 범법사유가 있었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염동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도덕적·윤리적인 문제에 지금 봉착하신 거지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저는 상당 부분 음해와 정치적 공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물론 의혹도 저도 일부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나 한 공무원이 또 하나의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 분야의 일을 할 때 결국은 설은 있을 수 있고 윤리적·도덕적으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정적인 범죄행위나 또 현행범으로 형을 살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48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그래도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남은 시간 한번 해 보시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구 한방진흥원의 채용과 관련된 일이라든지 몇 가지 케이스는 제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공직생활에서 일생에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비록 법률적으로는 결격사유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저는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두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제가 공직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최재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제 원서 낼 때 기록에 오기가 있었습니다. 69년에서 71년은 분명히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제 학적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소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됐습니다. 아마 그 답변은 또 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강동원 위원님 잠깐 하신다고요?

○강동원 위원 예,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강동원 위원 김인규 사장님께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KBS 노조 파업을 끝날 때 몇 가지 합의한 사항, 그중에서 데일리 시사프로그램 편성 약속한 것 사실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런 것 합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강동원 위원 그런데 새 노조에 의하면 지난 7월 20일 날 노사협력위원회에서 사장이 참석하신 가운데, 여기에는 또 부사장 그다음에 콘텐츠본부장, 편성국장 등이 배석한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데일리 시사프로그램 편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께서 오케이 했다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건 우리 참석자들이 다 배석을 했을 테니까요.

○강동원 위원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데일리 시사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논의는 됐지만 그걸 편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합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합의는 분명한 것은 그날 문서로 되어 있는 것만 딱 합의하는 걸로 분명히 했습니다.

○강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때 편성 요구를 노조에서 했을 때 ‘프로그램 제안 공모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그리고 시사프로그램 기획안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런데 저도 그 얘기도, 사실은 얼마 전에 무슨 기획회의인가 했다는 것도 불과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강동원 위원 아니, 그 자리에 참석하셨으면서 그것 기억을 전혀 못 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아니요, 제가 회의에 참석하면 기억을 못 하겠습니까? 그건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

○강동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노사 간에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제가 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상당히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 위원 그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강동원 위원 제발 그 협의가 좀 잘 되어서……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이게 원칙적으로 KBS의 프로그램을 좋은 방향으로 갖고 가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강동원 위원 물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강동원 위원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아까 법에서 얘기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것, 정당 당원이 아닐 것, 이것만 빼버리면 그냥 다 통과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아니요, 그런 게……

○강동원 위원 자체적으로 검증 시스템이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송법 48조라든지 방송문화진흥회법 8조라든지 그런 게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동원 위원 아니, 규정은 되어 있지만 그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검증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질문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저희들은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고……

○강동원 위원 알겠어요.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강동원 위원 마지막으로 이 감사님, 한 가지만 여쭙어 보겠어요.

자녀 몇 분이나 두셨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아들 둘입니다.

○강동원 위원 출가하셔서 다 손주까지 보셨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강동원 위원 이런 모습을 가족들이 보셨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

○강동원 위원 자,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많은 문제점이 여기서 거론이 되고 이게 방송매체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되는 겁니다. 자식



들이, 자녀들, 일가친지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서 과연 이사장으로서의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사장을 놓고 얘기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동원 위원** 이사장을 사전에 누구 내정 받은 적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전혀 없습니다.

○**강동원 위원** 그런데 왜 감사보다도 직급이 낮은 이사를 하시겠다고 그런 거지요? 그게 마지막 봉사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마당에서, 앞으로 국정감사 내지는 계속 열리는 KBS와 관련된 회의에서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될 텐데 이런 부끄러움 앞으로 계속 감수하시겠습니까?

어때요? 제가 볼 때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강동원 위원** 아니, 소명이 아니고……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충분히 소명하겠습니다.

○**강동원 위원** 소명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괜찮으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감내하시겠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이사직을 수행하는데 저는 결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원 위원** 참! 그래요.

하여튼 이길영 감사님께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다니까 할 얘기는 없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물러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공인으로서 이런 모습을 계속 감수한다는 것은 직책을 수행하느냐 마느냐 이것과는 별개예요.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관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단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저는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책임질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강동원 위원** 그만 하겠습니까.

마치겠습니까.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왜요? 유 위원님, 왜요? 또 하시려고?

○**도종환 위원** 저 아직 안 했으니까……

○**위원장 한선교** 도종환 위원님 하세요.

○**도종환 위원** 도종환 위원입니다.

이길영 감사님, 하나만 여쭙 볼게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도종환 위원**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재직 때 감봉 3개월 받으신 것을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신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KBS 감사직무규정 8조2항에 보면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감사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데 2008년 7월에 징계를 받으시고 2009년 12월에 감사에 응모해서 현재에 이르고 계시는데 이 감사직무규정에 위반이 되지 않아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종환 위원** 예.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 KBS 감사직무규정상 감사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인이 아닙니다. 감사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결정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도종환 위원** 감사인이라고 그러셨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저희들은……

○**도종환 위원** 감사부서 직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감사인의 경우……

○**도종환 위원** 감사부서 직원은 여기에 적용이 되지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감사는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도종환 위원** 직원은 적용이 되고 감사는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다음에……

앉으세요.

사장님께 여쭙어 볼게요.

삼성비자금 특별검사를 역임한 조준웅 변호사

아들이 삼성전자에 입사한 것에 대해서 KBS 기자들이 이것 삼성 봐 주기 특검에 대한 보상이고 특혜다라고 이것을 특종을 준비했던 사실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글썽요, 그것도 최근에 보고를 받았습시다마는 그런 사안 자체가 그런 것들이 즉각각각 이렇게 보고가 되고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도종환 위원 어쨌든 KBS에서는 이걸 보도를 안 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보도를 안 했냐?’ 그랬더니 우리 보도국장이 이리이러한 이유로 보도를 안 했다는 보고를 최근에 받았습시다.

○도종환 위원 그게 기자들은 기자협의회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과 그들에 대한 감시 이런 거창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좋다. 우리는 그저 뉴스 가치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정직한 KBS 뉴스를 원한다. 구구절절 핑계를 대면서 취재기자의 노력을 허물어뜨리는 뉴스 지휘부가 아니라 후배들의 기자정신을 믿고 격려해 줄 참된 선배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것만이 KBS 뉴스가 살 길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지금 젊은 기자들 입장에서 그런 의견 개진된 것 잘 알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KBS가 대기업이나 재벌에 대해서 아마 언론사 중에서는 가장 엄격한 잣대를 대고 프로그램을 내고 있다는 것으로 자타가 인정을 하고 있는 방송사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왜 특혜냐는 것만 입증이 됐다면 내는데 지금 언론보도도 이게 특혜가 아니라, 특혜로 확인된 게 아니고 특혜 논란 정도의 수준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종환 위원 잠깐만요, 오늘 보고하신 2011년도 결산서 120쪽부터 수입 중에서도 제가 기타 방송수입 항목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협찬 받은 금액이요. 그중에서 삼성과 관련된 것만을 쭉 뽑아보니까요, 말하자면 뉴욕음악회에 7억, 상생 경영 송출 31억 7000, 이렇게 쭉 나온 것들을 120쪽부터 쭉 보니까 합해 보면, 광고수입 말고요, 이것만 58억 9200 정도 돼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삼성에서요?

○도종환 위원 예.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아마 협찬이……

○도종환 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있는 걸 제가 통계 내 본 거예요.

이런 것에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저도 언론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저도 현장에서 기자생활을 할 때 사장께서 내려오셔서 가지고 ‘정말 너무 하다. 오늘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에서 이렇게 협찬을 크게 했는데 뉴스에서는 그 대기업에 관해서 집중 비난한 게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제가 기자 때도 들을 정도로 지금도 그런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찬하는 부서하고 우리 뉴스를 내는 부서하고는 전혀 소위 말해서 협의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종환 위원 그러면 이것 취제한, KBS에서 특종하려고 했던 거가 말하자면 신문이라든가 MBC라든가 다른 데는 다 보도가 됐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아니, 그래서 이제 저도……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이 취제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틀린 게 없다면 보도하도록 내버려두고 국민들한테 판단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해야지요. 그래서 저도 보도국장한테 이게 조금이라도 특혜 시비가 있으면 내야 된다 그랬고 보도국장도, 우리 보도국장이 분명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혜라고 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여러 매체가 다 되는 게 논란 정도의 수준에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도종환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어 볼 게 있어서.

고영탁 국장님 계신가요?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예.

○도종환 위원 짧게 한 두 가지만 여쭙어 볼게요.

기획회의 하실 때 보통 이게 드라마로서 경쟁력이 있는가, 또 공영방송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적합한가, 또 제작사의 제작력이 있는가, 1TV에서 다룰까, 2TV에서 다룰까, 이런 것 기획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예, 논의합니다.

○**도종환 위원** 이번 문제가 되는 ‘강철왕’의 경우에는 이 논의에서 경쟁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됐어요?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지금 현재로서는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리고 공정성 시비나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내용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회의에서?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송 시점을 올해 아닌 내년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종환 위원** 내년 1월에 한다고 그래도 역시 예를 들어서 박근혜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상황에서 역시 내년 1월이 되어도 공정성 시비나 정치적 시비에는 계속 휘말리게 되지 않을까요?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그래서 내년 1월이라고 꼭 못 박은 것은 아니고요. 제작사에서 대선 이후에 하고 싶다라고 해서 1월로 표기를 요청해 와서 그렇게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데 저기……

○**위원장 한선교** 예, 1분 더 쓰세요.

○**도종환 위원** 이 박태준이라는 인물이 청렴하기도 하고 또 성인군자 같은 장점도 많고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도 결격사유가 많지 않고 그런 인물인데 이게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때는 이런 정적 인물, 이런 단선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할 때에는 말하자면 시청률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대장금’이라든가 ‘허준’이라든가 ‘김탁구’라든가 이런 인물들을 보면 좌절, 실패, 재기, 고난, 시련 1·2, 다시 성공, 이렇게 라운드 캐릭터들, 동적인 인물들이 감동도 주고 재미도 있고 시청률도 끌어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인물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한국방송공사드라마국장 고영탁** 그래서 단선적이다, 캐릭터가 너무 단선적으로 그려졌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걸 또 연출자가 붙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물을 잘 연출했던 그런 연출자가 하면 훨씬 드라마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될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 마지막으로 최재천 간사 해 주시지요.

○**최재천 위원** 아니, 왜 자료 안 주십니까?

보도본부 간부 접대골프 수수 의혹, 2011년, 2011년 스포츠취재부 폭행사건, 그다음 불법 채용 비리, 2012년 개콘 초대권 위조 관련 특별조사, 왜 안 줘요? 왜 안 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요 EBS 사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최재천 위원** 제가 궁금해서 EBS 교육 콘텐츠를 대상별로 한번 쪽 분류해 보라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한번 들어 보십시오.

지상파 TV에는 청소년, 이를테면 주로 이게 21%, 그다음에 FM라디오는 영어가 46%, 주로 대입 영어입니다, 평생교육영어가 아니라. EBS플러스1은 고교 학교 교육이 98.9%, 이걸 뒤 그러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EBS플러스2는 역시 중등교육이 57.4%, 그다음에 대입 관련 책자, 이걸 수능연계교육 책자 수입이 563억 원, 20% 그다음에 EBS 출판 콘텐츠는 전체 매출액 1000억 원 중에 800억 원이 고교 관련 수입.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될 줄 아시겠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알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자, 교육방송이 대학 입시 방송이 아니에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최재천 위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과 방향을 잡아주세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천 위원** 교육방송은 평생교육이어야 되고,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아도 학습시기가 불과 대학 전후 3, 4년한테 너무 집중되어 가지고 시대에 따라가기도 힘들고 편중되어 있고 대단히 위험합니다. 아시겠어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예, 이제……

○**최재천 위원** 교육방송이 공영성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주고 균형을 잡아주라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아예 이름을 바꾸세요, 대학 입시 방송으로. 그러면 민영화해도 돼요, 이런 건 차라리.

공영성의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덕훈**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최재천 위원** 나중에 저 끝나면 하십시오, 제가 이길영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자, 이 감사님 일어나세요.

이 감사님 약력을 제가 오늘 하루 동안 계속 공부를 했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이 감사님 하도 남의 인생을 사서 가지고 지금 내가 언제 뭘 했는지를 모르세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수많은 제가 지금 쪽 듣고 다른 분들 하는 것 메모하는데 본인도 지금 헛갈리고 계세요.

자, 불러드립니다.

57년 4월에 대신고 들어가서 60년 2월에 졸업한 것, 이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80년 전두환 시절에는 거의 한 십몇년 간을 대구상고 출신으로 살아왔어요. 그것은 모든 증거가 입증해요. 거의 꺼빼판 리 인생이에요.

그다음에 60년 4월부터 62년 7월까지 단국대 성악과를 다녔어요. 이것은 불리하니까 지금까지 평생 숨기고 살았어요. 하지만 문공부 공무원 자료에는 있어요.

그다음, 69년 8월부터 71년 2월까지 국민대 농업경영과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미 공적기록에 69년부터 71년 국민대로 계속 홍보를 했기 때문에 모든 공적서류 낼 때는 전부 다 69년 8월부터 71년 2월로 맞춰서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뽀록나 버렸어요. 표준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게 들통 나 버렸어요. 이제 검증단계에 들어가니까, 공적인 인물이 되어 버리니까. KBS 내부에서 살아갈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대구 지역 동네에서 살아갈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 신청할 때도 그 이력서 그대로 준 거예요. 그래서 69년 8월부터 71년 2월로 적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유통되다가 지금 들통 나 버린 거지요. 그 안쓰러움은 이해해요.

그다음에 기자로 65년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신경민 위원 질의에는 64년부터 KBS, 이를테면 중앙방송국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고쳐드릴게요. 61년 4월 1일 날 행정서기로 신규 채용되어서 서울텔레비전방송국 서무과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64년 11월 10일까지 서무과에서 근무해요. 64년 11월 11일부터 66년 3월 25일까지 방송관리국 관리과에서 8

급으로 근무해요. 그다음 66년 3월 26일부터 68년 7월 31일까지 국제방송국 제2과 겸 서울중앙방송국 방송과에서 일을 해요. 그때까지는 일반직 관리직이에요. 서기입니다, 서기. 이를테면 글 쓰는 분이예요.

68년 8월 1일부터 70년 4월 21일까지 중앙방송국 보도부 보도과로 옮겨서 비로소 글 쓰는 보도요원이 돼요, 이른바. 그다음에 70년 4월 22일부터 4급을 상당 자격으로 중앙방송국 보도부에서 근무를 하고, 73년 2월 27일경에 4급갑 상당으로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73년 2월 28일 날 면직이 돼요. 왜? 한국방송공사가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맞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자, 이게 지금까지 본인 스스로도 끊임없이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고 여기 와서는 이 거짓말하고 여기 와서는 이 거짓말하고 여기 와서는 이 거짓말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맞추다 보니까 불행한 인생이 되어 버린 거예요. 자, 이제 비로소 커밍아웃을 시켜 드린 겁니다.

이 자료는 문공부 인사과에서 제가 받았어요, 오늘. 도저히 안쓰러워서 제가 받아낸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이 공적 인생대로 사세요. 아시겠어요? 답변은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은 공적으로 증명된 자료니까, 이게 틀리다면……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위원님, 저한테 답할 시간을 1분만 주십시오.

○**최재천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끝나면 드릴게요.

이게 틀리다면 지금까지 공무원으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1961년부터 73년 2월 28일까지 허위로 작성했어요. 허위로 작성하면 무슨 죄지요? 공소시효는 끝났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죄인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그러십시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위원님이……

○**최재천 위원** 자, 그러면 여기 문공부 인사과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복사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항의하지 마시고 문공부에 '왜 당신들은 허위 자료를 최재천한테 보내 가지고 내 인격과 명예를 훼손시켰느냐?' 그렇게 소송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말할 시간 1분

만 주십시오.

○최재천 위원 아니, 끝나고 드릴게요. 거기까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저는 공적 문서 가지고 증명하는 거니까 지금.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알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나머지는 문공부하고 상의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최재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KBS 인사기록카드 달라 그랬지요. 아직까지 안 주고 계시는 것 맞지요? 제가 뒤로 말씀드렸어요, KBS 인사기록카드 달라고. 아직도 안 주고 계세요. 왜 못 줍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KBS 어떤…… 저 관계 말씀입니까?

○최재천 위원 관계 인사기록카드 달라 그랬어요, 73년 3월 1일자부터. 아직까지 안 주고 계세요. 아셨어요? 이미 다 들어갔잖아요, 수차례 지금 요청했는데.

어디 뒤돌아보는 척해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뒤를 돌아보며)

누가 설명을 하세요. 설명 좀 하세요.

○최재천 위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뒤에서? 달라는 것 요청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한국방송공사인적자원실장 정인균 예, 들었습니다.

○최재천 위원 들었지요? 그러면 왜 안 줘요?

○한국방송공사인적자원실장 정인균 인사기록카드에는……

○최재천 위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인사기록카드 달라고 할 때 메모에 학력 부분만 달라고 했어요, 학력. 공적 경력 부분만, 나머지는 빼고. 그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한국방송공사인적자원실장 정인균 못 들었습니다.

○최재천 위원 그 말을 왜 못 들어요, 메모를 그렇게 남겼는데?

○위원장 한선교 1분 더 하세요.

○최재천 위원 1분만 더 쓸게요

이길영 감사님, 보세요. 지금까지 사람들을 얼마나 본인의 신상으로 불편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KBS 전체에 대해서 누를 끼치고 그다음에 KBS 이사회에 이제 들어가시게 될 텐데 9월 1일부터, 그 허위된 정보 가지고 그것을 선임한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욱먹고 누군가는 추천했을

텐데 추천한 사람은 추천한 사람대로 속았고 그다음에 추천서를 쓴 사람이 후배 기자가 그 자료를 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해서 자료를 구해 가지고 그렇게 썼겠습니까? 자료를 주니까 썼을 것 아닙니까? 그분은 그대로 속아 넘어가고, 거기에는 엄청나게 써 놨잖아요. 훌륭한 분이요 KBS 경영이 지금 정상화가 안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KBS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분이요 우리도 좋아하고 선배도 좋아하고 후배도 좋아하고 모두가 KBS 이사 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렇게 추천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감사에게 드러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까지의 약력과 경력과 학력을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발 좀 정직하십시오, 제발. 제발 정직하세요.

답변하세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최 위원님 지적에……

○위원장 한선교 말씀하세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재천 위원 예.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대한 충고도 겸허히 받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64년도에 공무원 시험 봤습니다. 그 이후의 어떤 기록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저는 정말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학교 서류든 뭐든 전부 서류로 해서 제가 위원님께 드리고 만약에 그 서류를 필요하시다면 문광위의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강동원 위원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할 거예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사퇴보다 더한 어떤 형사 처벌이라도 받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요……

.....

○위원장 한선교 아니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사퇴를 포함한 본인의 어떤 각오라 할까 다짐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그렇다면 오늘 여

러 가지, 본인은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야당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잖아요, 경력에 대해서?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위원장 한선교 그러면 딱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 저를 비롯해서 최재천 간사님이나 전부 보내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보고 거기에 대해서 혹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되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예, 좋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원서를 내는데 타천자가 제가 대학을 69년, 71년, 그것은 분명히 오기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서면으로 해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셔야지 마음도 편하실 것 같고.

앉으시지요, 이제.

유승희 위원 3분만 하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유승희 위원 예, 짧게 할게요.

○최민희 위원 저 1분만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추가질의 다 주시는 거지요?

○위원장 한선교 아니요, 아니요. 그만해요. 내가 유승희 위원을 특별히 좋아하니까 3분 드리는데 겁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위원장님, 제가 답변 한 말씀……

○최민희 위원 저는 안 좋아해도 1분 주십시오.

○위원장 한선교 빨리 하세요. 시작하세요.

○최민희 위원 안 좋아하는 저는 1분 주십시오.

○위원장 한선교 알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저도 주십시오.

○유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주셔서.

홍성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께 다시 한번 여쭙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까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송통신위원으로서 특히 부위원장으로서 저는 정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 1조 아시지요? 방송법 1조에 보면 방송

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것이 최대의 가치로 방송위원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없다’, 지금 이길영 씨 KBS의 그야말로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 추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자 없다. 문제없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근본적인 결격사유가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결격사유. 지금 이런 기초적인 인식도 없이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어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법상 문제없다라든지 정당인이 아니면 된다 이런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자격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아무나 KBS 이사 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으로서 이런 방송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추천의 기초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유승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승희 위원 예.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방송법 1조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매우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48조나 방문진법 제8조나 이런 데는……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자꾸 지나가서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정해져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것은 이길영 씨가 단지 그냥 땡전뉴스 단순하게 보도한 것이 아니라 주도를 했습니다, 주도를. 그래서 전두환 정권 호헌조치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높으니까 김만철 회견을 부각시켜서 정권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겠다 이런 보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태우·전두환 인터뷰 순서 배치, 그다음에 시위대의 과격한 모습을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87년도 11월 18일 작성 문건에 문공부에서 당시 1989년도 국정조사에 폭로될 당시에 문공부의 언론인 개별 접촉 문건의 일부입니

다. 이길영 국장이 의도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 시켜서 노태우 후보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이길영 씨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KBS 보도국장이 아니라 민정당 홍보국장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길영 씨께서, 이길영 감사가 ‘지난번에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시절의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5공, 6공 시절에 이렇게 권력의 사유물로 KBS를 만든 보도국장 시절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반성한다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위원님,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승희 위원** 일단은 방통위원회 홍성규 부위원장께서는 방송법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가치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길영 씨 답변해 주세요. 이길영 감사 답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장 한선교**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역시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으나……

○**유승희 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방통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법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을 걸로 보이지 않나, 그렇게 말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구요.

○**유승희 위원** 아니,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부위원장님 판단, 부위원장님의 지금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봅니까? 적절한 추천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그리고 이길영 감사 답변……

○**위원장 한선교** 아까 다 말씀하셨잖아요.

○**유승희 위원** 아니, 지금 일어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실 생각 없으세요? 5공, 6공 시절에……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력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유승희 위원** 방송을 권력의 시녀화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것에 대해서 한번도 반성한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제가 보도국장을 한 게 87년도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자, 이제……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그런 제가 땡전뉴스라고 일관적으로 그렇게 매도당하는 것은 저한테는 참으로 억울합니다. 그리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

○**유승희 위원** 국정감사 사실로 나와 있는 것, 자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부정하십니까? 이런 사실이 없습니까? 반성하셔야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지금 그것은 저희들 사내 노보에 게재된 사항입니다.

○**유승희 위원** 예?

○**한국방송공사감사 이길영** 사내 노보에 게재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자, 이 감사……

○**유승희 위원** 사내 노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객관적인, 역사적인 팩트를 왜 부정하십니까?

○**위원장 한선교** 자리에 앉으세요.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유승희 위원** 아니, 노보가 아니라 이것은 국정조사에서 폭로된 당시의 문화공보부 언론의 개별 접촉 문건의 일부예요.

○**위원장 한선교** 예, 유 위원님, 국정감사에서 또 합시다.

○**유승희 위원**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위원장 한선교** 진짜 최민희 위원 1분 하실 거예요?

○**최민희 위원** 예, 저 1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그래요. 빨리해요.

○**최민희 위원** 두 가지 질문을 김인규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KBS 공사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에 보면 KBS 직원의 불법 사실이 확인

되면 검찰에 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우식 씨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고 조금 더 해석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에도 해당되는 죄를 지었는데 왜 고발하지 않으셨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방송위원회 있을 때부터 KBS가 수신료를 걷어서 EBS에 나누어 주는 이 구조, 그 과정에서 좀 더 EBS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을 바꾸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이 있는지 이 두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우선 KBS 공사 직원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때에 고발은 당연한데 이 발생이 제가 사장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이 됐을 때는 이미 다 끝나고 감사 처분을 받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아마 제 전 사장인지 전전 사장인지 그때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EBS에 대한 지원은 저도 확실하게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에 수신료 인상 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수신료를 만약에 1000원 올릴 경우에 우리가 1000원 올리는데 5%를 지급을 하면 아마, 2배 이상이 늘어나지요, 5%만 하더라도?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송출 대행을 해 주는 게 상당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KBS가 재원이 안정될수록 EBS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결정을 하시라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이런 것을 할 때 KBS 이사회하고 교육방송 이사회하고 같이 협의도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최민희 위원** 예.

**○위원장 한선교** 아까도 질의도중에 나왔지만 수신료산정위원회 같은 객관적인 기구가 좀 만들어지고 그래서 EBS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부족한……

**○배재정 위원** (손을 들)

**○위원장 한선교** 그것 참……

**○배재정 위원** 3분 주십시오.

**○위원장 한선교** 1분만……

**○염동열 위원** 저도 주십시오, 민주당만 주시지 마시고.

계속 진행이, 이것이 뭐 1분 추가되는 것인데 요.

**○위원장 한선교** 2분!

질문 2분에 보너스 없습니다.

**○배재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저기 EBS에 대해서도 질의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EBS는 서면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철왕’ 제작과 관련해서 KBS의 위법성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저희 의원실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보시면 KBS가 보관 중인 공문과 포항시가……

**○위원장 한선교** 드라마국장도 일단 나와 계세요, 혹시 모르니까.

**○배재정 위원** 포항시가 보관 중인 공문에서 같은 날짜고 같은 공문번호인데 맨 밑에 보시면 이것이 라인이 달라요. 어느 것이 위조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는 KBS에서 가지고 있는 공문이 6월 12일자라고 여러 차례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받고 보니까 6월 4일자였어요. 그런데 6월 12일자라고 저희한테 보내주실 때 ‘팀장’, ‘EP’, ‘국장’ 지우고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경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은 공문서 위조가 아닌가, 왜 이런 오해를 받게 만드세요? KBS가 이 공문서 보내실 때 이 공문서 위치 다르고 저 공문서 위치 다르고 그리고 공문서에서, 저기 보세요, 나중에는 전부 다 우리 이재영 팀장님을 비롯해서 이름 다 있는 것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왜 이런 것 지우고 주시면서 개인정보 보호라고 그러세요?

**○한국방송공사대외정책실장 정지환** 대외정책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잠깐만요, 개인정보 보호가 공문상의 이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나중에까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주셔



야지요. 왜 그러면 나중에 주시고 포항에 가 있는 것이라 왜 공문 다릅니까?

○**한국방송공사대외정책실장 정지환** 처음에 저희가 의향서 자체를 궁금해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이름들은 고유명사는 저희가 지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뜻은 없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배재정 위원** 다른 뜻이 없으시다니요? 말씀이 안 되시지요. 저희가 공문을 요청하는데 공문에서 이름……

사장님, 공문에서 이름 지우고 보내십니까,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하는데?

○**한국방송공사대외정책실장 정지환** 결재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원 위원** 그냥 잘못되었다고 그러세요.

○**한국방송공사대외정책실장 정지환**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러니까 우리 대외정책실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너무 하려다가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재정 위원** 저것이 어떻게 프라이버시입니까?

○**위원장 한선교** 별 뜻은 없었다잖아요.

○**배재정 위원** 그리고 공문서 위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저희 방에 보내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우리 드라마국장이 설명……

○**배재정 위원** 아니요,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

○**위원장 한선교** 드라마국장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염 위원님 그냥 참으시지요.

○**염동열 위원** 하겠습니다.

세 분 다 하셨으니까 그냥 균형 맞추기 위해서……

○**위원장 한선교** 여당 위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최민희 위원** 하게 해 주세요.

○**전병헌 위원** 1분 드리세요, 그냥.

○**염동열 위원** 예,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아니, 아니요, 사회자가 발언 기회를 드려야지 하는 것이지요.

꼭 하시겠어요?

○**염동열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1분 드리세요.

오늘 이길영 감사님 주요 쟁점이 어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박근혜 캠프의 본부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사가 되면. 우리 KBS가 그렇게 허술하고 시스템이 그렇습니까, 김인규 사장님?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글썄,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KBS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여러 가지 시련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외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상당히 잘 갖춰진 조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이사 한 분이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KBS를 좌지우지해서 어느 한 캠프의 본부장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0%의 확률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KBS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염동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여러 위원들께서 부족함이 있으시지만 시간도 7시 40분이 되고 오늘 감사를 받는 출석하신 분들도 피로감도 있고 이해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잠깐만요, 끝나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위한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위원장 한선교** 서면으로 하시지요.

○**전병헌 위원** 서면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서요.

○**위원장 한선교** 1분만 하세요.

○**전병헌 위원** 1분만 할게요.

오늘 KBS와 EBS 방송사들에 대한 토론과 질의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과 함께 신문산업의 위기에 대해서 공개토론회를 했습니다.

지금 신문산업은 잘 아시다시피 ‘보기문화’에 밀려서 ‘읽기문화’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이것은 문화의 이성과 그리고 논리의 취약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신문의 위기는 우리 사회의 언론의 위기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도 프랑스에서 2008년도에 인쇄미디어국민회의라는 이름으로 국회 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설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우리 문방위원회에 지금 소위 미디어 전환기에 상당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신문 진흥을 위한 국회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신문산업 위기 부분에 대해서 법제화 및 제도적인 지원 강구대책을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음 수요일날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이 구체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미디어 전환기에 신문 진흥을 위한 국회 문방위원회에 위원회를 같이 함께 구성을 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신문산업의 활로를 함께 모색해 나가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예, 잘 들었습니다.

더 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결산 등에 대한 3일간의 대체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간사 간의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약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위임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등을 토대로 해서 정부에 이송할 시정요구사항 등을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로 선정을 해서 모레 결산 및 결산승인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 도중에 강동원 위원, 이우현 위원, 김한길 위원, 이석기 위원, 장병완 위원, 전병헌 위원, 박창식 위원, 최민희 위원, 배재정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관계기관장들은 위원님들의 서면질의 내용에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계신 강동원 위원님, 최민희 위원님, 전병헌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배재정 위원님, 도중환 위원님, 최재천 위원님, 염동열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한국방송공사 사장,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1회계연도 결산 등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산회)

○출석 위원(27인)

강 동 원	김 기 현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한 길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응 래	도 중 환	박 대 출	박 창 식
배 재 정	신 경 민	염 동 열	유 승 희
윤 관 석	이 상 일	이 석 기	이 우 현
이 재 영	장 병 완	전 병 헌	조 해 진
최 민 희	최 재 천	한 선 교	

○청가 위원(2인)

주 호 영    홍 지 만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류    환    민
전 문 위 원	김    부    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한국방송공사				
사 장	김 인 규			
감 사	이 길 영			
부 사 장	길 환 영			
시 청 자 본 부 장	박 갑 진			
보 도 본 부 장	이 화 섭			
콘 텐 츠 본 부 장	전 용 길			
뉴 미디어 · 테 크 놀 로 지 본 부 장	김 선 권			
정 책 기 획 본 부 장	이 준 삼			
편 성 센 터 장	서 재 원			
드 라 마 국 장	고 영 탁			
대 외 정 책 실 장	정 지 환			
법 무 실 장	오 영 철			

인적자원실장	정인균
이사회사무국장	김덕기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곽덕훈
부사장	이명구
평생교육본부장	김명세
학교교육본부장	김봉렬
융합미디어본부장	김석태
정책기획센터장	박치형
콘텐츠기획센터장	최혜경
스마트서비스센터장	박성환
콘텐츠사업단장	류현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홍성규